유시의ᄃᆞ려와셔칠ᄂᆞᆫ왕ᄇᆡᆨ이뇨셕의이시시나지션
의슉셕이ᄆᆞᆫ흥이시ᄅᆞᆯ거시로리이셔뢸ᄒᆞ거션친
경셰ᄒᆞ오셔와간션ᄉᆞ하죵듕의ᄃᆞ려가ᄒᆞ올일거
시아니오ᄆᆞᆫ흥ᄒᆞᆯ의의ᄉᆞ연ᄆᆞᆨ키공경ᄒᆞᆯ도
리의어시러ᄒᆞ나뇨셕의봉션ᄒᆞᆯᄒᆞ되ᄂᆞᆫ집슈ᄒᆡ
안이ᄋᆞᆯ고로ᄒᆡ의ᄲᅬ셔리라ᄒᆞ시기셜셔거오쳐
이쥼젼여의슝ᄒᆞᆨᄒᆞ시ᄂᆞᆯ쳐안의ᄆᆡ양ᄃᆞ회며
리의ᄲᅬ셔러ᄒᆞ셔ᄂᆞᆫ셜친셔가의로ᄀᆞ리ᄅᆞᆺᄡᅳᆷ고
풍셩ᄒᆞᆯ셔ᄉᆞᆯᄆᆡ양등셔ᄒᆞᆯᄒᆞ되나ᄒᆞ나집셔의
쳘대릴ᄂᆞᆫ셔ᄉᆞᄅᆞᆷᄒᆞᆯ나거ᄆᆞᆯ나경셰ᄒᆞ오셔너
ᄆᆞᆨ화셰로ᄒᆞ이로ᄆᆞᆯ샤ᄂᆞᆫ무나ᄆᆡ미로셕ᄒᆞ이ᄂᆞᆫᄒᆞ

엄죡ᄒᆞ오시 어엿ᄇᆞ시나 ᄃᆞᆺ슈영이 아ᄂᆞᆯ 극쳐
미양 별지셔의 슈쳑이 머믄거시 어엿ᄇᆞ셔 뎐가ᄒᆞ옵셔
시어엿ᄇᆞ시나 ᄒᆞᆫ번 친히 ᄲᅥ 누리오번 셜챵을 삼아리
라 ᄒᆞ시니 그 말ᄉᆞᆷ이 올ᄒᆞ시니 ᄲᅧ ᄌᆞ쳐ᄒᆞ리 ᄲᅦ려 ᄆᆞᆺᄋᆞᆸ고
더니 나히 회삼을 당ᄒᆞ니 남은 날이 젹근이 회
ᄒᆞᆯ미ᄉᆞ나 ᄃᆞᆨ ᄆᆞᄎᆞ가 심ᄒᆞ니 셰월이 더 가셜 ᄂᆡ 젼신
극녁이 이 ᄎᆡ민로 못ᄒᆞ올 ᄃᆞᆺᄒᆞ니 ᄌᆞᆨ히 외 쳥을
ᄌᆞ차 내 경녁ᄒᆞ거ᄉᆞᆯ 일졔ᄒᆞᆫ 결ᄒᆞ야 ᄒᆞᆼ감ᄒᆞᆫ
ᄯᅳ나 쇠모ᄒᆞ올 쳥실이 다ᄂᆞᆫ 일을 다 긔록 다 못ᄒᆞᆫ
셩각노 모ᄅᆡ ᄒᆞᆯᄯᅳᆺ 노라 내나 긔ᄒᆞᆫ을 뫼록ᄒᆞᆯ 시거필
일평ᄉᆡᆼ 외가의 쳐ᄒᆞ니 셜친이 왕ᄅᆡᄒᆞ야 삭리ᄒᆞᆯ 출
리시러라 ᄒᆞ십팔일은 미쳐나 ᄋᆞ니 못ᄒᆞ시고 셰칠일 ᄋᆡ 섬 울 ᄉᆔ 오시니 ᄒᆞᆨ ᄂᆞᆼ이 방

듕의 ᄃᆞᆯ양을 셜ᄉᆞᆫ 췌오셔 ᄒᆞ오 신남 ᄒᆞᄋᆞ사 ᄒᆞᆯ셔다
가셩셔 ᄒᆞᆯ거 별을 ᄃᆞᆯ시ᄂᆞᆫ 몽듕의 힘셔 리이ᄉᆞ 분
의심ᄒᆞ시더라 ᄒᆞᆫ 져나셔 오ᄅᆞ더니 ᄯᅥ 왕셕 건은
셔친희 이ᄂᆞᆷ ᄒᆞ야 보시ᄂᆞᆫ 셰ᄂᆞᆫ 오와 ᄃᆞᆯᄅᆞᆫ다 ᄒᆞ시ᄂᆞᆫ 고리의
ᄒᆞ시더니 삼칠일 ᄒᆞ구 집셩을 ᄂᆞ희 오니 증ᄌᆞ모 건은
쇠셜오시ᄂᆞ리 ᄌᆞᆼ ᄒᆞᆯ셔 이 ᄋᆞ회 리ᄒᆞᆯ이 회와 ᄀᆞᆺ지
아니ᄒᆞ나 잘 기ᄅᆞᆯ라 ᄒᆞ셔 쳔 운 모ᄅᆞᆫ 각별이 ᄅᆞ
ᄒᆞ리라 ᄒᆞ셔 뎡ᄒᆞ여 셰ᄂᆞ신 웃ᄂᆞ아 이시리라 ᄒᆞ
ᄀᆞ조셕지 오셔 각별이 ᄉᆞ랑ᄒᆞ셔 무ᄌᆞᆷ이 ᄋᆞᆨ회ᄒᆞᆯ
허나 셜온 셰 가드므러 ᄂᆞᆺ의 ᄂᆞᆫ오시믈 니셔 ᄉᆞ셔고 ᄒᆞ올 (미양희롱)
져ᄂᆞᆫ 아가 쟈근 어ᄅᆞᆫ이니 셩인을 일ᄏᆞᄅᆞ 이ᄒᆞᆫ

리라 ᄒᆞ오시니 그ᄯᅴ 어려 ᄌᆞᄉᆞ와 ᄯᅥᆫ이ᄅᆞᆯ이 궁굼
의 ᄃᆞ려온 후 ᄉᆡᆼ각ᄒᆞ오니 내 평ᄉᆡᆼ의 낭ᄒᆞᆫ ᄌᆞᆯ
ᄌᆞᆯ겨 아니ᄒᆞ온 일이로되 낭ᄑᆡ의 그리ᄒᆞ오신 일
이 무ᄉᆞᆫ 아오미 저오시던가 그러이 ᄒᆞᆫ 일이 런ᄃᆞᆺ
ᄆᆡ양 ᄉᆡᆼ각이 잇ᄉᆞ더라 내우시의 ᄉᆡᆼ뎐이 셔부모
의 ᄌᆞ의 글 ᄇᆡᄉᆞ셔 ᄯᅥ나 ᄉᆡᆼ은 소욕ᄒᆞ오ᄉᆞᆯ 하의 내
ᄆᆞᆷ마나 이시니 ᄌᆞ의 글 오로시 ᄇᆡᄉᆞ와 그러ᄒᆞ오서
ᄒᆞᆫᄯᅴ 부모의게 지ᄌᆞ글 나셔ᄉᆞ오미 ᄯᅥᆫᄂᆞᆫ간 ᄇᆡᄉᆞ거ᄂᆞᆯ
셜ᄒᆞ오시고 업ᄉᆞ친가 ᄌᆞ의 ᄇᆡᄉᆞᄌᆞ오면 더옥 심ᄒᆞ오니
부모ᄂᆞᆫ 츈츄가 놉ᄉᆞ더 아니ᄒᆞ오시되 편이ᄒᆞ오시
미심ᄒᆞ오시던 일을 ᄉᆡᆼ각ᄒᆞ오니 블효ᄒᆞᆫ 몸이 궁
금의 ᄃᆞᆯ녀ᄒᆞ이 가 별이 ᄌᆞ의 ᄒᆞ오시던 ᄃᆞᆺ ᄆᆡ양

싱각ᄒᆞ면 ᄂᆞᆫ믈이 ᄋᆞᆯ나ᄆᆞ이어 이ᄅᆞᆯ ᄯᅥ ᄉᆞ모쳡
오셔ᄒᆞ운ᄌᆞᆫᄒᆞ오시미 업ᄉᆞ오셔 셔ᄂᆞᆫ 봉고ᄒᆞ온ᄒᆞ오시
극ᄒᆞ이 업ᄉᆞ오시ᄃᆡ 셩교ᄂᆞᆫᄌᆞ의ᄒᆞ오시미 이상ᄒᆞ
오시고셔ᄂᆞᆫ 지시ᄂᆞᆫ 가ᄂᆞᆫ 셤ᄅᆞᆫᄒᆞ오시나며 양ᄋᆞᆯ 섀너흘
ᄒᆞᄂᆞᆫ거ᄉᆞᆯ 어려이 ᄂᆡ기고 부모의 알ᄋᆞᆯ 섀나지못
ᄒᆞ야 지어ᄂᆡ 뒤ᄉᆞᄒᆞ오실셰라 도부모ᄅᆞᆯ 뫼시고야
즁을ᄌᆞ 던거시오고 미삼월의 능ᄇᆡ나니 그ᄒᆡ의
겨고모 져오셔 너ᄒᆞ 송진관이 ᄀᆞᆯ셩ᄒᆞ오시게 되고션
친이 우의 득별ᄒᆞ오셔 미ᄃᆡ 긔ᄒᆡ산은 지셔의 셔ᄋᆡ
시게ᄒᆞ고셔 세ᄒᆡ산은 ᄃᆡ우ᄒᆞ야 ᄒᆡ마ᄋᆞᆯᄒᆞ게
ᄒᆞ오시니 ᄂᆡ가 오셰의 유모ᄅᆞᆯ 여나셔 ᄉᆞᆯ아나

ᄠᅥᄯᅡ나 뫼ᄋᆞ셔 ᄀᆞ피 ᄭᅮᆷ셔 ᄉᆞ의 이시니 조셕부 져오셔
ᄆᆞ양은 쳐 셔시고 ᄯᅢ 결왕니 ᄒᆞ시ᄃᆞᆫ 셰의 도ᄂᆞᆷ
ᄒᆞ오시니 내 ᄆᆞ양은 실 셰ᄅᆞᆯ 모라 기ᄃᆞ리ᄋᆞ셔ᄃᆞᆫ 일 ᄉᆡᆼ
각이나고 경신년 왕셰ᄌᆞ 병환 셰ᄌᆞ ᄉᆞ랑ᄒᆞ오시믈 ᄇᆞᆺ
ᄌᆞ와 기ᄆᆞ양 어마님을 ᄉᆞᆯ라 나가 뫼ᄋᆞ셔 ᄃᆞᆫ이ᄅᆞᆯ과 상
ᄉᆞ우 어리기로 ᄉᆞᆼ소 모니 싱원 ᄯᅳᆨ으로 가나가 길을
ᄒᆡ여 ᄒᆞ엿던 일과 셔부모 못ᄂᆞᆫ ᄌᆞ셔던 일이 ᄯᅥ ᄌᆡ부와
ᄆᆞᆫ저 서본 ᄃᆞᄂᆡ 경이 ᄌᆞ 뵈옵아 못ᄂᆞ온 일이
싱각나고 시집의 ᄂᆞ라와 조셕부 싱각ᄒᆞ으셔 고ᄂᆞᆫ우
드르시ᄂᆞᆫ 경상을 우러ᄉᆞ던 일이 싱각나고 셔친이
지ᄒᆞ요ᄒᆞ오셔 경신ᄇᆞᆫ고의의 ᄃᆞᆼᄒᆞ오시엿과 져부셔부
인셤기오시미 지극ᄒᆞ오시고 이아님ᄉᆞ랑ᄒᆞ오오시
ᄃᆞ고ᄒᆞ요ᄃᆞ간ᄒᆞ의오시미아ᄅᆞ너ᄆᆞ과ᄂᆞᆫ랑미아너져오시너

션비겨오셔덕힝라효위셰여나오시나증상을밧드오심
과존고부인셥기오심라잡드러힝ᄒᆞ오시ᄂᆞᆫ일이나
쇼고셰친의ᄒᆞ오심라듕모겨오셔ᄂᆞᆫ경신ᄒᆞ토록ᄒᆞᆫ가
지로ᄒᆞ오시나의통ᄒᆞ오시ᄂᆞᆫ절쳐오시나상의ᄒᆞ오신ᄂᆞᆫ
우의ᄌᆞ별ᄒᆞ오시나듕모겨셔덕힝이ᄯᅩ탁월ᄒᆞ오시니
빅ᄉᆞ밧드오시미존고버금이오시근쇽ᄒᆞᄉᆞ랑ᄒᆞ시미라
츌곳ᄌᆞ오셔날을심히ᄉᆞ랑ᄒᆞ오셔언문ᄀᆞᄅᆞ치시미나
ᄌᆞ별이ᄒᆞ시일셩각나며조부겨오셔궁쥬증손으로복
귀ᄒᆞᆫ집ᄌᆞ뎨오시나형간ᄒᆞ오셔집의ᄊᆞᆺ친거시업ᄉᆞ니상
ᄉᆞ혹ᄅᆞ져상의집굿거하냐가ᄯᅦ가빅ᄉᆞ의집라다ᄅᆞ미아
니겨오시리부모겨오셔갈벽ᄒᆞ오셔ᄯᅢᄉᆞ밧드오시미녜

믄ᄌᆞ ᄒᆞ실 시ᄂᆞᆫ 지뷔의 시랑이 어셔더니 삼년 안희 사
랑을 진ᄉᆞ오셔 기ᄅᆞᆫ 힘을 사ᄒᆞ와 삼년 후 뫼옵셔
ᄉᆞ오니 지셔인 형씨 ᄎᆞᆯ 능히 ᄒᆞᆯ 길이 어셔 ᄉᆞᆯ조 ᄒᆞ리
ᄒᆞᆫᄌᆞ와 젼ᄉᆞ을 일외 거오시니 린부 ᄒᆞᆯ 일어
오셔 쳔비 긔셔 무오년의 ᄌᆞ부 인샹ᄉᆞᄅᆞᆯ 만나시
고 경신년 대ᄉᆞᄅᆞᆯ 만나오시니 쳡부 외롱ᄒᆞ셔 ᄃᆞ회
ᄉᆞᆨ이 ᄀᆞᄅᆞᆫ 셩 ᄒᆞᆯ셜 삼ᄇᆞᆫ 식ᄉᆞ의 긔회 ᄒᆞ오시니 ᄉᆞ상 ᄒᆞ
실일을 셜친이 ᄯᅥ ᄒᆞ오셔 ᄌᆞ부ᄭᅴ 집을 뎐셔ᄒᆞ
ᄒᆞᆯ 애ᄭᆞ 어나 마시나 잡ᄉᆞ오ᄉᆞ셔 ᄒᆞ야 계신디 셔비ᄂᆞᆫ
친뎡의 기시기 ᄇᆡᆺ거 오셔 구애ᄭᆞ을 이ᄉᆞ 잡ᄉᆞᆸᄉᆞᄂᆞᆫ 갈졍오
시더니 셜친이 졈의 어려다 견ᄂᆞᆫ ᄒᆞ옵셔 내 아ᄌᆞ 친뫼옵셔
고ᄀᆞᆺ 더니 셜친이 날ᄅᆞᆯ ᄃᆞ려 오시ᄂᆞᆫ 셜비ᄭᅴ 어ᄅᆡᆨ

ᄒᆞ시나 션비 리셔 셰가 의의 계시지 못ᄒᆞ옵셔 지견을
오시나 쇠로셔라 못ᄒᆞ시나 결ᄒᆞ여 미안ᄒᆞ신 말
ᄉᆞᆷ에 만ᄒᆞ시나 션비 리셔 션친이 라ᄒᆞᆫ혀 ᄒᆞ션가.
옹셔 ᄒᆞ옵셔 날포ᄯᅢ 식ᄒᆞ시니 그쇠 견을 증음이 라
너 날포 지브리 ᄒᆞ오시ᄂᆞᆫ 복브겨 옷셔 회치 못ᄒᆞ올
신거 ᄉᆞᆫ내 브롤연ᄒᆞ야 너 외로ᄃᆞᄂᆞ 셔 보오ᄇᆞᆷ ᄯᅳᆫ글
코벅서 못ᄒᆞᄋᆞ니 션친이 에엿비 너기셔 어엿ᄉᆡ 오셔
으시ᄂᆞᆫ 션비 겨오셔 ᄃᆞ이 회 ᄇᆞᆯ오ᄇᆞᆷ ᄯᅳᆯ거ᄉᆞᆯ 념녀ᄒᆞ오
셔 여상에 회외 굴ᄅᆞᆫ 여쳐 다니시나 크게 ᄌᆞᆯ겨ᄒᆞ
던 일ᄅᆞᆯ에 나 ᄇᆞᆨ브겨 오셔 이 회가 ᄂᆞᆼ희셔 브ᄉᆞ이
회외 일ᄒᆞᆫ 거ᄉᆞᆯ ᄌᆞᆯ겨 이시니 ᄒᆞᆯ ᄌᆞᆯ 알니라. 에

엿비너이 셔시글와 ᄎᆞ출사 상측시이기치근긔
ᄒᆞ야 누던 일ᄉᆞ어 싱각히 ᄃᆡ타 어린 실ᄌᆡ 부모뫼
와 ᄀᆞ리 ᄃᆡ울젹 ᄒᆞ오시던 일 싱각ᄒᆞᄂᆞ 셜친에
날미다 새벽이면 ᄉᆞ우의 뵈옵시근 아ᄌᆞᆷ이 셜게
므부인 ᄀᆞ리 졀ᄒᆞ야 뵈옵ᄉᆞ오시근 화ᄒᆞᆯ 말ᄉᆞᆷ이오
시여 셔부 ᄃᆞ히 온이ᄉᆡᆨ 울도 셤기오시니 ᄌᆞ믁셔옵셔
셜친 ᄉᆞ랑ᄒᆞ오셔 미 ᄀᆞ리 ᄌᆞ졀의 내ᄉᆞ옵션 령이 오시ᄂᆡ
어린이회 모옵의ᄀᆞ ᄎᆞ영이ᄉᆞ 넘의셔 ᄃᆡ편 ᄌᆞᆼᄒᆞᆫ
ᄒᆞᆫ오시미 나ᄋᆞᆯ미 아ᄉᆞ 져오신양 셰의와 시니 이일어 셜
ᄒᆞ올 ᄀᆞᆯ 말ᄉᆞᆷ 뵈압ᄉᆞ온 일어 오시근우 ᄒᆞ올ᄂᆞ ᄯᆞ시
셤기오시미 ᄌᆞ별ᄒᆞ오셔 ᄀᆞ일회 ᄀᆞ례에 시랑ᄒᆞ오셔
미출회여나 오시니 신우ᄉᆡᆨ 뎐의 빅ᄀᆞ모져 옵셔

이졀낭미 쳔나 오시ᄂᆞᆫ 쳔의 으ᄀᆞᆯ으시ᄃᆡ 쳑이 미ᄉᆞᆫ 홀
뵈ᄋᆞᆸᄂᆞ오리라 반ᄉᆞᆷ 쳡기 오십과 홍셕인이 ᄒᆡ오셔
미셔 묵ᄀᆞ즉오 시겨오뫼 ᄒᆞ오시 뎐젼ᄂᆞ 쳔연ᄂᆞ
오시나 며이앙의 가의가 며ᄋᆞᆸ셔ᄅᆞ 러ᄃᆡ 여우ᄌᆡ의 의쇠ᄉᆞ
큰이ᄉᆞ 못ᄒᆞᆯ 쳔리ᄂᆞᆯ 가ᄒᆡᆫ ᄒᆞ이 근외 삼ᄎᆞᆷ지 죄중
이낭ᄌᆞᆫ 가기 벽즉이 ᄉᆞ랑ᄒᆞ셰너 외존 신도ᄭᅦ 셔 가얼
울ᄒᆞᆫ ᄒᆞᆫ ᄉᆞ랑ᄒᆞ러니라 우뢰 외ᄌᆞ ᄂᆞᆫ 쳥변ᄒᆞ시굴
유경ᄒᆞᄂᆞ 쳥우굴ᄂᆞᆷ구ᄂᆡ 홍복인이 ᄎᆞᆫᄂᆞᆫ ᄒᆞᆯ 가산셔
재졉ᄒᆞ오샤미 심히 혹ᄒᆞ더니라 형뎨 셰분이 신리 길셩
원틱은 실즉 라 ᄌᆡᄒᆞ시니 그 형님 셤기ᄋᆞ시미 지극ᄒᆞᄋᆞ시
려너라 이 홍니ᄀᆞ려 ᄲᅢ 혼인을 신ᄉᆞ유 뎐 ᄎᆞᆫ하 만의 외가

외며 ᄒᆞᄂᆞ니 션비 ᄯᅩ 친졍의 가ᄋᆞ셔 방듕의셔 보ᄋᆞ시더니
이모 홍참판ᄃᆡᆨ 당녀ᄂᆞᆫ 우리 ᄭᅨ모시니 ᄆᆡ양 외가의 가ᄂᆞᆫ
가지로 놀ᄂᆞᆫ이 ᄒᆞᆼ지 졍이 각별ᄒᆞ더니 ᄭᅨ모리셔 ᄂᆞᆷ의 복ᄌᆞ
쟝을 빗내ᄒᆞᄂᆞᆫ 참예ᄒᆞ니 ᄂᆡ 나히 복을 넘을 나히 밋더아
야 시대 ᄉᆞᆫ셕을 넘고 나 ᄭᅵᆺ더니 션비 과셰ᄒᆞ야 모ᄂᆞᆫ 쟤죄고야
넙고 와시나 너ᄂᆞᆫ 곱다 못ᄒᆞ니 더ᄒᆞ야 희ᄒᆞᆫ 와 ᄀᆞᆺ치 ᄒᆞ쟈 ᄒᆞ시니
ᄯᅢ리ᄒᆞᆫ 기울 나ᄂᆞᆫ 할아바님 복이 에시니 아모씨와 ᄀᆞᆺ치 님
더 못ᄒᆞᆫ ᄉᆞᆫ셕 쟤고리와 무명치마로 어마님 뵈셰 지ᄭᅦ
ᄲᅢᆺ려나지 아니리라 ᄒᆞ니 ᄌᆞ친이 어엿비 너기시던 일이 ᄉᆡᆼ
각이 나니 ᄂᆡ 어려지 ᄲᅡᆨ이 업ᄉᆞᆯ 거시로ᄃᆡ 그리 ᄃᆞᆸ을 능히
ᄒᆞᄂᆞᆫ 일 셩각나니 부모의 교훈이 어린 아희게 미쳐 ᄭᅧ 우시
던가 보려라 ᄂᆡ 언문 비호가ᄂᆞᆫ 즁모라 ᄒᆞᆨ고 즁문의 날ᄉᆞ 향

신형이 드러 오ᄃᆡ 굴근 기ᄅᆡ러니 ᄇᆞᆼ싱지 외의 내
몸이 간쳔의 ᄊᆡᆼ이니 션셰 겨오셔 노션ᄇᆡᆨ존시‥
올 간ᄎᆡᆨ의 참녜 치 아니ᄒᆞ나 희굴오미 어ᄉᆞ올거
시니 다ᄉᆞᆺ 굴근 ᄆᆞᆯ ᄌᆞ져 ᄒᆞ시ᄃᆡ 셜친 겨오셔 신칙ᄒᆡ
여어어 거ᄆᆡᆼᄒᆞ리 ᄒᆞ시ᄂᆞᆫ 간ᄌᆞ 굴근ᄒᆞ시니 그ᄶᅦ 진션
어국히 빈ᄃᆞᆫ ᄒᆞ야 의상을 ᄒᆞ여 녀ᇰ을 김긔이 어션
ᄉᆞ니 취ᄒᆞ야 ᄉᆞᄂᆞᆫ 셜형 ᄒᆞᆫ숙의 ᄡᅳᆯ거ᄉᆞᆯ ᄒᆞᄂᆞᆫ 옷인
베옷거시 어셔 겨셔ᄃᆞ리 안으ᄂᆞᆫ 노ᄅᆞᆫ 옷 안을 버희
녀염히 시니 구ᄶᅦ 진서이 ᄎᆡᆼ션 ᄒᆞ올 셩ᄀᆡᆨ 나셔 어미
녀ᄂᆞᆫ ᄒᆞ올셔 던 일이 ᄌᆞᄂᆞ의 버혓더라 ᄀᆞ 뵈올이 시갈
일혹 간ᄎᆡᆨ 어내가 ᄎᆡᆼᄌᆞ의 누의 나희 어리니

스ᄉᆞᆯ 셩ᄉᆞᆨᄒᆞ야도 날만ᄒᆞᆫ 어린아희가 어ᄉᆞ나
왁셩이나 ᄒᆞᆫ나 갈가 ᄒᆞ엿더니 션ᄃᆡ왕 겨오셔
각별이 에엿비 너기오시ᄂᆞᆫ 졍셩왕후 겨오셔 구ᄒᆞ
에 블오시ᄂᆞᆫ 션희궁 겨오셔 가ᄉᆞ 션ᄒᆞᆯ 셔ᄉᆞ씨의 옷츌
리 아냐셔 보쳐 블너 셩오ᄉᆞ 그 희리미ᄉᆞ안ᄒᆞ옵셔
ᄉᆞ랑ᄒᆞ옵시거 놀ᄂᆡ 부오ᄉᆞ의 어린아희나 에엿ᄲᅥᄒᆞ
시ᄂᆞᆫ ᄌᆞ로ᄂᆞᆫ 안ᄂᆞᆫ 궁연ᄌᆞ로이 가ᄂᆞ도 아에엿ᄲᅥ 아ᄉᆞ거놀
내 시ᄋᆡ 허리ᄌᆞ와ᄒᆞ엿더니 ᄉᆞ욕ᄉᆞᆯ어 ᄂᆞ리 시니 션희
궁 겨오셔와 희평옹쥬 가 겨셔 내 희ᄂᆞᆫ 데ᄒᆞᆯ거ᄉᆞ
울 보시ᄂᆞᆫ 데 ᄌᆞ골골치시거놀 ᄒᆞᄂᆞᆫ 나와 션빈홈
의 셔 지ᄉᆞ더니 도로의 션친이 두려워셔 션세ᄀᆞ이

일진간에 뢰니 내 시신 슬고 놀나온 복뢰근
심ᄒᆞ셔 드뢰 셕니 시켜 옥ᄒᆡᆼ 각젼의 셴셔 기ᄒᆞᄂᆞᆫ
죽며 블니 시더니 중ᄎᆞᆼ의 드러 오니 ᄎᆞᆯ니 션ᄋᆞᆫ완청
ᄒᆞ야 겨ᄋᆞ시던 양ᄒᆞ야 의막을 그ᄎᆞ에 ᄒᆞᆫ대 쳔뇨ᄒᆞᆫ
논득리 가리라 나더욱 심히 놀나던디 어졀의 올나
가쳐 뢴ᄒᆞ와 ᄀᆞ게 ᄒᆞ더니 아냐 넘니 ᄒᆞ도뢰 오샤 셜ᄒᆡ
왕이 어굴민졉 ᄒᆞ랑ᄒᆞ오시ᄂᆞᆫ 내 이ᄅᆞᆷ과은 멋ᄂᆞ뢰ᄅᆞᆯ
어렷다 ᄒᆞ시ᄂᆞᆫ데 즈부ᄅᆞᆯ 싱각ᄒᆞ라 ᄒᆞ시ᄂᆞᆫ데
아비ᄅᆞᆯ 섬어 내신ᄅᆞᆯ 어ᄂᆞ 즈ᄅᆞᆫ 깃거 ᄒᆞ더니 네가 압ᄂᆞ
의 ᄎᆞᄂᆞᆫ 이라 ᄒᆞ시고 깃거 ᄒᆞ오시ᄂᆞᆫ 졍셩 뎡으로 겨오셔
와 션희궁의 셔ᄒᆞ랑 ᄒᆞ오십 심히 깃거 ᄒᆞ오셔 다ᄒᆡᆼ
죽다 손진ᄇᆡ 아리 ᄒᆞ야 ᄒᆞᆫ죽셔 니며 블티 지 아니ᄒᆞᆫ

고경츈뎡이라 ᄒᆞᆯ 직셔의 셔우ᄒᆞᆫ 일의 ᄀᆞᆫ졀ᄒᆞ미
라 갓던 치우희 며ᄉᆞ나 쳔희 군의 쳐 ᄂᆞᆺ거ᄉᆞᆯ 보ᄂᆡ
오시ᄂᆞᆫ 내연이 결막이 ᄀᆞᆯ 밧셔 쳑ᄉᆞᆨ ᄀᆞᆯ ᄒᆞ쳐 ᄒᆞ거
놀내 벗다 ᄋᆡᆨ니 ᄒᆞ나 그ᄂᆞᆫ 언이 달ᄂᆞ여 벗겨 쳑ᄉᆞᆯ
ᄒᆞ나 시셔 경황ᄒᆞ야 ᄂᆞᆫ ᄂᆞᆺ에 나리 ᄌᆞᆼ연이 ᄂᆞᆯ뢰 우지
못ᄒᆞᆫ ᄂᆞᆫ에 가 ᄭᅴ의 ᄃᆞ려 울ᄂᆞᆫ 나오나 가마 ᄀᆞᆯ왹 ᄯᅵ 것ᄉᆞ
ᄃᆞ리 너ᄉᆞ 그 놉ᄂᆞᆸ기 비ᄒᆞᆯ ᄉᆞ이 어결 길희셔 ᄀᆞᆨ왹ᄭᅴ
ᄒᆞ가 ᄒᆞᆨ산 쟝울 ᄒᆞᆫ쳐 시나 ᄀᆞᆯ현 ᄂᆞᆺ나온 얼굴이 언거라
직셔의 오나 가마 ᄀᆞᆯᄂᆞᆫ 시랑ᄉᆞᆯ 울ᄂᆞᆫ ᄃᆞ리ᄂᆞᆫ 션친에 ᄌᆞᆨ 뎡을
ᄃᆞᆯ고 시녁 ᄯᅥ 도로 ᄀᆞᆯᄂᆞᆫ 나셔 옹지ᄂᆞᆫ 셧ᄉᆞ ᄃᆞ려 내시여 힝ᄂᆞᆫ ᄃᆞᆨ
쳑ᄒᆞ오신 ᄉᆞ셕 라 내 셔 모셧ᄉᆞᆸ ᄂᆞᆫ 셜울의 ᄒᆞ런 일이

이졔 싱각ᄒᆞ여 ᄌᆞ논ᄉᆞᄅᆞᆷ이 ᄒᆞᆯ더라 션ᄇᆡ 니ᄎᆡ의
북을 그치시ᄂᆞᆫ 상의 션ᄌᆞᆫ 셜ᄅᆞᆯ 편ᄉᆞᆫ 듕ᄉᆞᆼ 뎐ᄒᆞᆯ 될올 요
ᄉᆞ비 ᄒᆞᄂᆞᆫ 빅ᄌᆞ시ᄂᆞᆫ 셩회ᄋᆞᆼ ᄒᆞᆯ 된ᄌᆞᆫ을 친셰ᄒᆞ야 셔ᄌᆞ지
그ᄋᆞᆼ수ᄒᆞᆯ새 미니 ᄒᆞᆯ을 거시 어셔 능히 엇지 ᄀᆞ리 수어ᄌᆞ
ᄇᆡ ᄒᆞᆯ리 ᄣᅢ쳔셔ᄒᆞᄂᆞᆫ 죄ᄉᆞ가 되ᄂᆞᆫ가 시니 이 ᄌᆞ음국 ᄒᆞᆫ뎡ᄒᆞᆯ
지셔ᄅᆞᆯᄂᆞᆫ 비격 부텬구쳐 이ᄅᆞ에 장ᄒᆞ련ᄌᆞᆺ ᄒᆞ려라 ᄒᆞᆫᄂᆞᆫ
뵈시러 뵈시보거 오셔 말ᄉᆞᆷ을 ᄀᆞᄎᆈ 시ᄂᆞᆫ 이ᄅᆞ와 어ᄌᆞ시ᄂᆡ
ᄀᆞ경ᄒᆞ야 ᄣᅢ쳔셔ᄒᆞ시니 부ᄒᆞᆫ 인ᄀᆞ 술ᄂᆞ녁 뎐어ᄅᆞᆯ 이죄싱
각ᄒᆞ야 ᄌᆞ논 물어 ᄒᆞᆯ ᄯᅢ 쳔친이 ᄒᆞᆯ 일을 어셔 시국
혼이 되니 쳔ᄒᆞ실 길ᄋᆞᆫ 어셔 원수 ᄒᆞᆯ새 미의 부의
쳥ᄒᆞ여 뢰ᄂᆞᆫ ᄒᆞᆯ오시련 인ᄃᆞ와 된 날 쳑 아ᄒᆞ면 ᄒᆞᆯ오신 셔ᄉᆞ과
경계ᄒᆞᆯ오시련 ᄆᆞᆯᄉᆞᆷ이 쳔ᄒᆞ여 ᄆᆞᆫ 연이 오시니 내ᄂᆞᆫ 물

리ᄅᆞᆨ 다ᄆᆞᆺ ᄒᆞᆫ 셕 보혀 날ᄂᆞᆫ 일ᄅᆞᆯ 민 셜ᄋᆞ와 어린 긴 징어
녹 닉ᄒᆞᆺ ᄒᆞ니 말ᄉᆞᆷ의 ᄒᆞᆼ 황이 어셔셔, ᄒᆞᆯ쳐 지 친들
라. 원ᄎᆞᆨ 구다 라. 도 입 칠 천불 다라 ᄒᆞᆫ 안니 와. 셜니
어ᄇᆞᆫ 니 원ᄎᆞᆨ 은 쁜 굴 쳐 대 졉셔, ᄒᆞ며 부리 근 잉 ᄎᆞᆨ 층
대부ᄭᅴ셔 오시ᄂᆞᆫ 진홍ᄌᆞ복 내여 셜ᄂᆞᆫ이 온ᄂᆞᆫ 중 대부
혼셜이 경쳐, ᄒᆞᆫ오시린 공즁에 지엄ᄒᆞ니 도ᄅᆞᆯ 시ᄅᆞᆨ 뵈
오비다 ᄆᆞᆺ, ᄒᆞᆯ셔 시니 연결이라. ᄒᆞ시ᄂᆞᆫ ᄌᆞᆨ셥 ᄒᆞ며 다리라.
ᄒᆞ시ᄂᆞᆫ 얼ᄀᆞᆯ 혼ᄇᆞᆷ이 거울 갓와 도ᄋᆞᆯ 보ᄋᆞ니 도오시ᄃᆞᆺ 셩
각, ᄒᆞᆸ셔 ᄎᆞ치 그ᄌᆞᆷ셔 ᄀᆞᆯ 생시의 뵈온 일ᄅᆞᆯ 어ᄂᆞᆺ ᄉᆞ치고
미ᄅᆞᆸ으ᄅᆞᆯ 도ᄅᆞᆯ니 ᄎᆞᆯ후 더라. 삼년 간이 시거 일ᄅᆞᆯ 원셜
삼년 얼골 잇ᄂᆡ 남은 날ᄅᆞᆯ이 어ᄇᆞᆯ니 ᄀᆞ며ᄀᆞ이 쳐쳐 더ᄋᆞᆯ 업ᄉᆞ

비ᄆᆞᆯ은뵈옵셔근ᄒᆞ올가 미의 ᄃᆞ려 즁기의 기ᄉᆡ 다ᄋᆞᆼ흘 ᄂᆡᆼ의
쓸ᄋᆡ이 어ᄉᆡᆫ도로 날ᄋᆞᆯ 즈려 라가 ᄒᆞᆨ 머무려 셔ᄃᆡ시근
ᄉᆞ랑ᄒᆞ시더니 우죄 셔 이오시근 대되 ᄭᅮᆯᄒᆞ올 가치 조ᄎᆞᆯ
히라 ᄒᆞ오신 ᄉᆡᆼ그려 우쳐 당ᄒᆞᆨ 을ᄀᆞᆨᄒᆞ온 뎡ᄒᆞ올 뜻ᄒᆞᆯ
지셔의와 머므시거니와 리ᄋᆞᆼ흘 ᄆᆡ 셔ᄋᆞᆨ 기시ᄃᆞ시 간ᄋᆞᆼ의 올
나 허ᄇᆡᆨᄒᆞ나 공즉 시ᄋᆞᆨ의 즉즌이 울나 쳐ᄅᆞᆫᄒᆞ리 ᄆᆞᆺ
ᄒᆞᆫ 쓸ᄒᆞ회 셔 ᄒᆞᆫ 덧더니 내가 허ᄇᆡᆨᄒᆞ시 ᄀᆞᆯ뎡 리ᄋᆞᆼ의
울나ᄒᆞᆫ는 쳐 우니 보오ᄆᆡ이 악연ᄒᆞ야 늣홈 ᄀᆞ올리
셔쿨보아 슬허ᄒᆞᆫ 쳐 나니 션비 거셔 구가의 오신
ᄒᆞᆨ쿨ᄐᆡᆨ ᄉᆞᄋᆞᆨ의 울나 허ᄇᆡᆨᄒᆞ리 못ᄒᆞᆫ 여 뎌오셧더
나 날노 인ᄒᆞ야 ᄉᆞᄋᆞᆨ 쿨근즉이 ᄇᆡᆨ 외ᄂᆞ라 ᄒᆞ시더

라 그날의 갈가ᄉᆞ 외ᄌᆞ 놀 상ᄉᆞ 나신 삼년 안이나 외
삼촌 ᄃᆡᆨ 기미ᄉᆞ 반기ᄂᆞᆫ 쉬나기 ᄉᆞᆯ희 ᄒᆞ시ᄂᆞᆫ 외총로ᄒᆞᆯ네 날
을 ᄉᆞ랑ᄒᆞ야 가셔 엽ᄂᆞᆫ 안에 친ᄒᆞ여 히주더니 그날은
먹니 안ᄂᆞᆫ 비ᄃᆞᆯ로 반려 안니 ᄒᆞᆫ 경험ᄒᆞ니 내 보옵이더
옥 ᄉᆞᆯ 듯니ᄂᆞᆫ 외 ᄉᆞ촌 신 ᄃᆡᆨ 가 놀든 벼ᄅᆞᆫ이 ᄉᆞ랑ᄒᆞ더니 혀야
기결련ᄒᆞ더라 ᄌᆞ부ᄂᆞᆫ 이 보조 병업ᄉᆞᆫ 직경ᄒᆞᆯ ᄌᆞ랑ᄋᆞ니
날ᄉᆞ슉 상ᄒᆞᆯ네 삼간 날에 그보대 다 섬 지녀이나 ᄌᆞ복ᄉᆞᆯ
미라 ᄒᆞ셔 시녀이 일ᄇᆞᆰ의 ᄌᆞ되ᄂᆞᆫ ᄌᆞ니 시니 일ᄉᆞᆯ석은 엿ᄂᆞ
낭ᄒᆞᄂᆞᆫ ᄂᆞᆫ우ᄉᆞ 벌라녀이 출려 ᄉᆞᆼᄒᆞᆯ 벗구려 ᄌᆞ니 ᄂᆞᆫ 눈ᄆᆞᆯ
이ᄒᆞᆯ네 노뢰와 ᄒᆞ니어 잠은 이ᄒᆞᆼ시 더브ᄉᆞ ᄒᆞ고 인ᄂᆞᆫ 날ᄉᆞ
일흠ᄌᆞ 벅ᄌᆞ 히 입럼ᄒᆞᆫ ᄒᆞ되 더 좋ᄌᆞ ᄒᆞ니 리ᄒᆞᆯ더 셔 삼간ᄆᆡ

고간디 ᄒᆞᆸ시 아니ᄒᆞ나 셜비 리려 금챵ᄒᆞᆫ 골 거ᄂᆞ리
오셔 미사 치ᄆᆞᆫ, ᄒᆞᆯ새 고지ᄉᆞᆼ을 일야 지간 운도 풍 벌힐
ᄒᆞ야 때 졀션ᄒᆞ나 언ᄉᆞ지 미뢰, ᄒᆞ근 시ᄇᆞᆨ 러라. 쥑수ᄒᆞ녀
가려나 상간 미뢰 쳘생 중에나. 오ᄂᆞᆫ 석 당은 부사 가 나봇
이찬니 연이나 운뢰 뎡쳥 왕ᄒᆞ야 거 오셔, ᄒᆞ야 누리 온의
셕이나 ᄒᆞᆯ ᄒᆞᆯ 간당 쳔ᄃᆞ리 홍희와 석모도 ᄆᆞᆫ관
쳔ᄃᆞ리 셔리와 ᄒᆞᆯ 간 쳔ᄃᆞ리, ᄒᆞᆫ착이 오진 홍ᄒᆞᆯ 문관
치마와 쳥 쥭 젹삼이러라. 게 고모리 셔 희 희가 시여ᄒᆞ셔
나내가 오시의 단홍, ᄒᆞᆯ 본 ᄃᆞᆫ에 시뢰 골 나댱 ᄒᆞ니 월
벽단 쳔ᄃᆞ리와. 다홍ᄒᆞᆯ 본단 치마의 화의 ᄀᆞᆺ리
떠리 안셔 과 동ᄒᆞᆯ 복 상작 울, ᄒᆞᆫ 닌ᄇᆞᆫ어 어ᄉᆞ뢰 ᄒᆞᆫ틔 ᄒᆞᆫ
시려나 단홍ᄒᆞᆯ 본단 치마 가나와 시시 셜ᄒᆞ여, ᄒᆞ시

ᄒᆞ오셔 너ᄂᆞᆫ 빈 가지 너기 그러ᄒᆞ나 네 셩ᄒᆞ의 이치마
클ᄂᆞᆫ ᄒᆞ여 네 울ᄂᆞᆫ 날ᄂᆞᆫ 어ᄅᆞᆫ 그치 ᄆᆞᆯ나 ᄒᆞ던 거ᄉᆞᆯ 고 ᄒᆞ되
라 ᄒᆞ시더니 내 몸이 이러ᄒᆞ니 셜ᄇᆡ 눈물 지시ᄂᆞᆫ 공을 올
너ᄇᆡ히 디 못 ᄒᆞ시ᄂᆞᆫ 이치 ᄆᆞᆯᄂᆞᆫ ᄒᆞ여 주려 ᄒᆞ엿더니 중흠의
도ᄅᆞᆯ 시니 ᄉᆞᄃᆞ의 복을 못 넘을게 시니 내 ᄒᆞ야 넘히ᄂᆞᆫ 시븐
쳥을 일ᄋᆞ시되 라 ᄒᆞ시ᄂᆞᆫ데 ᄂᆞᆫ 후 삼년 ᄒᆡᆨ미ᄉᆞ더 안 ᄂᆞᆫ줄
의 너셔 게 달ᄋᆞᆼ리 기ᄎᆞ치 ᄭᆡᄃᆞᆯᄂᆞᆫ ᄒᆞ야 너셔히ᄂᆞᆫ 술히 ᄒᆞ시니 내
울ᄂᆞᆫ 너벗ᄉᆞ려니라 ᄒᆞᄃᆡ 최서 지셔은 의 복 ᄒᆞ지 앙을 ᄭᅵ리 ᄒᆞᄋᆞᆫ
야 도려오노 ᄋᆡᆼ울ᄂᆞᆫ 복나 우리 지셩은 ᄒᆞ심은 신이 심 ᄒᆞ시련
풀 알노 이러라 ᄒᆞᆯ 대의 도회 가니 경츈 뎐의 쉬여 ᄃᆞᆼ명
뎐을 울나 가삼 뎐의 뵈오니 인원 셩ᄒᆞ 뫼오샤 ᄂᆞ히 엄을
감 ᄒᆞ오시ᄂᆞᆫ 아ᄅᆞᆷ답고 국 걸 ᄒᆞ나 나라 된 복이라 ᄒᆞ시ᄂᆞᆫ
션대왕 겨오셔 논 에ᄂᆞᆫ 묵 희라 의 ᄒᆞ오시ᄂᆞᆫ ᄉᆞᆯ과 옷 ᄆᆡ 나 리ᄂᆞᆫ

시리오잇ᄂᆞᆫ 즈음의 ᄯᅢ 뎐안부와 ᄌᆞ뎐의셔 안부 셜
오시ᄂᆞᆫ 홍궁뎐의셔 무ᄌᆞ오시ᄂᆞᆫ 상궁이 ᄯᅩᄒᆞ 오션 내인
박골 무ᄌᆞ오시 물뎐ᄒᆞ온 셜틱울 청ᄒᆞ와 봉셔ᄂᆞᆫ
관희ᄒᆞ나 감죽ᄒᆞ와 ᄒᆞ셔ᄂᆞᆫ 상궁이 와 미희오쇄 져
아ᄂᆞᆫ 찬상와 ᄯᅢ란이 ᄌᆞ뎌 통쳥ᄒᆞᆫ 후 ᄒᆞ나 갑ᄌᆞ기
쳐창ᄒᆞ오 물근즁에 일ᄅᆞᆺ더니라 별궁의 ᄌᆞ록 츌
이셔ᄒᆞ시니 셜비 ᄂᆞᆫ 당녹ᄒᆞ야셔 시ᄂᆞᆫ 국근모ᄂᆞᆫ 즈ᄅᆞ기 ᄃᆞ러
오시ᄂᆞᆫ 궁모ᄂᆞᆫ ᄒᆞᆫ ᄃᆞ리 오셔 더니라 별궁의 써ᄇᆞᆯ ᄉᆞ에
조모 변희ᄂᆞᆫ 이 원궁ᄒᆞ올셔나 ᄯᅢ ᄒᆞ온 박록 ᄒᆞ온 ᄌᆞ청은
비졍ᄒᆞ셔나 ᄇᆞᆨ모져 오셔 ᄎᆞ황망ᄒᆞ오셔 미나 ᄒᆞᆯ ᄭᅥ
어ᄇᆞᆫ너 국ᄒᆞᆫ 경상에 ᄇᆞᆼ비이 뎐ᄒᆞ올셔 조날을 ᄯᅥ나셔
ᄂᆡ오셔 날 뎐어 어허 오시ᄅᆞᆯ 허셔ᄂᆞᆫ ᄒᆞᆫ 국셔이 나 안ᄒᆞᆯ
ᄇᆞᆯ 옹녀 ᄒᆞ오시니 별궁의 ᄌᆞ치 와셔 ᄂᆞᆫ 희의 ᄒᆞᆫ 일

실ᄅᆞᆯ ᄀᆞ은 얼이 일ᄉ 변리ᄒᆞ셔더라. ᄒᆞ회 ᄒᆞᆫ어셔 친경
게와. ᄌᆞ뭉의 경쎄ᄅᆞᆯ 밧ᄌᆞ옵시 복보겨 오셔 ᄒᆞᄋᆞᆸ고ᄇᆡ
석어 아니 겨오시ᄂᆞᆫ 비절ᄅᆞᆫ의 실ᄌᆞᆫ ᄒᆞᆫ 미 아니 겨오셔 션
친은 다ᄋᆞᆼ 뭉 불라. 복ᄌᆞᆨ 쁘오시ᄂᆞᆫ 션ᄇᆡ 노윈 사셔라 ᄒᆞᆫ
쎄외ᄅᆞᆯ 횡 ᄒᆞ셔 니 일ᄉᆞᆫ 하. 친천이거. 쌘 별 ᄒᆞ기ᄅᆞᆯ오
고질ᄒᆞ셔 상ᄉᆞᆷ이 막히와 시나 션ᄇᆡ가 아ᄋᆞᆺᄌᆞᆯ 고ᄎᆡ오셔
미어셔 시 경ᄭᆡ ᄒᆞ오시던 일어 지ᄒᆞ 싱ᄭᆞᆨ 나셔 우리 복
멀겨오셔 ᄎᆞᆫ ᄎᆔ러 오삽시셔 이러나 겨오시니 뎌ᄆᆞ시리
너의 ᄉᆞ의 횡 ᄒᆞ셔 미 ᄒᆞᆺ오로 절ᄒᆞᆺ의 어거 미 어셔ᄀᆞᆺ
주가 ᄎᆡ ᄎᆡᆨ 거 아나. ᄉᆞᆷ연 ᄒᆞ셔 궁ᄃᆞᆼ이 이ᄅᆞᆯ니라. 나ᄒᆞᆯ히
상ᄋᆞᆯ 질어 ᄌᆞ오시다. 일ᄀᆞᆺ더니라. ᄒᆞᆫ회 ᄒᆞᆺᄀᆞᆯ회라.
ᄯᅢ예 더ᄒᆞᆫ 신셥이 얼ᄒᆞᆯ 현 ᄒᆞᆫ 장ᄉᆞᆨ을 ᄉᆞ칠 셰 션ᄃᆡ
왕겨오셔 네 ᄯᅢ 셰ᄉᆞᆨ 고치 바다. 시니 경ᄭᆡ ᄒᆞᆼ사 ᄒᆞᆫ

못ᄒᆞᆯ 일이로뎌 셜비 졉누ᄒᆞᆯ 노뢰 오며 아니시ᄂᆞᆫ 화연이라
별ᄒᆞ셔 삼년에 승탕ᄒᆞ오시ᄂᆞᆫ 궁즁에 ᄒᆞᆯ 곳치 리즁ᄒᆞ니
셩은에 망측ᄒᆞ나 갈치 곳 ᄒᆞᆯ 조ᄒᆞᆯ 힘쓰셔 변몬ᄒᆞ의 셕
이나 셕므ᄒᆞᆯ신 것 ᄒᆞ셔 듬으니 말ᄒᆞᆫ 셩ᄒᆞᆫ 글 나ᄀᆞ라 ᄒᆞ셔
고리 연이나 가시나 내 알 괴셔 ᄉᆞ 므보ᄆᆞ올 즁 치 아니ᄒᆞ리
ᄒᆞ셔 나가 마의 드ᄂᆞᆯ시기 ᄒᆞᆯ근념ᄒᆞ야 엄음ᄒᆞ셔 나 인의게
셕탁ᄒᆞ셔 미로졀ᄒᆞ시니 즁인이 감탄ᄒᆞ야 셩톄
ᄒᆞ시ᄂᆞᆫ 거동을 뵈오니 엇더 그 셕탁을 쳐분ᄒᆞ리 ᄒᆞ더라 심
옥얼 셜원 뎐의 뎐알ᄒᆞᆸ시ᄂᆞᆫ 십칠일의 즁 보의 뎐알
ᄒᆞ오니 ᄃᆞᆼ년의 대례ᄅᆞᆯ 승쳥ᄒᆞᄉᆞ 무거운 숙식을 이겨
실ᄎᆞ치 아니 믈셔 왕이 일곳ᄎᆞ오셔ᄂᆞᆫ 셜희 즁이 가열ᄒᆞ
오시며 무궁ᄒᆞᆯ셔 나지ᄂᆞᆫ 빗ᄎᆞᆯ은 일에 가셔 ᄒᆞᆸ더라 이
십일ᄀᆞ 칙어 일이오시니 셜비 다시 드리오ᄀᆞ 셔뭉

나려오셔 회의 색을 즐겨 ᄒᆞ오시던거시니 그러ᄒᆞᆫ 경은 ᄌᆞ
구직도 과거ᄒᆞ니 어버근 닷셩 불견ᄒᆞᆯ 더욱 현달ᄒᆞ니
어블며 당신의 가ᄅᆞ의는 ᄒᆞ올거시 어블니 과경을 신긔
히너겨 ᄒᆞᆼ션이오시히 그리 흠화ᄒᆞ오시던가 시브더라
창방후 ᄉᆞᆨ셰ᄒᆞ오시고 ᄉᆞ회와 글을 쓰오신재 이ᄇᆡ대 ᄒᆞ오시니 신
히기ᄉᆞ거ᄒᆞ오셔 깃ᄉᆞ올 뭇ᄌᆞ쳐 즐거온 일ᄀᆞ치 ᄒᆞ오시고 셜왕
겨오셔 작년계 회의 과거 못ᄒᆞ션거슬 애ᄃᆞᆯ와ᄒᆞ오샤
가회의 열ᄒᆞ오시고 인월 경셩모져오셔 실이 과거ᄒᆞ니
나라 회가 ᄇᆡᆨᄀᆞᆯ ᄒᆞ라 ᄒᆞ오셔 내 ᄉᆞᄒᆞᆼ어 날을 브ᄅᆞ오
셔 치하ᄒᆞ오시고 뎡셩왕후 겨오셔 ᄂᆞᆫ 당신 블쵸 이 동
상더디여 시니 뎐ᄂᆞᆫ을 ᄒᆞ오실거시 아니라 ᄂᆞᆷ은 울 원ᄒᆞᆫ
오시미 친쳑 ᄀᆞᆺ오시니 우리 지ᄎᆡ의 ᄀᆞ쳬 ᄒᆞᆯ 일을 실
히 ᄒᆞᆨ회 ᄒᆞ오시다가 내 뎐ᄒᆞ션 일을 진실노 깃브오

오시미 맛ᄌᆞ오시니 쳔만년을 보랴. 오실ᄃᆡ 평셩 ᄉᆞ어질
시기를 용망ᄒᆞ셔ᄂᆞᆫ 지졍이 어ᄂᆞ시ᄒᆞ가 샹히 ᄉᆞᆯ으리오마
ᄂᆞᆫ 셟ᄉᆞᆸ고 셟ᄉᆞᆸ다. 내 어ᄯᅥ ᄃᆞ려와 궁즁일을 보니 예질이여
원ᄒᆞᆸ시고 ᄒᆞᆫ셩이 과연 ᄒᆞ옵셔 인뉸 셩ᄒᆞ리 ᄒᆞᆯ 줄ᄌᆞᆸᄂᆞᆫ
ᄂᆞᆫ 옵ᄂᆞ다 셜ᄃᆡ왕리 ᄌᆞ리ᄇᆞ ᄉᆞ와 ᄒᆞᆸ셔ᄂᆞᆫ 밧ᄌᆞ리 셩ᄒᆞᆯ ᄂᆞᆫ 거ᄉᆞᆯ
ᄒᆞ오시던 거시오 뎡셩 완ᄒᆞ시리 ᄒᆞ시던 ᄒᆞ셩은 친히 ᄒᆞᆫ
셩ᄂᆞᆫ ᄒᆞᆸ시고 ᄌᆞ보리 ᄌᆞ그 밧ᄌᆞ리 더 ᄒᆞᄂᆡ 못ᄒᆞ셔 시시 션모의 ᄉᆞᆼ
ᄒᆞᆸ시ᄂᆞ다 그 일을 ᄂᆞᆸᄒᆞᆯ ᄌᆞᄌᆞᆸ ᄉᆞ오시ᄂᆞᆫ 과연 ᄐᆞᆨᄇᆞᆨ ᄒᆞᆷ ᄒᆞ란 ᄒᆞᆯ
일이오 ᄉᆞ친 쳔ᄀᆡ 옵셔 ᄂᆞᆫ 일ᄋᆞᆼ 긋더옥 ᄒᆞᆷ박 ᄒᆞ올 일이오
너 션ᄒᆡ 중겨오 셔 셩에 인ᄒᆡ ᄒᆞᆸ션 ᄃᆞᆼ 할 ᄉᆞᆨ 엄ᄒᆞ오나
ᄉᆞᆼ리 ᄌᆞ즐의ᄅᆞᆯ ᄉᆞ량 ᄒᆞᆸ셔 ᄂᆞᆯ ᄃᆞᆼ ᄀᆞᆯᄌᆞᆫ이 엄ᄒᆞ셔 죽뎌
외ᄃᆞᆯ ᄒᆞ비 ᄌᆞ보ᄆᆞᆺ ᄌᆞᆸ니ᄃᆞᆯ 아니 ᄒᆞ니 당션 ᄉᆞ탄이 뎌외
예 요굴 시니 알 넘 궁경 ᄒᆞᆸ셔 미 갑히 ᄌᆞ모로 뵈ᄒᆞᆫ

내 아ᄅᆞ시 ᄒᆞ옵쳐 언어 갓어 나 지극 ᄌᆞ셰 ᄒᆞᄋᆞᆸ시나 그ᄌᆞ치
오시믄 ᄉᆞ랑 ᄒᆞ오시믈 ᄯᆞ듸리 ᄇᆞ라 오시리 아ᄅᆞ시 ᄒᆞᄋᆞᆸ셔나 아ᄌᆞᆸ
이 ᄌᆞ텬 외, ᄒᆞᄋᆞᆸ셔 근ᄌᆞ셔, ᄒᆞᄋᆞᆸ셔 미 극진, ᄒᆞ오시던 거시 너헐
내 늣히 ᄒᆞ올 일이 아니 오시더니라. 날을 ᄉᆞ랑, ᄒᆞ오시ᄂᆞᆫ
듕대졉 ᄒᆞ오시미 듕ᄒᆞ다. 달ᄂᆞ미 업ᄉᆞ오시니 미양ᄌᆞᆸ
의 ᄎᆡ, ᄒᆞᆫ 봄어 과. ᄒᆞᆫ 대졉을 밧ᄌᆞ올ᄯᆡ ᄇᆞᆯ셔 ᄒᆞ미 심
ᄒᆞ려니와. 내 드려오셔 삼년을 밧ᄌᆞ오셔 ᄉᆞ치어 져오시니
우리 부모 미양 경계, ᄒᆞ샤 ᄒᆞᆫ결, ᄒᆞᆫ ᄉᆞ랑, ᄒᆞᄋᆞᆸ셔ᄂᆞᆫ 뎡
그ᄅᆞᆫ ᄃᆞᄅᆞᆯ 근내 ᄎᆞᆷ 시셔 세 년 우ᄌᆞ리 작언이 결ᄅᆞᆫ, ᄒᆞ던 명 ᄒᆞᆫ
야 드러오셔 보ᄂᆞᆫ 안, ᄒᆞᄋᆞᆸ셔 기ᄅᆞᆯ 감히 게 ■케 못, ᄒᆞ야 일원
뎡셩셩 보려 보ᄋᆞᆫ 일을 ᄋᆞ얼의 ᄒᆞᆫ 번식 ᄒᆞᄂᆞᆫ ᄉᆞ친 거ᄉᆞᆫ
삼일, ᄒᆞᆫ 번 혹 날어 ᄒᆞ더 뫼올 제ᄉᆞ 이ᄌᆞᆺ 너 그쳐 중금 법
이 지엄 ᄒᆞ야 장 즉이 녜 셕 우ᄅᆞᆫ 그ᄅᆞ거 아ᄅᆞ 한 번 갈히

참경을뵈옵가 죄ᄎᆞᆸ더니 구ᄒᆡ주월의 죽생에 나셔나신
미시셔월의 설ᄂᆞᆫ이 쳡을 ᄡᅡ셔 놓어 침실방의 그리
여희 ᄌᆞᆨ롤 희롱ᄒᆞᄂᆞᆫ 거동을 보시ᄂᆞᆫ 쳐오셔 거이 ᄒᆞᆫ당
죽라 ᄒᆞ오셔 그밤의 ᄌᆞ시 ᄇᆡᆨ농 일ᄉᆞᆨ의 용궁 뵈던 농
울구ᄒᆡ ᄇᆡᆨ상의 ᄇᆡ치오시니 구ᄒᆡ ᄒᆞᆫ죽롤 ᄒᆡ 아니니셔
칠ᄒᆡ오시니 몽ᄉᆡ 이시나 우연히 싱각ᄒᆞᆯ셜러 ᄎᆞ안ᄌᆞᆯ
울어 ᄌᆞᆯ이 경이라 기ᄉᆞ거 ᄒᆞᆯᄉᆡ 기노셩ᄒᆞ어 존곳소 오셔던
일이 이상ᄒᆞ온 ᄒᆡ번션이 비상ᄒᆞ더니 괴연 죽싱의 응ᄒᆞᆷ이
몽이 시련가 보러라 내 본쳐 셩산의ᄅᆞᆯ 나희 어쩨 어미ᄅᆞᆯ
ᄒᆞ야 ᄇᆡ러 못ᄒᆞ야 시ᄒᆡ 금상은 이임신 봄 일ᄂᆞᆫ가 ᄌᆞ이 ᄒᆞᆼ
셧ᄒᆞ다가 방경에 나시 이시나 상셔뎐에 기ᄉᆞ거 ᄒᆞᆯᄉᆡ 미
ᄒᆡ여ᄂᆞᆫ가 비겨러 경ᄉᆞᆯ오시ᄂᆞᆫ 우리 집 모옴과 ᄇᆡᆨ옥의
ᄒᆞᆫ 시ᄇᆡᆨ 경ᄎᆞᆨ이 어스러 ᄒᆞᆯᄉᆡ라 오셔 션세 노희 산 미 되ᄂᆞᆫ

즁이라 내 아ᄃᆡ 글을 마ᄌᆞ지ᄂᆞᆫ 날이 옴너아나 흉진을 ᄒᆞᆯ
시니 국ᄒᆡ 그 병이 되치 ᄒᆞ야 내 인이 거ᄂᆞ 어서 고셜희 즁이남
ᄒᆞ오셔 벌오시ᄂᆞᆫ 그 반 글을 쳔친이 거ᄉᆞ ᄒᆞᆸ셔 보오ᄋᆞᆸ
호리 ᄒᆞᆫ청이 ᄉᆞᆯ ᄒᆞᆸ셔나 열호가 장ᄒᆞᆸ셔나 쳔칙이 ᄇᆞᆺ
드러 ᄌᆞ호 ᄒᆞ오시ᄂᆞᆫ 도ᄌᆞ ᄒᆞᆯ 졍셩이 ᄉᆞᆯ어ᄉᆞ지ᄃᆡ 리ᄌᆞᆨ ᄒᆞ되
오쳔기 ᄂᆞᆺ조 오신 ᄒᆞ시 뫼앙 ᄒᆞᆯ 줄 니러우라 ᄒᆞᆸ셔 여러 가지
글을 니ᄅᆞᄉᆞ오셔 ᄃᆞᆯᄂᆞ니 오면셔 셩을 ᄃᆞᆯᄂᆞ니 ᄡᅥ 희ᄂᆞᆫ ᄒᆞ야
도리라 ᄒᆞᆯ셔 죽야의 ᄭᅴ오ᄇᆞᆫ 니ᄅᆞᄉᆞ오시셔 그ᄭᅴ니 인ᄉᆞ 아
회셔 주호 ᄒᆞᆸ셔 기ᄅᆞᆯ내가 ᄒᆞᆫ 셔친은 ᄇᆞᆺ 글셔 ᄡᅥ나 거
못ᄒᆞᆸ셔 너 뫼앙 니ᄅᆞᄉᆞ오셔 ᄃᆞ 글ᄂᆞ다 ᄉᆡᆼ각 거ᄇᆞᆺ ᄒᆞ되 ᄯᅢ
갈망ᄒᆞᆯ ᄉᆞ 무ᄅᆞᆫ 니ᄅᆞᄉᆞ오시며 ᄂᆞᄂᆞᆯ 존신ᄒᆞ오 가한 ᄉᆞᆯ
혈ᄉᆡᆨ와 ᄭᅦ 갈망의 지리 ᄀᆞᄌᆞᆼ 오ᄉᆡ가 어ᄉᆞᆸ오ᄉᆡ 시ᄉᆡ 상
해이 글을 ᄒᆞᆸ븍 ᄒᆞ야 니ᄅᆞᄉᆞᆸ러 너 어다 ᄒᆞᆫ 니런으

거시어이 : 시리오 셜희궁 져오셔 내 발상ᄒᆞᄂᆞᆫ 곳의
와 머므오셔 지속히 원ᄒᆞᆯ ᄒᆞᄋᆞ셔 미ᄎᆞ몯ᄒᆞ오시니 이런극
통ᄒᆞᆫ 즁의 ᄯᅩ 슉ᄉᆞ고 시식의ᄂᆞᆫ 어블 일어 너내 감동ᄒᆞ와 졀
여ᄒᆞᄋᆞ시 만류ᄒᆞ시리 이원뎡셩 낭쳥희 창조ᄒᆞᄋᆞᆸ신 ᄯᅳᆺ을
울 권면ᄒᆞ야 원ᄒᆞᆯ ᄒᆞ오시미 ᄀᆞ별ᄒᆞ셔 더니라 장ᄂᆞᆫ 즐
거ᄃᆡ 오셔ᄂᆞᆫ 본안울 울나가 지셔슉ᄒᆞ오시ᄂᆞᆫ 한슉ᄒᆞ셔
앙기오시ᄂᆞᆫ 인원뎡셩 낭셩ᄒᆞ시 져오셔 상언의 ᄭᅦ권을
울 놉히 오셔ᄂᆞᆫ 권 : ᄒᆞ오시ᄂᆞᆫ 울영이 져오시니 ᄒᆞᆸ신 ᄂᆞᆫ의 갑
초ᄒᆞ야 갑ᄉᆞᆫ 울 반ᄀᆞᆯ 붓ᄒᆞ나 ᄒᆞᄋᆞ셔 더니라 내가 ᄂᆞ즁을
망ᄒᆞ야 강잉ᄒᆞ야 세상의 머므러시나 진실노 싱시지
식이 업서ᄒᆞ니라 ᄒᆞ미 만련잉ᄒᆞ야 션대왕 겨오셔 ᄯᅩ
ᄒᆞᆫ 믈일 ᄎᆞᆺᄌᆞ오신 경셩왕후 겨오셔와 션희궁의셔
지셩상이라 ᄒᆞ야 의복지졀이나 다 비왕 ᄃᆞᆯ나 ᄎᆞ즁

호오시니 내 더옥 ᄯᅳᆯ나 ᄒᆞ치 못ᄒᆞᆫ 물의 즁ᄒᆞ더니라
셩친이 병ᄌᆞ이 월의 광쥐 누ᄉᆞ 숙골ᄒᆞ셔니 내 엄친
을 쳐ᄉᆞ 옷브술 이술을 더옥 술허 ᄒᆞᆫ대 ᄇᆡᆨ 인을 ᄭᅦ시ᄂᆞᆫ
갓셔니 조모을 ᄯᅢᆯ 미ᄎᆞ 모ᄀᆞ 겨셔다가 더옥 셜웨ᄒᆞᄂᆞᆫ 심
믈의 브졀ᄋᆞ치 ᄎᆞᆯ노 ᄒᆞ심은 졈ᄃᆞ 더ᄒᆞ니 내 심ᄒᆡ지 념
이 홀연이 (히어셔스린) ᄒᆞᆯ리 병ᄌᆞ올ᄃᆞ 월의 횡셜을 나ᄭᅦ리게 ᄒᆞ신
쉬 마라 셧비 ᄇᆡ 그리옵셔던 일을 싱각ᄒᆞ니 ᄀᆡ롱이 져심을
내 잉ᄇᆡᆨ의 셜호ᄒᆞᆫ 블조ᄎᆞ라 셩ᄌᆞ니 못ᄒᆞ야 ᄒᆡᆼ ᄉᆞᆯ우리
ᄒᆞ니 상ᄂᆡ월을 넘ᄒᆞ야 내 ᄀᆞ은이 늠쳘ᄒᆞ니 셜 대왕
겨오셔 옹녀ᄒᆞ옵셔 ᄀᆞ셔ᄒᆞ옵시ᄂᆞᆫ 셩친긔 ᄀᆞ보ᄒᆞᆸ조ᄎᆞ라
믈흐라 ᄒᆞ옵셔 ᄇᆡᆨ쉬 믈ᄲᅥ 희만을ᄂᆞ 손어ᄒᆞ니 셜미
룩보ᄒᆞ올 셜움이 ᄀᆞ믈ᄒᆞ야 희산ᄒᆞ올ᄃᆡ 으셔 ᄒᆡ혼
상ᄒᆞ셔 러나ᄉᆞ ᄒᆞ니 ᄀᆞ은이 늠ᄃᆞ ᄒᆞ니 셩친이 과ᄒᆞᆯ

ᄒᆞᄂᆞᆯ ᄌᆞ셥ᄒᆞ시니 ᄂᆡ 스ᄉᆞᆯ 부ᄒᆞᆫ ᄀᆞ로 ᄂᆡ시디 ᄒᆞ야ᄂᆞᆫ
음을 진졍ᄒᆞ여스더니 그로ᄒᆞᆨ의 션친이 평안감ᄉᆞᄅᆞᆯ
ᄒᆞ시니 그ᄯᅵ 나흘 십셰 ᄎᆞ오ᄅᆞᆨ ᄒᆞᆸ뢰오ᄉᆞ 청이 결박ᄒᆞᆫ
나 왕명이시니 원나가 졍오시더니 ᄀᆞᆨ회도즁의 ᄌᆞᆨ진
을 ᄒᆞ오셔ᄂᆞ니 션친이 ᄆᆡ 인미ᄒᆡ이오ᄂᆞᆯ ᄌᆞ셥ᄒᆞ오셔 ᄃᆞᆯᄂᆞ
먹ᄉᆞ 관의ᄯᅵ 셔이 ᄉᆞ식을 듯ᄌᆞ오시ᄂᆞᆫ 즉 이의 당ᄒᆞᆫ
옥져 셔울 본안을 듯ᄌᆞ오시ᄂᆞᆫ ᄌᆞ셔ᄂᆞᆫ ᄒᆞᄋᆞᆸ셔 숙병이 회
여져보셔 더라 궁궐내 ᄉᆞᆺ싯ᄃᆡ 온 군신을 어ᄉᆞ지다 ᄒᆡᆼ용
ᄒᆞᆸ뢰오나 황이 셩ᄌᆞ로 ᄒᆞ오시ᄂᆞᆫ ᄉᆞ이 초출ᄌᆡᆼᄒᆞ오시니
즁사의 막ᄃᆡ 지경이오시니 션친이 외오셔 경ᄎᆞᆨᄒᆞᆫ
오시미 무즁ᄒᆞ오시믈 어ᄉᆞ거나 다ᄀᆞᆺᄒᆞᆸ뢰오 즉 ᄒᆞᄃᆡ
오션지 ᄇᆡᆨ일어 못ᄒᆞᆸ셔 뎡 쳥왕ᄒᆞ ᄌᆞ 져오셔 ᄇᆡᆫ칙
ᄒᆞᆸ셔니 그쳡의의 회ᄒᆞ오시ᄆᆞᆯ 쳥회 거ᄅᆞᆨᄒᆞᆸ셔니

ᄒᆞᆫ줄ᄭᆞᄉᆞ오시니난쳐ᄒᆞᆫ쉐라도내게ᄇᆞ지ᄉᆞ가갑
ᄒᆞ오시미어ᄉᆞ나내셩은ᄂᆞᆯ갓듯ᄒᆞᄂᆞᆫ듕이나블안ᄒᆞᆯ
ᄒᆞ미만ᄒᆞ너그셰ᄎᆔ엇으로엇ᄉᆞ로ᄂᆞᆫ듯ᄉᆞ셔고ᄒᆞ싱의ᄂᆞ
련ᄉᆞ더니션친셔용지ᄯᅧᆼ이져오신ᄒᆞ우날을ᄉᆞᆨ블ᄋᆞ오셔
ᄉᆞ의여쳔ᄒᆞ오시니쳔만ᄉᆞ가블안가온대나지극ᄒᆞ
오신셩은이야ᄆᆡ신블ᄉᆞᆯᄒᆞ온ᄂᆞᆫ어ᄂᆞᆺ디리가셔ᄉᆞ오리오ᄃᆡ
경녀이무궁ᄒᆞ니ᄯᅩ건을다ᄊᆞ며ᄒᆞ나셩ᄉᆞᄒᆞ올말이
아니ᄃᆡ못ᄒᆞ고ᄅᆞᆨᄒᆞ노라ᄀᆞ을이블힝ᄒᆞ야뎡셩왕
ᄒᆞ우승하ᄒᆞ오시ᄃᆡ이ᄂᆞᆫᄀᆞ의인원셩뫼ᄉᆞᄃᆡ칙ᄒᆞ오
시나냥셩모고내ᄉᆞ에ᄇᆞᆺᄉᆞ오미ᄀᆞ이어ᄃᆡ가일ᄂᆞ의여
희오니그ᄃᆡ동과의다어ᄉᆞ미어ᄃᆡ셔ᄒᆞ리오나모ᄃᆡ이
뎡셩왕ᄋᆞ우빈뎐가ᄉᆞ가이셔미셩을다ᄒᆞ오려ᄒᆞ기오
시쳐젼과ᄯᅩ셕ᄀᆞᄋᆞᆸ의오ᄉᆞ의내ᄒᆞ올ᄂᆞᆫᄯᅢᄒᆞ온일

이어셔고이왼샹ᄒᆞ우 낭ᄌᆞ랑ᄒᆞ오시던왼혜ᄂᆞᆫ가셔ᄉᆞ올감
어셔ᄉᆞ나 환혜ᄂᆞᆫ모의듕ᄒᆞ오시나 셩셩모이나 거오
시고허우록 ᄒᆡ 의 듕편셩경이 ᄉᆞ오언뎌 ᄒᆞ리오셔던대
왕져오셔시 랑의 ᄉᆞ유 이ᄒᆞ의 개ᄅᆞᆯ벗ᄉᆞ오시다 이ᄂᆞᆼ
오시어 뫼오와 쵸박ᄒᆞ기와 승하ᄒᆞ오신ᄒᆞ우 션대왕을
우러ᄉᆞ와 망극ᄒᆞ고 확연의 듕ᄒᆞ미어디비 ᄒᆞ셔쳐
져왕ᄂᆞᆫ난쳐지ᄉᆞᆫ셔 낙셔 어셔ᄉᆞ나 낭셩모ᄅᆞᆫᄅᆞᆫ규모
ᄒᆞ와 셜운눈물이 어ᄂᆞ세 이나나시 긔오ᄂᆞᆼ구ᄒᆞᆯ샬ᄅᆞᆫ
울게 유ᄀᆡᄒᆞ와 믿ᄉᆞᆸ고고묘년의가 ᄒᆡ ᄅᆞᆫ힝ᄒᆞ오시고셔
일이 경힝ᄒᆞᆫ경우구ᄒᆞ니 어ᄃᆡᄒᆞᆫ고근셤이 무궁ᄒᆞ
뎌 션혜궁거오셔 안셕 을 쎤 치 아 니 ᄒᆞ오시고내가근
심ᄒᆞᆫ고념녀 ᄒᆞᄂᆞᆫ셔ᄉᆞᆯ보오시고셩셩와ᄒᆞ우 아니 겨오
신ᄒᆞᆫ이 며 ᄒᆡ ᄅᆞᆫ힝ᄒᆞ와 근의 ᄅᆞᆫ걍ᄒᆞ오오셔ᄂᆞᆫ거

시다 ᄒᆡᆼᄒᆞᆫ일이라ᄒᆞ오시고ᄃᆡ면이셔ᄂᆞ뇨의셔ᄂᆞᆫ오
시나 유식이 셩응로하ᄭᅴ ᄒᆞ오시고가ᄭᅴ글ᄌᆞᆯᄒᆞ오시
기ᄅᆞᆯ몸소ᄒᆞ오셔 아니 졍셩되오시미 업ᄉᆞ오시고궁
듕모양이 될일을진심으로깃거ᄒᆞ오시니 셩궁을
염ᄒᆞ오신덕 ᄒᆡᆼ이 거룩ᄒᆞ오시니라 ᄉᆞ셩군이 졈ᄋᆞ
병환이 겨오시되 ᄯᅢ 혼ᄒᆞ시ᄂᆞᆫ일을ᄎᆞᆷ고어ᄯᅥᄒᆞ야
아니ᄒᆞ오시고가ᄭᅴ ᄒᆞ우 ᄃᆞᆫ편ᄒᆞ오실ᄯᅢ 졀이 ᄎᆞᆷ이
나 궁금치 못ᄒᆞ오실넌가 각별이 ᄒᆡᆼ여의 ᄌᆞ시ᄉᆞᆷᄒᆞ와
공경ᄒᆞ오시니 ᄃᆡ 편셩 셩효ᄂᆞᆫ쳔 ᄋᆡ나오시던ᄉᆞ롬이
이런일의 아올일아니 낫가ᄭᅴ ᄒᆞ우 냥젼의 문안ᄒᆞ
오셔 근무ᄂᆞᆫ아ᄋᆞᆯ평안이 ᄃᆡᆨ의 오시면 ᄉᆞᆺ로몸을ᄂᆞ구ᄂᆞᆫ
ᄅᆡ 깃거ᄒᆞ오시던거시니 이 모ᄃᆡᄂᆞᆫ궁즁이 다 아ᄂᆞᆫ 일ᄋᆡ
나 지극ᄒᆞᆫ 셩ᄒᆡᆼ은 하ᄂᆞᆯ이 아ᄭᅴ ᄒᆞ ᄆᆞᄉᆞᆷ고셩ᄒᆞ시되

환이러ᄒᆞᆯ션쳐ᄒᆞ쟉ᄒᆞ오신일이져오시던거시나벅
인울ᄒᆞ여곰쳐변ᄒᆞ려ᄒᆞ견회러굴어이일치아니ᄒᆞᆫ
여시러오신ᄉᆞ년삼월의버련이입학ᄒᆞ시ᄂᆞ그글의쎠
괴이글경희궁의셔ᄒᆞ시니그괴이글보려못ᄒᆞ야셔오
시니내출ᄒᆞ올ᄃᆡ가보니못ᄒᆞ야못가나ᄂᆞᆫ보지텽이결연
ᄒᆞ옵ᄂᆞ니ᄂᆞᆫ쇠나ᄂᆞᆫᄃᆡᄒᆞ야ᄎᆞᆷ셤이무궁ᄒᆞ나쇠월을어ᄃᆞ니보
면줄을아니못ᄒᆞ나궁궐쳐변의어려옴을어ᄃᆞ니거니륙
ᄒᆞ되오신ᄉᆞ겨울의쇠ᄒᆞ빈각퇴울ᄒᆞ나궁쳐이쳥통
ᄌᆞ손울깨가뎌분이오셨ᄂᆞᆫ친이길ᄂᆞᆫ셩웅때북인ᄉᆞ연의
가서나쇠ᄀᆞ의친ᄒᆞ시불범ᄒᆞ던거라ᄌᆞ궁뎐울오셔의
보시고비상ᄒᆞ올ᄌᆞ질이라ᄒᆞ신말ᄉᆞᆷ울드러ᄂᆞᆫ덕서션ᄒᆞᆫ형에ᄎᆞ
현왕ᄌᆞ와인ᄉᆞ왕비ᄭᅦ고ᄉᆞᆫ울인ᄌᆞᆼᄒᆞ야ᄒᆞ더지분
이니궁쳐션의ᄒᆞ셔쳔ᄌᆞ홍울의분울ᄒᆞ셔되ᄂᆞᆫᄎᆞ졀을너러

못ᄒᆞ엿더니 셜ᄌᆞᆫ이 기ᄇᆞᆼ시믁의 너갓ᄎᆞ ᄒᆞᆯ거ᄉᆞᆯ 붓시근ᄎᆞ
이기ᄌᆞ오셔 만히 ᄒᆞᄌᆞᆸ셔 ᄒᆞ오셔 ᄀᆞ지셔의 령ᄒᆞᄋᆞᆸ셔 ᄆᆡ젼ᄎᆞᆯ
일ᄋᆞᄉᆞ너 그면ᄋᆞ리 귀ᄒᆞᆫ 텩뫼 ᄒᆞᄋᆞᆸ셔 미 지ᄌᆞ ᄒᆞᄋᆞᆸ셔너 ᄂᆡ뎐
이ᄃᆞ러와 ᄌᆞ극별 ᄒᆞᆫᄌᆞ리 ᄀᆞᆯ 밧ᄌᆞ와 우ᄌᆞ시나의 앙ᄒᆞ온 뎡
셩이 ᄌᆞ별ᄒᆞ다 가 ᄒᆞᆼ렬ᄃᆡ ᄒᆞᆼ을 덧업시 ᄆᆞᆫ나시니 ᄐᆞᆼ
년이ᄌᆞᆷ뎌의 ᄒᆞᆼ이 심ᄒᆞ온ᄃᆞᆺ ᄇᆞ아 쉬왼갈 ᄉᆞᆯᄉᆞᆨ 심ᄒᆞ야
말ᄉᆞᆷ이 미ᄎᆞᆫ 번ᄌᆞᆨ금이 라도 눈믈 ᄂᆞ리오디 아니 실ᄯᆡ가
업ᄉᆞᆫ너 ᄌᆞ의 번ᄌᆞ오 미 긔ᄒᆞᆫ신 연ᄀᆞ러와 ᄂᆡ뎐이 젼가올
더러ᄀᆞᆺ 즉시 ᄌᆞ 여ᄋᆞᆯ ᄒᆞ시고 미 ᄌᆞ최 ᄂᆡ뎐이 ᄎᆞᆯ셩ᄉᆞᆨ 굴
ᄒᆞ시너 증셩이 ᄌᆞᆨ ᄎᆞᆯ 굴 ᄒᆞ나 삼가ᄋᆞ 지겻 ᄒᆞᄋᆞ 녀ᄒᆞᆫ
야 큰 병환을 리더 시너 그ᄆᆡ오ᄆᆡ ᄲᅳᆨ이 기 엇더 ᄒᆞ니 오ᄆᆡ 뎐셩
ᄌᆞᆨ ᄂᆞᆫ 신ᄉᆞ 지왼갈 회간의 ᄒᆞᆫ셔 남왼갈 ᄉᆞᆫ간의 ᄎᆞ졀 ᄌᆞᆼ을
너 일ᄒᆞ의 ᄂᆞᆫ 깃 브ᄃᆡ ᄒᆞᆫ 믈 ᄇᆡ 나ᄐᆡ 경 신ᄒᆞ 션ᄌᆞ

ᄒᆞ야 낭리의 일아나 나셰 ᄒᆞ쇠 ᄒᆞ시니 구용 며 ᄒᆞ오
시미 슈발이 희ᄋᆞ시고 나화 근심을 ᄀᆞᆨ더가 셩ᄒᆞᄋᆞ셰 관
격증이 되야 발ᄒᆞᄋᆞ시니 부메리ᄒᆞ면 눈물이 흐르ᄂᆞᆫ하
날을 우러ᄂᆞ 부ᄌᆞ도 봉화 ᄒᆞᄋᆞ시기라 셰 조보 ᄒᆞᄒᆞ기로 츅슈
ᄒᆞ시며 불고신 평셩 ᄋᆞ샹 현이 도츅 ᄒᆞ시고 신명이 져방ᄒᆞ
일ᄒᆞ나 원 친ᄒᆞ는 ᄉᆞ졍을 라히 ᄒᆞ되 오 셔형이 셔친 되흘
ᄉᆞ돌와 근심 ᄒᆞ시고 셜워 ᄒᆞ시미 ᄉᆞ못 ᄒᆞ시더니라 셔형이
경ᄋᆞ 연의 ᄎᆞ라 ᄒᆞ시니 셰군이 봉ᄒᆞ시고 지리 샹합다 ᄒᆞᆯ
시고 의리 ᄒᆞᄋᆞ시더니 신ᄉᆞ년의 ᄯᅢ라 ᄒᆞ시고 강셔원 관원
을 셰손을 ᄌᆞ로 되 신ᄂᆞ로 ᄒᆞᆨ 분의 진취 ᄒᆞ시미 만히 ᄀᆞᆼ이
ᄭᅦ시니라 강셔원의 입 ᄀᆞᆨ ᄒᆞ 신셔의 ᄌᆞ로 뵈ᄋᆞᆸ고 남ᄯᅢ 나라
근심을 ᄒᆞ야 합ᄒᆞ면 ᄒᆞ야 모로 ᄀᆞ셰 ᄒᆞ더니라 션친이 신ᄌᆞ샹
일의 리비 ᄒᆞ시니 그ᄉᆡ ᄯᅢ 신이 업고 샹회 겨ᄋᆞ 신ᄃᆡ라 만엽

날울못볼ᄯᆞᄅᆞᆷ의 셜친이 초ᄉᆞᆯ기ᄀᆞ의 어ᄆᆞ니 ᄃᆞᆯ만ᄒᆞ니 셔ᄌᆞᆼ
골ᄎᆞᆯ의 ᄒᆞ여나 더욱 아모리 ᄒᆞᆯ반ᄃᆞ시 몰ᄅᆞᆯ 더니 신샹
일의 뎐니 ᄒᆞᆫ번ᄲᅧ ᄒᆞ고 일월이 회석ᄒᆞᆫ 변을 막나
니 ᄎᆞᆷ아 어ᄃᆡ 살ᄆᆞ음이 ᄀᆞ시리오 칼을드러 ᄲᅧᆼ울 결ᄒᆞᆫ
텨ᄒᆞ려니 방인의 이ᄅᆞᆯ 믈인ᄒᆞ야 ᄎᆞᆷ지 못ᄒᆞ고 ᄃᆞ라션
각ᄒᆞ니 시셔일세 쉬ᄎᆞᆷ의게 쳡ᄒᆞᆫ다 ᄒᆞᆷ울 세치더ᄉᆞᆼ
고내엇기나 셩쾌ᄒᆞᆯ길히 어서ᄉᆞᆯ벌안니라 셜ᄉᆞᆫ의병
환ᄀᆞᆼ울리나 못ᄒᆞ오신 ᄒᆞᄅᆞᆯ 내일ᄉᆞ가 이셔 셩을 가셔
그쉬 ᄎᆞᆷ울 보ᄒᆞᆫ ᄒᆞᄂᆞᆫ쳐 ᄒᆞ야 스ᄉᆞᆯ 결ᄒᆞᆯ의 ᄉᆞᄅᆞᆯ 그치나
내왕졍의 질셔과 모디ᄒᆞᆫ들 보ᄀᆞᆺ긔니 노ᄒᆞ야 미ᄉᆞ지
쳔의어이 너ᄎᆞ리오 쉬ᄎᆞᆼ이 인ᄒᆞᆫ ᄒᆞ야 능히 셜외ᄒᆞᆫ줄
울알셔 쳥연쳥ᄃᆡ의 셜우믈이 잇슬 것ᄉᆞᆯ이ᄉᆞ고 몰ᄂᆞᆫ
것ᄉᆞᆯ이 싱ᄂᆞ 그졍경이야 ᄎᆞᆷ아 어ᄃᆡ 니ᄅᆞ리오 셜친

이일어졉ᄒᆞ여 ᄒᆞᆯ일을 업ᄉᆞᆫ후 도라오시니 그부ᄋᆞᆼᄒᆞᆯ
거흉이야 ᄎᆞᆷ뇌 당ᄒᆞ리오 그날혼도ᄒᆞ셔 께우쳐시니 당
신이 엇지 셩쳬의 ᄎᆞᆺ이 계시리오 말노ᄃᆞᆺᄒᆞ여도 쳬손을
북오ᄒᆞᆯ브날거시 울ᄒᆞᆫ젼녀ᄒᆞ나 ᄒᆞᆯ일 ᄒᆞ이 셜웁믈 ᄎᆞᆷ
그믈어나 더못ᄒᆞ신더라 ᄒᆞᆯ내가 쳬손두리ᄅᆞ 스텬 ᄀᆞ라쥬
나그망측ᄒᆞᆫ 경상에야 너ᄒᆞᆯ거시 이시니오 상셔리 살길
셜친거 너ᄒᆞᆯ오셔 쳬손을 보호ᄒᆞ라 ᄒᆞ시니 내 망측ᄒᆞ리
즁에 나 형용을 감ᄅᆞᆺᄒᆞᆯ나 쳬존을 어ᄒᆞᆯ 보젼ᄒᆞᆯ 신셩
운을 갑ᄉᆞᆸ고 보젼ᄒᆞ여 셰친의 셜워ᄒᆞ신거ᄉᆞᆯ 나 어찰ᄒᆞᆯ
얏글이 되라 경쳬 ᄒᆞᆫ모쳐 심의ᄒᆞ야 면을 보젼ᄒᆞᆫ
현다 갈의 그어엽ᄉᆞᆯ 셜움이 이야 날곳ᄒᆞᆫ 살음이 어딘이셔
리오 인샹쳔의 셔희 즁이 오ᄂᆞ시니 궁듬 엇시 원통ᄒᆞᆯ
신 셜움이 ᄎᆞᆷ어스러 ᄒᆞᆯ퇴오 내 관면 살미 어엽ᄉᆞ시ᄂᆞᆫ고.

누친이 외쳑 올ᄀᆡ희 ᄒᆞ엿ᄉᆞ나 ᄌᆞ쥴 회 대릉을 쳔ᄌᆞᆯ 머ᄀᆡ ᄒᆞ
와 우려〻 원ᄅᆞᆯ ᄒᆞ와 쇠 ᄉᆞᆫ의 흉ᄀᆞᆯ 밧ᄌᆞ오시ᄂᆞᆫ 봄을 설
리 오쳐 구월의 부ᄌᆞ골 ᄭᅵ치지 말오 ᄉᆞᆯ쳐 ᄒᆞ연ᄂᆞ냐 장에
골ᄂᆞ대 오시고 올ᄂᆞ가 오시ᄂᆞ 내 쳔ᄅᆞᆯ〻 ᄒᆞᆯ 자최 더욱 어셔
ᄒᆞ나 어ᄉᆞ디 ᄉᆞᆯ ᄆᆞ음이〻 시리오 말ᄉᆞᆷ 시ᄅᆞ거시 쇠 ᄉᆞᆫ을 원 ᄒᆞ올
이나 아모조록 ᄒᆞᆨ 업ᄉᆞᆯ 셩츅 ᄒᆞ야 삭ᄒᆞ기 골ᄂᆞᆫ ᄌᆞ죽 ᄉᆞᆺ
ᄒᆞᆫ 팔월의 회ᄀᆞᆫ 후 ᄎᆔ 연ᄋᆞᆯ 션대왕긔 뵈ᄋᆞ니 우러
러 셜운 회포가 업ᄉᆞ더 ᄒᆞᆯ리 말ᄉᆞᆷ 감히 비셕을 못 ᄒᆞᆫ ᄆᆞ
저 봉ᄌᆞᆯ ᄒᆞ미 셩은이 올ᄉᆞ이다 ᄒᆞ나 션왕이 지셔 ᄉᆞᆨᄒᆞ
오쳐 우으시ᄂᆞᆫ 네 이리 ᄯᅢ의 골잡을 ᄌᆞᆯ을 신ᄭᅡ다 ᄒᆞ니
ᄒᆞᄂᆞᆫ 내 너 골 설ᄆᆞ음이 어렵셔 더니 너 내 ᄆᆞ음 쇠기 ᄒᆞ니
아흡 답다 ᄒᆞ여ᄉᆞ나 이ᄒᆞ 고ᄂᆞᆫ ᄭᅳᆺᄂᆞᆫ 오나 내 십ᄃᆞᆼ이 더욱
막히고 명원ᄒᆞ미 갈ᄎᆞ록 심ᄒᆞ여라 그날 쇠 ᄉᆞᆫ을 졍

희궁울 ᄌᆞ뢰가 우셔 ᄌᆞᆯ 칭ᄋᆞ시기ᄅᆞᆯ ᄇᆞ라 ᄋᆞᆸᄂᆞ이다
ᄒᆞ시 베혀샤 젼ᄃᆞᆯ가 사셕나 ᄒᆞ오시기ᄂᆞᆫ ᄆᆞᄋᆞᆷ을ᄃᆞ리왼셔
나 셤ᄇᆞᆫ ᄒᆞ기ᄅᆞᆯ 졀ᄒᆞᆫ 일이 오우ᄒᆞᆯ ᄭᅬ와 셰 ᄒᆞ옵거시ᄂᆞᆫ 일
이오니이다 ᄒᆞ야 울어 ᄆᆞ리나 보셔 ᄒᆡ나 ᄂᆞᆫ 쳔ᄋᆞ 오ᄌᆞᆨ ᄒᆞ리
오 어미 ᄀᆞᆯᄅᆞᆫ 츰ᄂᆞ어 ᄒᆡ나 나 보ᄉᆞ ᄒᆞ야 울어 갈ᄒᆡ 우ᄅᆞᆫ 갓ᄂᆞ
내ᄆᆞ옴이 ᄲᅢ히 ᄌᆞᆺ ᄒᆞ나 츰 보ᄂᆞᆫ 복디 ᄠᅳᆺ 더나 ᄃᆡ 형운이
가지 ᄌᆞᆨ지 ᄌᆞᆼ ᄒᆞᆯ쳐 ᄒᆡᄉᆞ 슈탕 ᄒᆞ오시ᄆᆡ 지ᄎᆞᆨ ᄒᆞᄋᆞᆸ시고 셜
희궁겨우셔 ᄒᆡᄉᆞᆫ 부ᄒᆞ ᄒᆞ오시ᄂᆞᆫ 졍ᄉᆞ 아ᄅᆞ시ᄂᆞᆫ 졍을 ᄋᆞᆸ기
오시ᄂᆞᆫ 셜ᄋᆞ신 ᄆᆞᄋᆞᆷ을 ᄇᆞᆺ다 침식 ᄭᅬ와 시리 ᄲᅢᆷ쎄의 방
심치 못 ᄒᆞ셔 ᄒᆞᆫ방의 머ᄆᆞ우셔 ᄌᆞᆷ셩 ᄒᆞ오 ᄒᆞ시나 ᄇᆞᄅᆞᆫ
ᄒᆞ야 새벽의 ᄒᆡ야 셜디지 아냐 ᄀᆞᆯ을 넘으ᄃᆡ 나ᄀᆞ시니 칠
십지년 ᄌᆞ친이 ᄌᆞ와ᄀᆞ지 일ᄎᆞᆨ ᄉᆞᄒᆡ ᄌᆞ반을 셔ᄅᆡ ᄒᆞ시게
ᄒᆞ야 나가게 ᄒᆞ시니 ᄒᆡᄉᆞᆫ어 일ᄎᆞᆨ ᄒᆞᆫ음식을 먹거 못

ᄒᆞ시던 조모져오셔 ᄒᆡ 지셩을 ᄒᆞ오셔나 강잉ᄒᆞ여 지셔
더라 ᄒᆞ나 션희궁 쳥ᄉᆞᄅᆞᆯ 우러러 ᄉᆡᆼ각ᄒᆞ니 ᄆᆞᆺ ᄒᆞ되 ᄒᆞᆫ다
대뎐이ᄉᆞ오셔 브터 굴울ᄌᆞ희 ᄒᆞ시ᄂᆞᆫ 빈궁져 아니ᄒᆞ나 ᄉᆞ혀
ᄒᆞᆫ강연ᄒᆞ기 구롤게 어굴디 아니ᄒᆞ셔나 가졀의 허나
더라나 아기디 굴아셔 ᄒᆞᆯ하 녀셔ᄅᆞᆯ 아나 ᄒᆞ여 시ᄉᆞ내
못너쳐 ᄒᆞ기와 당신ᄂᆞᆫ 보구리시ᄂᆞᆫ 쳥셔 실ᄒᆞ야 션래방
뫼와 더대고 밤ᄃᆞᆯ 게야 진ᄂᆞᆫ 새벽의 쳔이ᄂᆞᆫ 봉셔ᄅᆞᆯ 뫼
일ᄉᆞᆨ이 ᄉᆞᆺ다 고셔 연 ᄒᆞᆯᄉᆞ이의 내 회갑을 셜워ᄒᆞ야 ᄆᆞᄋᆞᆷ
을 노ᄒᆞ시니 아기ᄂᆞᆫ 어미 못닛ᄂᆞᆫ 인졍이 그러ᄒᆞ려니와 삼
년을 ᄉᆡᆼ각ᄒᆞ야 다니ᄃᆞ니 노ᄅᆞ며 일허 그러ᄒᆞ시던 줄이 십
여ᄉᆡ 흉년의 어ᄉᆞ리 그리 능히 ᄒᆞ시던 ᄉᆞ쳘 ᄒᆞ시던가 시브
러라 ᄇᆡ가 경녁ᄒᆞᆯ 병이 ᄉᆞᆨ 나 삼년 안희 병이 나다
아나 ᄒᆞ니 외오셔의 관가 논증ᄒᆞ야 약ᄒᆞ야 ᄉᆡᆼ각기

쳬 아니 겨오시니 쳔왕의 대졉ᄒᆞ셔 비나 션친의 녀ᄆᆞᆫ우
려오신 졍셩이야 녀ᄆᆞᆺ 뎡신의 ᄂᆞᆯ렵셔 찬ᄒᆞᆯ 공이야 ᄇᆞᆺ그러오
미 계시리오 너ᄆᆞᆫ 알ᄋᆞᆯ시기 ᄀᆞᆯᄋᆞ셔 ᄀᆞᆺ치 ᄒᆞ셔나 당신 졍셕
과 ᄉᆞ회 ᄆᆞᆯ어나 셔ᄆᆞᆺ지 아닌 ᄌᆞᆯ을 보ᄅᆞᆯ지 아니시리 ᄇᆞᆷ을
나라히 ᄇᆞᆯ려ᄒᆞ시ᄂᆞᆫ 셩형이 ᄉᆞᆯ션인을 ᄌᆞ손 신ᄉᆞᆺ이 너ᄀᆞ
아 오아가면 ᄒᆞ야 과거 ᄒᆞ니 이 ᄉᆞᆽ치 공명을 ᄌᆞᆯ셔 ᄒᆞᆯ 일어
아니 ᄌᆞᆷ셰 나라 ᄒᆞᆯ 원ᄒᆞ와 쳐나지 못ᄒᆞᆯ 산ᄒᆞᆫ인 ᄌᆞᆯ 노아다
폐과 ᄀᆞᆯ못 ᄒᆞ며 시니 일ᄂᆞᆫ 드ᄅᆡ여 ᄇᆞᆨ관의 셩ᄒᆞ비 ᄌᆞᆷ물의
쳐리 미 죄 ᄂᆞᆫ 디라 ᄅᆡ 신의 ᄉᆡ리 ᄒᆞᆫ 사ᄅᆞᆷ의 쳐리 미 뎌셔
텨셔 ᄒᆞ니 가ᄉᆞᆷ의 실 엇지 ᄒᆞᆯ 일어야 나여 거다 리ᄅᆞᆯ ᄒᆞᆫ
리오 ᄉᆞᆯ 노리 보대 ᄒᆞᆯ 동 오 ᄒᆞᆼᄌᆞ구 죄ᄉᆞ 셩ᄇᆡ ᄀᆞᆯᄇᆞᆨ의 예 ᄌᆞᆫ
리ᄒᆞ나 벼ᄇᆡ이 싱ᄉᆞ ᄒᆞ나 션친이 ᄌᆞᆨ은 ᄌᆞ듕 ᄒᆞ시ᄂᆞᆫ 공번
되신 ᄆᆞ음을 ᄌᆞᄌᆞ 그죄 여 보러 ᄀᆞᆯ 치오 시ᄂᆞᆫ 줄 봉셔

일가지친과고괴ᄒᆞᆫ 벗시 번ᄒᆞᆫ 신의 어미 나ᄌᆞᆯ로 오 ᄂᆞᆫ 오로
견ᄒᆞ고지ᄒᆞ려ᄒᆞ나 뇌엽은 갑혀 ᄒᆡ너기ᄅᆞᆯ 빈화ᄒᆞ야 ᄌᆞ집
회과자 번ᄒᆞ미 업ᄉᆞᆫ 배 ᄎᆞᄒᆞᆯ련 우러오미 갑히 못ᄒᆞ여ᄃᆞ려
온나 말ᄉᆞᆷ은 거ᄎᆞᆯ 성젹ᄒᆞ미 업서셔 공경ᄒᆞᆯ션 ᄀᆞᆫ련 날리
쳡ᄒᆞᆫ 십년을 지촉ᄒᆞ셔나 셤개만ᄒᆞᆫ ᄌᆞ이 업ᄉᆞ나 빅년의
이 회과ᄅᆞᆯ 번ᄒᆞ미 업ᄉᆞᆯ 줄노 알ᄋᆞ오리 못너ᄂᆞᆫ 공편ᄒᆞᆫ
어진 ᄆᆞ음을 다ᄒᆞ염이 어셔너 ᄒᆡᆼᄒᆞ가 주허분 아름이니 근
혹ᄂᆞᆫ 몸쳐 된 실ᄅᆞᆷ과 ᄀᆞᆯ치근 지촉던 후의 ᄀᆞᆯ 도로 허쳐
리 미쳣ᄂᆞᆫ 셩심이라 몸이 쳔은 실친을 회복ᄒᆞ나 겸ᄒᆞ야 혜ᄋᆞ
의 친이 쳐 ᄉᆡᆼ싱을 견ᄒᆞᆯ쳐 퇴ᄃᆞᆼᄒᆞ오시ᄂᆞᆫ 셩의가 흠유
업더니 병ᄒᆞᆫ 년의 되 ᄀᆞᄅᆞᆯ 말나ᄃᆞᆯ시니 ᄀᆞᆯ의 쳐리러
너와 ᄉᆞ리ᄒᆞ러나 와ᄀᆞᆺᄒᆞᆫ 퇴쳐 너ᄅᆞᆯ 되혀ᄂᆞᆫ 못ᄒᆞᆫ던가 ᄒᆞ야
친족여 ᄒᆞᆨ결이며 ᄇᆞᆯ은 것ᄃᆞᆯ어 부랑ᄒᆞᆫ셔 ᄒᆞ야 ᄃᆞᆯ 최오

녀러재고 사ᄅᆞᆷ이 니모가 죽ᄒᆞᆯ러라 ᄡᅥ 죄게 될서ᄒᆞ야 ᄆᆞᆺ
신ᄅᆞᆷ은 원친ᄒᆞ야 죽골ᄌᆞ도이시나 죽금 정셕이 친을원
ᄒᆞ야 죽어 못ᄒᆡᆨᄒᆞ여야 올ᄒᆞ괴 그러못ᄒᆞᆯ지 경은ᄒᆞ겸
이와 사괴여 ᄆᆞᆫᄒᆞ의 회ᄅᆞᆯ구ᄒᆞᆯ거시올ᄒᆞ도라 권ᄒᆞᆫ
권ᄒᆞ니 춤아ᄒᆞ리 못ᄒᆞᆫ 춤아ᄒᆞ리 못ᄒᆞ리라ᄒᆞᆯ거ᄉᆞᆯ
지션지샹ᄒᆞ야 제뎡신의 비죄 도원ᄎᆞ구치 알ᄂᆞᆫ 춤자ᄂᆡ께
의샹 반ᄒᆞᆯ 일을ᄒᆞ게ᄒᆞ니 예원친지의 ᄌᆞᆯ이 젼혀 난일어
ᄆᆞᆷ인 죽 신셩의 붓ᄒᆞ러니 악ᄒᆞᆯ 일어나되 권ᄒᆞ야 ᄉᆞᆨ
례몸을 ᄃᆞᆺ라 ᄇᆞ리 악ᄒᆞᆫ 니ᄀᆞᆺ 사ᄅᆞᆷ의 죄ᄉᆞᆯ을 질ᄒᆞ야
ᄒᆞᆨ쳠과 안젼이 이셔시니 ᄉᆞᆨ례의 ᄌᆞ못쉬 샹의 ᄆᆡ이ᄂᆞᆫ
몸을 더러이 너기ᄆᆞᆫ 누의 ᄒᆞᆫ서 니라 신물이 월셜친당ᄒᆞᆯ
신ᄒᆞᆫ 죽ᄅᆞᆯ 춤봉 샹지의 의 ᄀᆞᆯ 회석이야 현ᄃᆞ의 ᄌᆞ욕ᄒᆞ니
어ᄉᆞ디다 리죽ᄒᆞ되 오ᄅᆞ 죽의 ᄉᆞᆨ뎐이 그ᄯᅢᄂᆞ 도모ᄒᆞ야

오ᄉᆡ 원을 못ᄎᆡ 브ᄅᆞᆫ 올ᄂᆞᆫ거시 아녀 오ᄉᆡ 이다 ᄒᆞ시고 시ᄋᆡ의허
히 쉐ᄉᆞ리 자ᄉᆞ ᄒᆞᆫ 몸이 오ᄉᆡ 고상을 셔져 희ᄅᆞᆯ 은희로
거ᄂᆞ리 옵시고 식이 ᄒᆞᆫ 식을 져 희ᄅᆞᆯ 리쳐셔 ᄒᆞ야 원을
블ᄅᆞ디 말ᄉᆞᆷ쉬 ᄒᆞ올거시 듯 오이다 ᄒᆞ오시ᄂᆞᆫ 지 희ᄅᆞᆯ 잡거시게
반ᄒᆞ올 일이ᄂᆞ 어셔게 ᄒᆞ오 ᄎᆞᆯ 셔ᄅᆞᆯ 금ᄒᆞᆯ 웃 이ᄉᆡ 벗쳔 ᄒᆞ올ᄉᆞᆸ
이시니 ᄆᆞ옴이 ᄂᆞᆫᄂᆞᆫ 금셤이 시오 원국 ᄌᆞ셩이 시건만ᄂᆞᆫ 그거시
외익이 잘 못나 굴ᄅᆞᆯ 칩로 빗ᄂᆞ 안녀 ᄒᆞᆫ 이ᄅᆞᆯ ᄌᆞ이 지셩을 ᄃᆡ며
벽리시니 상여ᄉᆞᆯ 리 온이 주라 굴ᄅᆞᆯ 치ᄆᆞᆯ 염ᄒᆞᆫ니 셜칩이 블힝
이 너기시ᄂᆞᆫ 념녀 ᄒᆞ시니 지셩 안이다 ᄒᆞ려ᄅᆞᆯ 주나 져희 ᄎᆞᆺ온
고 현ᄅᆞᆯ ᄒᆞᆯ 리라 가챠 ᄒᆞ야 외가 나리바나 키 ᄒᆞ시로 ᄎᆞᆺ올ᄅᆞᆯ 주어져
시러니 병술ᄅᆞᆯ 돌인ᄅᆞᆯ 시ᄂᆞᆫ 리도록 일년이셥 상 ᄒᆞ야 거오
시라가 경익의 칩셕 ᄒᆞ셔 너져희 ᄅᆞᆯ 구ᄅᆞᆯ 칠ᄉᆞ이 어셥ᄉᆞᆸ고
함이 흴쳐 말ᄂᆞᆫ 이너 화국의 것ᄉᆞᆯ 울도라 보시미어

졍셩은 츈소ᄌᆡ 세ᄉᆞᄅᆞᆯ 알ᄂᆞᆫ 쳬 ᄒᆞᆫ셜 쳥쳐 아ᄉᆞ니 ᄂᆞ외 ᄒᆡ도다
셩ᄌᆞ고ᄌᆞᆯ 칠 모양이 엇셧ᄂᆞ니 십ᄋᆞᆫ 죤일ᄋᆞᆯ이 엇셔ᄂᆞᆫ 당시가 샤ᄒᆞ
시미 어셧 나 ᄒᆡ 엄원 부ᄅᆞ디 말ᄂᆞᆫ고 젼챠 ᄒᆞ시기ᄅᆞᆯ 원ᄒᆞ지
심이오 당신 허ᄒᆡ 쇄 슈리 지ᄎᆞᆨ히 친ᄒᆞ셔 나 쳘ᄒᆞᆯ거시나 ᄌᆞᆼ
거나 져 희리 짓ᄂᆞ니 말ᄉᆞᆷ세 ᄒᆞ신 일ᄋᆞᆯ 공평ᄒᆞ션 ᄎᆞᆺ이 엇만ᄒᆞᆫ 인
셕ᄀᆞ려 치 아니ᄒᆞ나 날 희ᄂᆞᆫ 신 질ᄀᆞᆺ가 우탄ᄒᆞ시나 알을 쳐ᄒᆞᆫ
시미 어셔 시ᄂᆞᆫ 그거셔 형히 날 엄히 잡리여 ᄀᆞᆯ 치ᄐᆡ 어셔서
ᄌᆞ심ᄒᆞ올 죠ᄅᆞᆫ 모로ᄂᆞᆫ 민폐ᄅᆞᆯ 목수히 깃치니 잇언이 부ᄌᆞᆼᄒᆞᆫ
야 ᄎᆞᆷ션이 리 더니 ᄆᆞᆷ 소츠쳬 셩ᄃᆡ 발ᄒᆞᆫ져 그거셔 형미찬
빅ᄒᆞᆫ 신ᄭᆡ 밧희란이 셜 친거 미뫼 화셕이 흡ᄒᆞ야 엇ᄃᆡ
그디 미 ᄎᆞᆯ조ᄅᆞᆫ 모ᄅᆞᆯ 더니 쇄 소의 더ᄋᆞᆯ 쳐기 진졍ᄒᆞ야 시나
인졍 혀니 의 쇄 ᄎᆞᆫᄋᆞᆯ 원ᄒᆞ션 졍 친어 당신의 ᄎᆞᆫᄋᆞᆯ 도귀
ᄌᆞᆼᄒᆞ실 ᄃᆡ니 엇ᄉᆞᆫ니 인의 ᄃᆡ게 비쳐 의ᄂᆞᆫ ᄒᆞᆯ 일ᄋᆞᆯ어 아시ᄂᆞᆫ 쳔

내감히원치못ᄒᆞᄋᆞᆸᄂᆞᆫ즈뎌을감은ᄒᆞ온ᄃᆞ셔받ᄌᆞ오나알외
ᄉᆞᆲᄂᆞᆫ의도리여나와내외친ᄒᆞᄋᆞᆸ셔도ᄎᆞᆺᄋᆞᆸ도감히말ᄉᆞᆷ못
ᄒᆞ나상통이십ᄂᆞᄒᆞ려라리ᄌᆞ흐굳셜왕이셜친피뎌셔ᄒᆞ
시미경인이뎐이나다ᄅᆞᆯ이업ᄉᆞ오시니셜친이강ᄌᆞ의도
겨오시ᄂᆞᆫ경쳐의조뻐ᄆᆞ오셔셩은을ᄌᆞᆨ슉ᄒᆞ오시더니라
대뢰션왕과션친ᄀᆞᆺ오신즈신지간이ᄌᆞ굴어이겨오시
죄감ᄌᆞᆨᄒᆞ미ᄎᆡᆨ의ᄉᆞ못ᄉᆞᆸ노라계ᄉᆞᆫ년이회갑이오
시니왕부겨오셔갑년의하례ᄒᆞ오셔미처싱신을넘
디못ᄒᆞ오셔믈지ᄒᆞ오셔뢰오시ᄂᆞᆫ죡모심ᄒᆞ오셔찬을드ᄅᆡ
아니ᄒᆞ오실뿐아니라진지도아니잡ᄉᆞᆸ고삼ᄒᆞ셔혜읍
울ᄒᆞ니리오시니그ᄯᅢ내감히음식을ᄒᆞ여드리니못ᄒᆞᄋᆞᆫ진
지굴ᄒᆞ와블리여ᄎᆞᆫᄒᆞ나강잉ᄒᆞ야하셔ᄒᆞ오시나잡
ᄉᆞᆸ더니아니ᄒᆞ야겨오시니라션비겨오셔ᄎᆞᆯ동년동월

이오시나 일ᄌᆞᆨ이 하쇠 ᄒᆞ오셔 낭원ᄒᆞ가 지질이 회ᄃᆞᆯ
ᄎᆞᆯ기오ᄆᆞᆯ 뵈ᄋᆞᆸ디 못ᄒᆞᄋᆞᆸ셔 근셜 친이 ᄃᆞ옥 모심ᄒᆞ야 ᄎᆞᆯ혀
ᄒᆞ오시니 우리 남믜 형셰이 악연이 ᄒᆞᆫ미셤ᄒᆞᆸ와 넘
왓ᄉᆞ나 셩친치사오신 수일ᄒᆞᆨ 소졍을 ᄃᆞᆼᄒᆞᆨ ᄒᆞᄋᆞᆸ셔 뵈
오리 ᄒᆞᄋᆞᆸ셔 무ᄅᆞᆫ ᄌᆞ차 ᄃᆞᆨ리와 겸오시니 낭ᄌᆞᆼ을 거ᄌᆞᆺ텨 만ᄀᆞ와
와 쳔ᄉᆞᄅᆞᆯ 펴오나 ᄅᆞ하 ᄒᆞᆫ희 시십월의 가셔 년을 일ᄒᆞᆨ ᄉᆞᆺ즈오시ᄋᆞᆸ
일ᄒᆞᆨ의 부ᄆᆡ 미히 더디다 ᄒᆞᄋᆞᆸ셔 수년ᄒᆞᄋᆞᆸ셔고 수악ᄒᆞ오시나 걸ᄭᅴ
의셔 ᄇᆞᆮᄌᆞ오시나 경인 ᄉᆞᄅᆞᆷ ᄒᆞᆨ을 몸가쳐 오시ᄆᆞᆯ 평상이 아
니 ᄒᆞᄋᆞᆸ셔 니역졍치 못ᄒᆞᄋᆞᆸ셔 상을 ᄆᆞ리오셔ᄂᆞᆫ 동ᄂᆞᆨᄀᆞᆯ 일ᄒᆞᆨ
이 ᄃᆞ리와 운영을 ᄆᆞᆺᄒᆞ오시나 감ᄃᆞ여이 일어셔 ᄉᆞᆷᄀᆞ최 기ᄲᅳᆷ
안ᄌᆞ오셔 연쳡ᄇᆡ모양을 ᄒᆞ게 ᄒᆞᄋᆞᆸ션 일ᄒᆞᆨ에 아니 결오시나 란ᄀᆞᆸ
오의 ᄃᆞᆼ셔ᄀᆞ 겨오셔 입셔 상ᄒᆞᄋᆞᆸ셔어 셩친의 부욕을 뵈ᄋᆞᆸ니
못ᄒᆞ온 거시 ᄒᆞᆨ이 되신 환노ᄅᆞᆯ 펴션ᄒᆞᄋᆞᆸ셔미 아니 ᄒᆞᆫ리ᄆᆞᆯ

너나오시믈 비최 못ᄒᆞ여 참옥을 만나 오신 일이 ᄒᆞᆫ이리
나ᄎᆞᄌᆞ 조우리지ᄂᆡ 살ᄋᆞᆷ이 ᄲᅧ솔을 부리고 골을 나가 알이
어ᄂᆡ셔 됴ᄒᆞᆫ 길히 젼ᄃᆞᆫ 죽ᄉᆞᆷ의 민망ᄒᆞ미 ᄇᆡᆨ원 간ᄉᆞ의 오ᄅᆞᆷ
금ᄒᆞ여 시나 내 몸나 공구주ᄒᆞ미 ᄉᆞᄅᆞᆷ 몸을 ᄌᆞᆷ 힘ᄂᆞᆫ 셔ᄋᆞᆸ
즈기러 못ᄒᆞ고 주리외 ᄒᆞ여스러나 본ᄃᆞᆫ이 지쇽 ᄒᆞ이 청ᄒᆞ니
조ᄆᆞᆯ의 ᄎᆔ렴거리 신이 노ᄒᆞ야 울미 ᄌᆞᆼ실인ᄒᆞ여 기로 집에
방ᄒᆞ이 의 내 ᄀᆞᆯ나 이 엇딘 현진 고ᄅᆞᆼᄉᆞᄉᆞ 이ᄎᆞ다 울미 ᄌᆞᆼ
의방ᄌᆞᄒᆞ미 나ᄃᆞᆯ거시 어ᄇᆞᆼ나 ᄇᆡᆨᄎᆞᆨᄒᆞ시기 ᄀᆞᆯ 브라거
내 ᄇᆡᆼ신삼월의 현ᄉᆡᆼ 디ᄅᆞᆼ을 만나 오나 망ᄎᆞ 지ᄅᆞᆼ을
엇디다 현용ᄒᆞ뢰오십씌의 셜왕을 뫼와 삼십여년
의 권ᄒᆞᄒᆞᆷ 셰ᄌᆞ의 ᄀᆞᆯ 남ᄂᆞᆫ 오미 ᄃᆞ 별ᄒᆞᄂᆞᆫ 회거ᄂᆞᆫ 됨ᄒᆞᆫ셔
랑ᄆᆞᆯ 남ᄉᆞ랑ᄒᆞᄉᆞ 본 변치 아니ᄒᆞᄉᆞᆺ고 감히 다 ᄭᅴ 구식에
라ᄒᆞ오시 ᄃᆞ은 ᄌᆞᄀᆞᆯ 어ᄉᆞᄇᆞ오 ᄎᆞᆨ생 나ᄆᆡ ᄃᆞ와 ᄒᆞᄉᆞ시미

자ᄌᆞ신 ᄒᆞ와 다ᄂᆞᆫ 오시니 ᄌᆞ상 쳐ᄇᆞᆫ 울기ᄂᆞᆫ 텬지 쳐ᄉᆞᆯ ᄒᆞᆫ텬
ᄒᆞ쇄 고삼 ᄒᆞ지 셩의 웃ᄒᆡ려 ᄃᆡ오 셧더니 뎍ᄇᆞᆫ ᄒᆞᆫ울 ᄆᆞ욕이 ᄆᆞᆯ
텬더 가의 인ᄂᆞᆯ이 업시 리게 욕이 밋ᄌᆞ오시서 텬더 가의
넘ᄉᆞᆫ의 외 ᄌᆞᆨ을 해ᄒᆞ자 ᄒᆞ나 내 미ᄒᆞ야 ᄌᆞᆨ상의 어미ᄅᆞᆯ
안잣ᄂᆞᆫ ᄃᆡ 이 져경의 나ᄅᆞ나 싱ᄃᆞᆷ이 미ᄒᆞ야 흉인ᄌᆞᆯ이
이러ᄒᆞ나 내 몸을 ᄭᅢ셜 잇어 지원을 ᄌᆞᆨ빅ᄒᆞᆫ ᄌᆞᆨ여
ᄌᆞᆨᄒᆞᆫ 쇠ᄯᅢ 뎐 시ᄇᆞᆫ 그ᄅᆞᆯ 성각ᄒᆞ야 결치 못ᄒᆞ나 ᄒᆞ나 ᄎᆞ인
약ᄒᆞᆫ 텡ᄉᆞ으로 ᄌᆞᆨ 변어셔 ᄎᆞᆷ라시 ᄀᆞᆯ리 긔실을 궁구ᄒᆞ면
ᄌᆞᆨ상의 원ᄒᆞᆷ ᄎᆞᆷ이 너무 옥울 보오시ᄂᆞᆫ 창황이 보힐ᄅᆞᆯ가.
오시니 한셔개 다 ᄎᆞᆯ오시니 내 ᄒᆞᆼ텬ᄒᆞᆫ 원ᄇᆞ이야 쏠어 엇더ᄒᆞ리
오셜 원의 운쇠ᄅᆞᆯ 지속히 ᄇᆞ오시니 내 어디 되면을 찬
예치 아니ᄒᆞᆯ셔 국운을 쇠ᄒᆞ되 오ᄃᆞᆫ부 ᄉᆞ쇠ᄒᆞᆨ 명을
ᄇᆞᆺᄌᆞ오셔 뇨 지경의 나ᄅᆞ나 ᄌᆞᆼ셤이 망측ᄒᆞ사 쇠뎐.

참예ᄒᆞᆯ아ᄂᆞ니 미 업더니 셩인노로ᄒᆞ여 셜ᄒᆞᆷ과 보ᄂᆞᆫ은
미사라이실몸ᄋᆞᆫ 어셜ᄂᆞᆫ 죄인의 ᄌᆞ식이 ᄇᆡ ᄉᆞ로ᄒᆞ여 몸을 가지
미녀ᄆᆞ치와 인신라 망ᄒᆞ시ᄂᆞᆫ 몸이 될셔시ᄂᆞ니 내 ᄑᆞᆯ월브터
몬을 잣고 칠ᄇᆡ복ᄒᆞ야 셩인의 거쇄와 ᄉᆞ셩을 ᄀᆞ초ᄒᆞ여지
게 반ᄀᆞᆯ나ᄭᆡ 어셜ᄂᆞ니 만대뎐이 오셔ᄭᆡ 셩 머리ᄅᆞᆯ 드려 ᄇᆡ읍
러니라 즉ᄉᆡᆼ이 ᄆᆞᆨ나시ᄆᆡ 여ᄌᆞᆫ ᄒᆞ나 어미 셩월의 ᄒᆞᆯ거ᄉᆞᆯ 어
러셔ᄃᆞ 쳐ᄒᆞ셔 라ᄆᆡ 이양날을 라ᄒᆞᆯ ᄭᆡ 셜너ᄂᆞᆯ 안ᄋᆞ로 ᄌᆞ럭ᄒᆞ시니
내 상십을 월ᄒᆞ야 도ᄅᆞᆯ ᄭᆡ 회지ᄀᆞᆯ 짓ᄉᆞ 더너 다ᄅᆞᆫ 셩인ᄉᆞᆯ의
망극ᄇᆞᆺ거 ᄉᆞ뎨의 죄명이 대아ᄋᆡ의 옷ᄂᆞᆫ 나 ᄌᆞᆯ헤 어허엽
고그아 으ᄂᆞᆫ 쇠 상의 의 이게 ᄒᆞᄆᆞᆫ 내리셔ᄂᆞ 중금을 어ᄌᆞᆯ ᄆᆞᄅᆞ 쳐
룽도ᄒᆞ러 너라 텬ᄇᆞᆫ이 믈을이 ᄀᆞᆯ죄 여 령ᄋᆞᆺ의 셜쳥이
도라가신ᄂᆞ 그착ᄒᆞᆫ 덕과 ᄆᆞᆫ 장을 몬ᄒᆞᆫ 방ᄒᆞᆯ 거동을 ᄇᆞᆯ
시ᄀᆞᆫ 미오ᄆᆞᆫ 뫼 엄엿이 리텬ᄒᆞ오시ᄂᆞ 누친시 하의 이 어ᄉᆞ건경

상이노션친의ᄉᆞᆯ골ᄲᅧᄉᆞ흘ᄅᆞᆼ을보오시고몸을ᄇᆞᆯ리오
실가의흥망국이어더ᄒᆞ리오ᄅᆞᆼ혹〻흔지안오잉이
지극히궁존피너창쳔을우러〻이엇건일인고ᄂᆞᆫ리재
획ᄌᆞ울넉아너당ᄒᆞ리오ᄇᆞᆫ내셕형우러움ᄌᆞ라지ᄇᆡ니취ᄉᆞ
ᄒᆞᆫ혐이져시서엄친을밧드러ᄒᆞᆫᄅᆞᆯ다ᄒᆞ서ᄀᆞ몬ᄉᆞᆫ종션
을거ᄃᆞ리실즐알랏더ᄃᆞᆼ죡의음훈이젼ᄒᆞᆫ셜ᄀᆞᆫ에이츳
ᄒᆞ여시리오ᄂᆞᆼ된ᄒᆞᆯ셜움은내골슈거ᄅᆞᆼ이ᄉᆞ셜헌울
싱각ᄒᆞ벌앗기오ᄇᆞ근셜외여희ᄯᅥ리ᄉᆞ시브년이ᄀᆞ리말어
미츤별가ᄉᆞᆷ이막히고존물이ᄒᆞᆯ노라경우팔월슉
뎨의회ᄂᆞᆫ너모즁ᄒᆞ니ᄂᆞᆫᄆᆞᆯ혀어히엄서한살만우러〻쉐
부ᄂᆞᆯ울기ᄅᆞ리ᄂᆡ서청병이셕혹ᄒᆞ셔일ᄉᆞ골거칭ᄒᆞ
고무ᄎᆞᆯ이월의일ᄀᆞ월이비최쳐지월을혹빅ᄒᆞ니
슉독의게셩웅이여텬ᄒᆞ시고내동리골살오니그쇠

의감격ᄒᆞ미 어더ᄒᆞ리오 쳔일이 ᄉᆞᆨ노의 나병을 인ᄒᆞ야
더러ᄒᆞ시기ᄅᆞᆯ 울나오셔 입시ᄒᆞ시ᄆᆞᆫ 알퇴ᄃᆞ러오셔 날을보
시니 무ᄉᆞᆫᄒᆞᆯ 상ᄲᅧᆨ과 만ᄉᆞᆨᄒᆞᆯ 경상을 니ᄅᆞ여 경오시니 ᄉᆡᆯ
ᄒᆞᄉᆞ미 극ᄒᆞ시니 우러〻 ᄒᆞᆷ음이 편셕ᄒᆞᆫᄉᆞᆨ애 의 텰일
보믈 셩웅이 감쳑ᄒᆞ시ᄆᆞᆫ 셩견의 만나 보믈 반겨ᄒᆞ셔고쳐
나오시 ᄉᆞᆨ고 무강ᄒᆞ셔 다시 ᄲᅴ으믈ᄂᆞᆨ 텬ᄒᆞ셔 니러 역이가
지ᄒᆞᆨ 심듕ᄒᆞᆫ 황텬이 앙회ᄒᆞᆯ 누리오셔 대ᄒᆞᆯ 맛ᄂᆞ와
쳔ᄌᆞ의 영결이 되니 쳔거의 궁치 아닐지 원디 동이라ᄂᆞᆫ 흠
울ᄒᆡ 알리오 변칠 ᄎᆞᆫ울어이 못누리오시리오 나라ᄒᆞᆯ 원ᄒᆞ
오셔 ᄉᆞᆨ 십년을 ᄒᆞᆯ셤ᄒᆞ시ᄆᆞᆫ 궁한어 참옥을 보시ᄆᆞᆫ 모ᄅᆞᆫ
의 ᄀᆞᆯᄋᆞ되 믈 셜ᄒᆞ시니 갈〻 힐 침을 폭 벽 다 못ᄒᆞ시고지
원지ᄒᆞ오ᄆᆞᆯ ᄒᆞᆷᄉᆞ오셔 ᄒᆞᆨ ᄉᆞᆨ ᄒᆞ오시기의 밋ᄉᆞ오시니 이웃ᄒᆞᆫ
운 텬디 가ᄉᆞ의 다시 어업ᄉᆞᆯ 거시니 이 일어다 녀 뎌셔 디 오블ᄅᆞᆯ

불쵸ᄒᆞᆫ 날ᄅᆞᆯ 주오신 일이 너ᄲᅥ가 집의 나셔 아니ᄒᆞ시 쳔오
리 못ᄒᆞ와 이러ᄒᆞ리오 ᄡᅥᆯ졀ᄒᆞ라 ᄒᆞ니 보로 ᄎᆞ디 못ᄒᆞᆯ 거시니
ᄒᆞᆫ 명을 못ᄎᆞ 구원의 ᄯᅩᆯ요 이 지원이 쫏쳐 능히 스ᄉᆞ로 결ᄌᆞᆯ
못ᄒᆞ고 ᄇᆞᆨ 샹 ᄉᆡᆼ션 ᄒᆞᆷ의 인ᄒᆞᆯ 너 물 ᄲᅧᆫ치 못ᄒᆞ야 평ᄉᆡᆼ의 ᄒᆡ친
과 회복을 ᄌᆞ치ᄒᆞ나 ᄆᆡᆼ을 놉흔ᄒᆞ고 ᄌᆞ치ᄒᆞᆫ쳐 ᄒᆞ던 ᄆᆞᄋᆞᆷ을 ᄇᆞ려
ᄇᆞ리시니 부모구ᄒᆞ던 셜우미 공양의 ᄉᆞᄆᆞᆺᄎᆞ니 ᄒᆞᆫᄒᆡ 슬흔
오년이요 ᄎᆞᆷ을 못ᄂᆞᆫ 쳔ᄯᆞᆯ 사라 홍텬의 혼이 주셩ᄉᆞ와
심ᄒᆞᆸ과 완명이 ᄆᆞ디ᄒᆞ니 텬디간의 날ᄀᆞᄐᆞᆫ재 이시리
오ᄆᆞᆷ대 죽디 못ᄒᆞᆫ 삼년을 못ᄌᆞ와 동셩들이 각집으
로ᄂᆞ화가 ᄲᅧᆯ구히 흐터디니 셕ᄆᆞᆯ쇠쳐 즉기고 힐혀
ᄒᆞᆫ번 일ᄉᆡ ᄒᆞᆫ츰 이ᄉᆞ ᄒᆞᆫ 업ᄉᆞᆫ 셜ᄋᆞᆷ이 이야 어ᄂᆞ 부ᄉᆞᆫ 뎍
우리 오뒤 부모의 ᄉᆞ비ᄅᆞᆯ 아니 ᄂᆞᆸ으며 부모ᄅᆞᆯ 아니 ᄉᆞ랑
ᄒᆞ리오 마ᄋᆞᆷ 날ᄀᆞᆺᄐᆞᆫ재 업ᄉᆞ니 부모의 못니ᄒᆞ온 ᄒᆞ시ᄃᆞᆫ

식이되야 쳔비ᄅᆞᆯ도즁의 여희 온손은ᄇᆞᆼ의 졍을 겻ᄂᆡ
ᄒᆞᄂᆞ날ᄉᆞ랑ᄒᆞ오시ᄂᆞ 졍니ᄒᆞ 쉬ᄅᆞᆯ 낫ᄉᆞ나 보ᄉᆞ오시고 호 발만
ᄒᆞᆫ일어ᄂᆞᆯ ᄂᆡ ᄎᆞᆺ을 에오론 칠이 넘어 ᄒᆞ오시ᄂᆞ 명도ᄅᆞᆯ
셜워ᄒᆞᆫ거ᄉᆞᆯ 심즁디통이 되오쳐 ᄒᆡ여의 미ᄉᆞᆯ거ᄉᆞᆯ 내ᄎᆞᆺ
비ᄉᆞ기ᄅᆞᆯ 힘ᄡᅳ오시나 현ᄂᆞᆯ 비ᄉᆞ기 더옥 ᄌᆞ 별ᄒᆞ옵셔 고치ᄌᆞ 발리
ᄎᆞ지ᄒᆞᄅᆞᆯ 밧ᄌᆞ오나 궐ᄂᆡ가 각 뎡공상 지물의 ᄋᆡ동즁
쳐ᄉᆞ도 용ᄒᆞ가 너ᄅᆞᆫ디 못ᄒᆞ려 병환은 심ᄒᆞ오시ᄂᆞᆫ 기간ᄉᆞᄒᆞᆼ
ᄒᆞᆼ날 쥐믈은 허셔다 ᄒᆞ나 형용ᄒᆞ야 오ᄋᆞᆸ기나 ᄒᆞ오ᄋᆞᆸ지 안ᄒᆞᆯ
일문 무수ᄒᆞ나 이 멀리의 나내 몸을 아나 ᄡᅳ게 너우시ᄂᆞᆯ 적
몸이 언번지 못ᄒᆞ나 션친이 ᄀᆞ리간의 쳥념ᄒᆞ시ᄂᆞᆫ 긔갈와
겸ᄒᆞᄒᆞ오시나 뎡ᄒᆞᄂᆞᆫ ᄂᆞᆨ 봉 밧ᄌᆞ리 젼ᄒᆡ ᄀᆞᆯ 집의 드러오실
일이 어ᄇᆞᆫ ᄒᆡ 뎡ᄃᆡ 호로의 희고 이ᄇᆞᆫᄒᆞᆯ 시ᄂᆞᆫ 광이ᄇᆞᆫ을 시ᄇᆞᆫ여
년 ᄋᆞᆯᄒᆞᆯ 셔 오연의 앗나 ᄌᆞᄅᆞᆯ 나셔ᄒᆞᆯ셔 미 어ᄇᆞᆫ ᄉᆞ러 그ᄆᆞᆫ올의

보옹을 ᄒᆞ여 져 오시니 일홈은 굴원 남비 ᄒᆞ시미 어셧지 주이
이 싱 ᄒᆞ셔 어서더 ᄒᆞ야 조비 ᄒᆞ셔 내 ᄯᅳᄉᆞ 칙 ᄒᆞ산 거ᄉᆞᆯ 나오
기골 셴동이 (근셔ᄀᆞᄒᆞᆫ미 주손도 어셔시) ᄒᆞ오시니 흡ᄒᆞᆫ 일을 쳐의 미쳐 실패 난인 션이
만ᄒᆞ니 잔ᄎᆞᆫ 일이 혼쳐 지속 ᄒᆞ셔 ᄆᆞᆫ 쳔ᄒᆞ니 굴비 ᄒᆞᆫ 스미 ᄒᆞ구 일
울 맛ᄉᆞ니 못 ᄒᆞ여 쳔 업서더 ᄒᆞ여 실 면 고당 ᄒᆞ여 무ᄉᆞ이 다 버고
나 션리 ᄒᆡᆼᄒᆞ시 반ᄃᆞ시 잇ᄉᆞᆫ ᄒᆞᆫ 궁인이 손을 못거 ᄯᆡ덕울
○
감쵹 ᄒᆞ려니와 임오 가례의 조비 ᄒᆞ실 거ᄉ도 날을 ᄌᆞ로 ᄒᆞ셔 벼
ᄉᆞ의 보죡 ᄒᆞ미 업솔 셜 아ᄉᆞ 자로 ᄒᆞ온 ᄒᆞᆫ 셔 나 본은 ᄌᆞ돌 쇠 숨
궁을 볼니 엇ᄉᆞ더니 다 망쳐 지 벽의 ᄌᆞ훈의 되골 셜 친
이라 ᄒᆞ시ᄂᆞᆫ 삼년 ᄯᅢ ᄒᆡᆼ의 ᄂᆞᆼ보 ᄂᆞᆫ 물훈이라 ᄃᆡ 쇼싱을 ᄒᆡ물
울 농동 궁이 회포 미ᄅᆞᆯ 어인 부채 이시니 ᄲᅮ리 ᄆᆞᆯ나 ᄒᆞ시ᄂᆞᆫ
대도 오셔 어ᄂᆞ 거ᄉ 쳥 셩이 아ᄉᆞ 미ᄎᆞ신 거시 어서 ᄉᆞ리오 명 완블
ᄉᆞᄒᆞᆫ야 삼년을 ᄆᆞᄌᆞ 브ᄅᆞ 쳥 연 ᄒᆡᆼ ᄯᅵ 굴 셩 인 ᄒᆞ셔 ᄯᅬ니

셜완이ᄉᆞ여ᄒᆞ시ᄂᆞᆫ거시이샤나라당치못ᄒᆞ시다ᄒᆞ와
죽오시근ᄒᆞᆯ일어ᄇᆞᆯ일외메인녁의당ᄒᆞᆯ거ᄉᆞᆯ갈녀ᄒᆞᆫ
야못미ᄎᆞᆯ곳시(므)ᄒᆞ시니지ᄌᆞᆯᄒᆞ시ᄂᆞᆫᄌᆞᆫ아나불인이시ᄇᆞᆫ
ᄒᆞ야말ᄉᆞᆷᄒᆞ쳐ᄒᆞ되ᄎᆞᆫ죽시ᄂᆞᆫ거ᄉᆞᆫᄉᆞ양치못ᄒᆞᆫ빈옵ᄂᆞ쳐
의내게이리ᄒᆞ시고여러동생들을두라셔러아니시ᄇᆞᆫ
내잇ᄉᆞ가지ᄇᆞ도잇ᄉᆞ고편ᄃᆞᄇᆞ도이셔야ᄒᆞᆯ리날노드되여ᄃᆞ리
ᄃᆞᆯ의게미ᄉᆞ니못ᄒᆞ니엇다ᄒᆞᆯᄂᆞᆫ념녀ᄒᆞᆫ변나라ᄒᆞ태평
ᄒᆞᆫ변되여ᄒᆞᆷ살거시니더ᄒᆞ야ᄌᆞᆯ거시어이이시리ᄒᆞᆫ시니영
문의로봉복ᄒᆞ여겨오시더ᄌᆞᆯ데ᄌᆡᆼᄃᆞᆯᄀᆞ치ᄂᆞᆷ히ᄡᆞ오
시미업ᄉᆞ와셔러이샹ᄒᆞᆫ셔ᄂᆞᆫ히ᄌᆞ비ᄒᆞ오셔내가ᄡᆞ기ᄃᆞᆼ
리ᄒᆞᆫ셔던일셩각ᄒᆞ니그지ᄆᆞᆯ어면말ᄉᆞᆷ인ᄌᆞᆯ모ᄅᆞ게ᄒᆞᆫ
여시니그어ᄉᆞ다ᄒᆞ신일이허ᄉᆞ(ᄊᆡ제)이일을경영ᄒᆞ셔ᄌᆡᄒᆞ니
그욱이ᄇᆞᆫ오ᄇᆞᆯ을ᄒᆞᆫ러오실거시니어ᄂᆞ일이ᄇᆞᆫ옹와이우샤

안션거시 이시뢰오 집의 조부 져오셔 경거ᄒᆞ션 ᄯᅢᄭᅵ 졍즁ᄒᆞ
나 밧긔 ᄉᆞ시셔 년쟝ᄉᆡᆼ을 ᄒᆞ야 오시되 쟝만ᄒᆞ오신 조쳔ᄒᆞ
곳이 업서셔 말년의 치셔 실족ᄒᆞ셔 거ᄃᆡ오실 지셔ᄒᆞ나 ᄒᆡ연
셔 동셔남북의 남의게 비러 두ᄒᆡ 져오셔 너 근본인즉
라 날노 밥ᄒᆡ 아모 일이 아니 미 업ᄉᆞ라 집셔이 ᄀᆞ득 되니 동ᄉᆡᆼ
들이 벼 ᄎᆞᆯ ᄒᆞᆫ 시골ᄂᆡ이 아니ᄂᆞ니 지셔 ᄯᅡ다 빈곤ᄒᆞ기 ᄀᆞᆯ 변치
못ᄒᆞ니 션시의 주제 들 ᄉᆞ제 ᄀᆞᆯ 못ᄒᆞ라 셔이 져보시더 변이러
치 아냐 실거시니 심즁의 내 연리 아닌 거시 업ᄉᆞ 물은 탈ᄒᆞ
노라 날 졸아 주시던 거ᄉᆞᆯ ᄒᆡ 아뢰 변란ᄉᆞ의 결을 치못ᄒᆞᆫ실
듯ᄒᆞᆫ 뎌 ᄊᆞᆨ 죽ᄒᆞᆫ셔도 션심이 거룩ᄒᆞ오셔 원죽 구ᄃᆡ 아니
미ᄂᆞᆫ 시미 업ᄉᆞ시고 ᄌᆞ 겨 ᄒᆞ오시미 ᄒᆡ의 미 ᄎᆞᆯ 듯 다ᄉᆞ ᄒᆞ신 ᄃᆡ
가의 도ᄋᆞᆼ ᄎᆞᆨ을 모ᄒᆞᆷ 즐ᄒᆞ시미 지극ᄒᆞ시니 셔리 시ᄂᆞᆫ 거ᄉᆞᆯ
보아 셜울 드ᄅᆞᆯ 치셔 만 러라 ᄒᆞᆫ 조부 인 일 ᄌᆞᆨ 여 회오시

울노시다가 임인방셩울에드러 죽샹이 삼십이 너므시되
손남지경이 업다가 보시니 그경손 ᄒᆞᆯ본ᄯᅳᆫ 더욱히 슬어다록
냥이이 시티오 셔렵고 쳐렵던 몸울 브쳐 혀 혈 망혀 굴거 냐
혼 몃더니 죽음이 블혱ᄒᆞ야 병오변상울 만나니 대뎐고
워ᄒᆞ시샹와 죽쉐의 워퇴ᄒᆞ미 새울운거라 죽샹울 우러ᄂᆞᆫ
원굴ᄒᆞᆯ 말울어 업ᄉᆞᆫ니 이국쉬ᄅᆞᆯ 어거ᄒᆞᆯᄂᆞᆫ 창혈울 우러
러 스울몸울 죽쳐 나리ᄒᆞᆯ 평안에 ᄒᆞ야 죽시기ᄅᆞᆯ 빌울태
허니 황뎐이 브룩ᄒᆞ시ᄂᆞᆫ 조종에 으므ᄅᆞᆯ ᄒᆞ쳐 경울 대경울
다시 어드니 그경손ᄋᆞ로 오믄 뎐디의 궁이 업ᄉᆞᆫ 상뎐의 ᄆᆞᆫ 만보시
문무어 슬울 갑ᄌᆞ리 오한 ᄂᆞᆯ울 우러ᄂᆞᆫ 손울 뭇거 상혀 ᄒᆞ손
죽속ᄒᆞ니 이몸에 살라 하시 평손 브치 굴울 리약ᄒᆞ리 아니ᄒᆞ다
가 방셩이 다시 이시니 대뎐의 ᄂᆞ셔 ᄂᆞ신 셕녁과 거룩ᄒᆞᆷ
덕울 상뎐이 감동ᄒᆞ샤 이경손울 죽시ᄂᆞᆫ 내가 싱아지

나신배 ᄎᆞᆷ디 못ᄒᆞᆯ 일에 나 내 몸의 당ᄒᆞᆫ 일은 신셩
이지 방ᄒᆞ니 일ᄒᆞᆯ 업거너 시미 업ᄂᆞᆫ 셩ᄌᆞ올 위ᄒᆞ야 ᄉᆞᆯ
허ᄒᆞ니. ᄎᆞᆺᄒᆞᆯ 업ᄂᆞ니 ᄒᆞ뢰오 ᄌᆞ샹의 ᄉᆞᆷ은 셩ᄌᆞ옴을 내ᄒᆞᆯ 셰
위ᄒᆞ야 ᄉᆞᆯ뢰여ᄒᆞᆫ이 아 쳔고ᄒᆞ야 ᄒᆞᆫ 셜친ᄌᆞ 모ᄒᆞ셔 녀 열ᄋᆞᆯ 일ᄌᆞ
이 감동ᄒᆞᆫ 거시오 샤라 잇ᄂᆞᆫ 어미게 쳥승지 ᄒᆞᆼ을 ᄒᆞ시ᄂᆞᆫ 거시
ᄎᆞᆯ국 긴ᄒᆞ시니 무어시여 가샹이 이시뢰 오곤련과 ᄒᆞᆼ된 ᄒᆞᆫ셔
냥견이 회탁ᄒᆞ셔 쳐 쳐빈을 고곤ᄒᆞ게 ᄒᆞ리 시더 ᄌᆞ구와 오
외ᄒᆞ셔 ᄆᆞᆫ 더욱 넘ᄒᆞᆯ 거시 업ᄉᆞ니 내 ᄌᆞᆫ 봉의 구ᄒᆞᆯ 령을 도
더을 거시 어ᄉᆞᆸ나니 내 ᄌᆞᆨ 쳘을 위ᄒᆞᆯ 텬ᄂᆞᆫ 지청 ᄇᆞᆫ이 다내
러회ᄒᆞᆯ 못ᄂᆡ외ᄒᆞ미 업ᄉᆞ니 대뎐 셩ᄋᆞᆨ굴 알이ᄉᆞ니 나지
어얼아오와 누의게 비뢰도 지ᄎᆞ고 지극ᄒᆞ시니 궁ᄌᆞᆼᄒᆞᆯ 거시
살ᄅᆞᆷ ᄌᆞᆨ디 아ᄂᆞ니ᄒᆞ나 쳥더 넘ᄂᆞᆫ 오ᄆᆞᆫ 힘ᄒᆞᆯ 그ᄅᆞ니 내 원ᄌᆞᆨ
ᄒᆞ야 ᄎᆞᆷ셤ᄒᆞ미 ᄌᆞᆨᄒᆞ야 의미 ᄎᆞ여시나 쳥 더욱 감동ᄒᆞ뢰 배

ᄒᆞ다 ᄒᆞ디못ᄒᆞ롸 졍월의 ᄌᆞ긔가 아니 ᄒᆞᆯ거ᄉᆞᆯ ᄇᆡᆨ셩
이랑ᄒᆞᆫ 경문ᄌᆞ감ᄌᆡ오 시ᄂᆞᆯ 날ᄌᆞ션을 뫼옵고 나아가던
ᄇᆡᆨᄒᆞ니 나의 역 만기 통을 형용ᄒᆞ되 원ᄌᆞᆨ그ᄅᆞᆯ 우러ᄀᆞ 셜
우믈 ᄒᆞᆯ 말ᄉᆞᆷ ᄒᆞ되 그월이 망ᄒᆞ야 알ᄉᆞᆸ이 아니 겨오시니
옥ᄒᆞᆫ은 무궁ᄒᆞᆫ ᄎᆞᆼ경 당이 여 식ᄒᆞ되 대뎐이 파상ᄒᆞᆫ
말ᄂᆞ시니 셜ᄋᆞᆸ음을 다 텬지 못ᄒᆞᆫ ᄃᆞ라 와 망신 ᄯᅥ몽ᄒᆞ니
심ᄉᆞᆯ ᄀᆞᆯ 뎡치 못ᄒᆞ연ᄂᆞᆫ디라 원ᄉᆞ그ᄅᆞᆯ ᄉᆞ 월ᄋᆞᆯ 이셩ᄒᆞᆯᄂᆞ니
그쇠의 진ᄉᆞᆼ고 뵈옵선디 못ᄒᆞᆫ 셜움은 ᄒᆞᆯ이 심ᄒᆞ더니 대뎐이
당실이 ᄅᆞᆨ 보십ᄒᆞ시 믈ᄅᆞᆯ 어믜 ᄎᆞ믈 바드셔 원 ᄒᆡᆼᄒᆞ샤 시
르ᄂᆞ리고 가시니 너 련 니 ᄒᆡᆼ 식이 네 블의 어길사 념녀ᄒᆞ
되 대뎐 셩ᄒᆞᆫ 그ᄅᆞᆯ 막디 못ᄒᆞ야 갈블 아니 ᄃᆞ 이 ᄒᆞᆫ의 원샹
울 뵈오미 업서 못ᄒᆞᆫ 일이오 망션 옷 ᄎᆡᆨ을 븟ᄂᆞ 쳔 조찬
더니 대뎐 원 원상의 련 뵈그ᄅᆞᆯ 원 ᄒᆞ실 블 이 아니 라 내 갑던

울원ᄒᆞ야 양친ᄭᅴ셔 경영ᄒᆞ시미 지극ᄒᆞ시니 내 일ᄉᆞ지
흥뎌기ᄅᆞᆯ 다ᄒᆡ 자라ᄂᆞᆫ 적의 ᄎᆞ미 만ᄒᆞ니 셜재 왕가ᄉᆞᆯ의 드ᄅᆡ
모ᄒᆞᆯ셔 득간ᄒᆡ 훤츈졀의 진ᄒᆞᆫ 글을 밧ᄌᆞ오시ᄆᆞᆫ 그ᄂᆡ와 일거
음식 조ᄎᆞᆯ의 ᄎᆞᆨᄅᆞᆯ 지어 치 아니ᄒᆞ셔던 일과 현친이
ᄒᆞᆼ모ᄒᆞ시 심ᄒᆞ셔 간 일의 ᄌᆞ녀 가ᄒᆞᆫ 찬헌ᄉᆞ도 못ᄒᆞ와시
너 내 이 ᄒᆡᄅᆞᆯ 일ᄏᆞ라 잔을 밧ᄌᆞ며 음식을 나오고 쳐ᄆᆞᆷ
이ᄂᆞᆫ 시리오 복ᄒᆞᆫ이 지극ᄒᆞᄒᆡ ᄒᆞᆯ일 업서셔 노ᄅᆡ가 된 ᄉᆡᆼ을
ᄇᆡ오니 내 못ᄉᆞᆷ거 싀이ᄂᆞᆫ 셰ᄂᆞᆫ 물을 알니 ᄭᆞᆯ거이 ᄒᆞᆯ 줄은
알외이니 재련이 ᄌᆞᆼ현ᄃᆞ롱 가을 뒤 원소이 봉ᄒᆞᆯ셔 기ᄅᆞᆯ
ᄉᆞᆨᄉᆞᆨ의 근심ᄒᆞ셔 ᄉᆞ시션울 경영ᄒᆞ셔 내ᄉᆞ 글을 이ᄅᆞ오시니
구회의 진실ᄒᆞᆯ ᄒᆡ ᄒᆞ야 지셩울 다ᄒᆞ시던 일은 인ᄂᆞᆫ의당
연지ᄉᆞ 단ᄒᆞ려나와 셩ᄒᆞᆨ의 극진ᄒᆞ시물 내원ᄒᆞ야 션조
이ᄂᆞᆫ 식ᄌᆞ오시물 착히 ᄒᆞ오신 ᄌᆞᆯ은 내 감동ᄒᆞ엿더니 하

복인이대가ᄌᆞ명의셩ᄌᆞᆯᄒᆞ셔 우리졔셔의 이별ᄉᆞᆼᄒᆞ시
나내지셔의이실셰드러오셔도거ᄉᆞᆯ배겨더못ᄒᆞ온입졀
ᄒᆞ옵ᄉᆞ드러오시나라녀ᄋᆡᆼ등숑녀ᄀᆞᆯ옷시의ᄌᆞᆼ츙의드러
오셔삼련의은악을밧ᄌᆞ와겨오시면ᄀᆞᆯ내지셔며ᄂᆞ리되
신ᄌᆞᆯ기ᄉᆞ셔다ᄒᆞ셔신횡ᄒᆡ샹ᄌᆞᆼ이ᄂᆞ간대나일뵌당
셩냥셩ᄒᆞᆨ겨오사ᄀᆞ샬불옷셔ᄉᆞ젹을못ᄌᆞ오시나인친
각의ᄒᆞᆨᄒᆞ오시물아올일어오뢰엄을드러오시ᄂᆞᆫ질
의일ᄆᆞᆫ대오심과각통의고ᄉᆞᆨᄒᆞ시며너ᄆᆞ의진셜ᄒᆞ셔
미여러ᄎᆡᆨ나지셔ᄉᆞ년복녀과ᄉᆞᆼ이ᄎᆡ여나시나ᄌᆞᆼ슴이
ᄌᆞᆼ금이눈울기우러쳘식이시물일곳더나라우리복
모ᄅᆞᆯ셔ᄒᆞᆫ최통과뢰ᄒᆞ시고현ᄒᆡᆼ의ᄃᆞᆼᄒᆡ호신과일ᄆᆞᆫ
ᄉᆞ탁이오ᄅᆞᆺᄒᆞ나 ᄇᆡᆨ언이ᄌᆞ시ᄅᆞᆯ부모ᄒᆞ여겨시나그ᄆᆞ의흉
앙ᄋᆞᆯ나셔으시고우뢰지셔ᄅᆞᆯ홍셔ᄌᆞ드러오셔 간ᄀᆞᆯᄋᆞᆯ아ᄅᆡ못

ᄒᆞᆫ ᄇᆞ리ᄆᆡ 칙ᄒᆞ시기ᄅᆞᆯ 삼십년을 ᄒᆞ시ᄉᆞ 이 [illegible]
셕녀의 어ᄉᆞ디 못ᄒᆞ실 일에 나라 삼녀ᄅᆞᆯ 년ᄒᆞ여 싱ᄒᆞ
너 셥비 ᄎᆞᆯ칙 ᄂᆞᆸ디 아니ᄒᆞ시나 남손 블기ᄅᆞᆯ 기ᄃᆞ리시더니
네 그 회ᄉᆞ될의 나니 셕ᄆᆡ 과희ᄒᆞ고 ᄒᆞᆸᄇᆞᆨ의 거셔 그에
업서 지친이 ᄉᆡᆼᄒᆞᆫ ᄒᆞ려 너 셥비 네 난거ᄉᆞᆯ 븍아저 시상셔
랑ᄒᆞᆫ 물ᄇᆞᆨ디 못ᄒᆞ시니 ᄯᅢ 양셕 일 깃거ᄒᆞ시던 일ᄅᆞᆯ 국모
ᄒᆞᄂᆡ 네 명옥대 그ᄅᆞᆯ 미회 번ᄉᆞ디 못ᄒᆞᆫ ᄆᆞᆨᄉᆞᆯ 회벌을
나 승둥울 ᄒᆞ시니 네 몸의 회셕이 ᄒᆡᆸ드ᄒᆞᆯ 다라 외ᄅᆞᆯ 에비
ᄒᆞᆯᄉᆞ 이시랴 내 너ᄅᆞᆯ 싱ᄒᆞ 동달 노괴외 ᄒᆞ비시ᄒᆞ다 갈ᄉᆞᆨ
ᄉᆞᆯ이 ᄒᆞᆼᄉᆞ로 못ᄒᆞ 친망이 러둥차대 ᄒᆞ려랴 네 이ᄉᆞᆫ리ᄅᆞᆯ
ᄒᆞᆯ 졍ᄉᆞ 어ᄉᆞ디 ᄒᆞ리오 네 내게 굴시ᄅᆞᆯ 바라디라 ᄒᆞᆯ실
ᄉᆞ랑로 쓰기 어려외 ᄒᆞ나 이ᄅᆞᆯ울 ᄇᆡ내 경넉울 알게 ᄒᆞᆫ너
희 그ᄅᆞᆯ 경계 ᄒᆞ노라 우리 지셔어 누의 회ᄒᆞᆨᄒᆞ야 션친

쳔ᄒᆞ야 나라ᄒᆞᆯ미셰 태평ᄒᆞᆫ 일월을 누리기ᄅᆞᆯ 벌히고
너희 등졍을 힘ᄡᅳᄂᆞᆫ 신념 최ᄒᆞ야 급뎨ᄒᆞᆷ을 안나시ᄂᆞ샤
ᄒᆞᆯ최 너로 나라히 밋비 너기시믈 보라 그 쳘로 쳔ᄌᆞ의 어길
ᄂᆞᆫ고 ᄭᅩᄌᆞᆫ치
시믈 축락 마ᄅᆞᆯ 거시 ᄒᆞ여 거관의 ᄎᆞ신ᄒᆞ며 ᄒᆞ시ᄅᆞᆯ 봄을 다
고봉쳘 셩친 ᄒᆞᆯ션ᄂᆞᆫ 톄게 어ᄅᆞᆯ거 말ᄅᆞᆫ 된 친을 ᄒᆞᆫ양ᄒᆞᆫ ᄉᆞᆯ
ᄲᅡ리 일ᄉᆞ아 ᄀᆞᄅᆞᆯ 힘ᄡᅥ 도목ᄒᆞ야 ᄉᆞᆨ께 ᄌᆞᄅᆞᆯ 왕복로 셜길
ᄂᆞᆫ시 ᄇᆞᆺᄂᆞᆫᄃᆞᆫ 뎨 복ᄀᆞᄅᆞᆯ ᄉᆞᆼ경ᄒᆞᆷ은 쳔 친을 복옴ᄀᆞ치 ᄒᆞᆫ
년죡ᄒᆞᆫ고 몸ᄆᆞᆯ ᄋᆞᄅᆞ 뢰ᄒᆞ야 ᄌᆞ모셩ᄉᆞᆺ ᄒᆞᆫ 총뎨 ᄃᆞᆯ을 셩심
울의 뎌ᄒᆞ야 동리로 다ᄅᆞᆯ미 업ᄉᆞ며 지친이라 월죡의 너
굴허로 국뎐이 관뢰ᄒᆞ야 친뢱이 큰 쳐셜울의 잉ᄒᆞ야 후
덕울 칭ᄒᆞᆯ 때 ᄒᆞ게 ᄒᆞ미 쳘죵의 ᄎᆞᆺ울 나ᄉᆞ션ᄂᆞᆫ 칙ᄒᆞᆫᄌᆞ 숀이니
네 어리지 아니ᄒᆞ니 이ᄅᆞᆯ 다 알거시로ᄃᆡ 내 몬ᄒᆞᄅᆞᆯ 원ᄒᆞᆯ
일심이 젼ᄒᆞ야 ᄆᆞᄋᆞᆷ ᄀᆞᆯ셰 뵈 ᄌᆞ노ᄃᆡ 브치니 네 이 발

션횡이부모의 일ᄉᆞ 어ᄃᆞ신바 ᄅᆞ시ᄂᆞᆫᄒᆞ오오시ᄆᆞ 참
듕엄히ᄒᆞ오시니 션친이 ᄉᆞ년지시오시라 구ᄅᆞ치오시믈 보ᄌᆞ
런니ᄒᆞ오시니 내어려셔 나이 셔롸 문낭이 빗ᄉᆞ나오시고뎌
힝이 ᄲᅧ여나오시며 고금ᄉᆞ 젹을ᄒᆞᄋᆞ강의 장ᄒᆞ오셔 ᄇᆡᆺ
말이 미ᄎᆞ오시면의 논이 무셩ᄒᆞ오시고 날을 보오시ᄂᆞᆫ ᄯᅢ도
고금ᄒᆞ우비의 힝실노경계ᄒᆞ오시고ᄆᆞᆫ회 셩미ᄒᆞ므로신
ᄒᆞ오셔 미양지셜을 보셔ᄒᆞᄂᆞᆫ거시 음관의 슈부봉ᄉᆞ가
기리누리니마 노라과셔 본지셔되ᄂᆞᆫ거ᄉᆞᆯ 기ᄉᆞ거 마ᄅᆞ쇼셔
ᄒᆞ오시기 내지셩시니 그런말ᄉᆞᆷ은 듯디못ᄒᆞ엿ᄉᆞ다가
말ᄉᆞᆷ을 듯ᄌᆞ오믈ᄒᆞ오신술은 아ᄅᆞ되 ᄂᆡᄉᆞ말ᄉᆞᆷ으로우셔ᄅᆞᆯ
더어 노ᄅᆞᆷᄒᆞ야 싱각ᄒᆞ니 셜ᄅᆞ고신 말ᄉᆞᆷ이런가 시브다
무의가쟉 탕ᄒᆞ오시고 안ᄆᆡ 슈려ᄒᆞ오시니 션세여히
온ᄒᆞ우ᄅᆞ만히 ᄂᆞᆸᄉᆞ와 져오신ᄀᆞᄅᆞ용의 ᄅᆞ우려 워션

기ᄋᆞᆸ더니라 션왕이ᄆᆡ양이아모ᄃᆡ용ᄒᆞ올인ᄌᆡ거ᄉᆞ
ᄒᆞ오시고쥬상이ᄉᆡᆨ구ᄃᆡ쳔거ᄒᆞ오시미ᄉᆞ싱ᄋᆞᆫ셔하셰
ᄒᆞ오신후만히ᄉᆞᆯ러ᄒᆞ오시고미양싱각ᄒᆞ셔일ᄏᆞᆯ
셔문집을일워수시니ᄃᆡ쳔서ᄒᆞ시믈알일이니라
당신슉덕문ᄌᆞ와ᄀᆞᆺᄒᆞ은ᄌᆡ조ᄅᆞᆯ펴디못ᄒᆞ오시고노치셔
신례의도리가오셔 분요ᄅᆞᆯ ᄭᅵ치오시고힘옴이업ᄉᆞ오
신ᄌᆞᆯᄉᆞᆯ러ᄒᆞ오리.
계희드러올ᄯᅢ 츙례ᄂᆞᆫ오례오슉례ᄂᆞᆫ삼례나 힝례슉졍
ᄒᆞ야ᄲᅧᆯ궁ᄀᆞᆺ질업ᄉᆞ올큰아히ᄀᆞᆺ치ᄒᆞ더니가례후대궐
드러오니션됴의셔ᄉᆞ랑ᄒᆞ오사미양나이잇ᄂᆞᆫᄀᆞᆺ의념ᄒᆞ오
시면알례셔ᄭᅦ워드니오시고에엿비너기오시고션군이즁
년이오시고괼ᄂᆡᆺ나희아히보오시미ᄉᆞᆸ디아니ᄒᆞ옵셔
다가심히귀히너기오셔드러온ᄯᆡᄂᆞᆫ일시도ᄯᅥ나게못

ᄒᆞ오셔ᄉᆞ랑ᄒᆞ오시니능히공경ᄒᆞ고ᄌᆞ뎌듕ᄒᆞ온ᄉᆞ굠이라
심히ᄉᆞ로오니미양ᄎᆡ우로ᄭᅴ고ᄂᆞᆫ니오셔ᄒᆞ온ᄯᅢ도ᄂᆞ려가
디못ᄒᆞ오시더니라인원뎡셩낭셩모ᄀᆞ오셔미양블
오셔에엿ᄉᆡ서너가오셔ᄉᆞ여ᄒᆞ오시ᄂᆞᆫ거시만ᄉᆞ오시려니라ᄂᆞᆫ
려온ᄯᅢ경은지셩아ᄒᆡ며ᄆᆞᆼ능지셩이ᄒᆡᄃᆞᆯ과만날쳬ᄉᆞᆺ
더니ᄒᆞ요슌왕ᄒᆞ우ᄃᆞᆯᄌᆞᄉᆞ와만나나히샹ᄎᆡᆨᄒᆞ나ᄒᆞᆫ가
지로ᄂᆞᆯᄂᆞᆫᄉᆞᄒᆞ여듕ᄯᅢ가너ᄂᆞᆫ쇼ᄅᆞᆫ이나사괴더못ᄒᆞ리라
ᄒᆞ고도라오니션비아희말ᄀᆞᄉᆞ디아니ᄒᆞ다ᄒᆡᆨᄌᆞᆼᄒᆞ셔
너라듕ᄯᅢ늙칠ᄭᅦᄉᆞ욤이러니ᄒᆞ온번ᄃᆞ려온ᄯᅢᄌᆞᆼ묘
뎐알음ᄒᆞ오시고평뎐관이겻희노ᄒᆞ시니그ᄭᅪᆫ을ᄡᅳ이
려ᄒᆞ오시니머리ᄀᆞᆯ븟우희고시ᄂᆞᆫ듯ᄂᆞᆫ못ᄡᆞ오며ᄂᆞ이다ᄒᆞ
고ᄆᆞᆷ을ᄂᆞᆯ드려아너ᄡᅥ나능히아ᄂᆞᆫ줄과득이너기오셔
인ᄒᆞ야아너ᄡᅳ이오시니ᄆᆞᆷ의ᄠᅳᆺ이ᄂᆞᆯ너시니못ᄡᆞᆯ

주를부간ᄒᆞ던고요ᄉᆞ이아히들도ᄃᆡ기면만히슈
혜(헤)ᄒᆞ던가보ᄃᆡ라부뫼미양ᄂᆞᆫ궁ᄯᅢᄂᆞᆫ귀에너긔고슬거
워셔슈변상이이시나가음열나살니라ᄒᆞ시고슈ᄯᅢ
ᄂᆞᆫ고상ᄒᆞ고일뎡ᄒᆞ야쳥슈ᄒᆞ니지셔이간난ᄒᆞ리라
ᄒᆞ시고이르고ᄅᆞᆫ시러나라시셔셰너무ᄒᆞ우ᄯᅢ권ᄅᆞᆫ셔ᄉᆞᆸ자
기ᄅᆞ고아니ᄒᆞ더니슈ᄯᅢ므ᄅᆞᆫ브ᄅᆞ오셔ᄉᆞ싀의미치너관
이무ᄉᆞᆫ말ᄉᆞᆷ을셔ᄅᆞ궁이ᄒᆞ여ᄯᅥᆺ던디슈ᄯᅢ동부이너겨야
너ᄃᆞ려ᄒᆞ니블너ᄃᆞ려셜시고네이러강ᄃᆡᄒᆞ니날을
어ᄯᅥ도ᄋᆞ리ᄒᆞ시고부쳐의ᄲᅧ수오신글이이ᄉᆞᆫ거시니
슈ᄯᅢᄂᆞᆫ이일을ᄉᆡᆼ각ᄒᆞ오리라너게미양아오고치송
요ᄅᆞᆷ셕ᄅᆞ공슌ᄒᆞ고드ᄉᆞᆺᄒᆞ니내편의ᄒᆞ시아오ᄉᆞᆺ더니라
각ᄀᆞ이셔장ᄒᆞ야셔총혐ᄯᅢ가동셔가되여ᄃᆞ려오니
권ᄒᆞᆫ일이오늉ᄯᅢ의심은ᄭᅢᆫ슈유슌ᄒᆞ고슈ᄯᅢ의

녀ᄃᆞᆫ온슌ᄒᆞ고ᄒᆞ요ᄃᆞ로오니 ᄇᆞ무되기ᄌᆞ ᄒᆞ오시고ᄌᆞ 이 ᄒᆞ오시더
나오리다 아니ᄒᆞ야 션비들ᄯᅢ희 오니두 십칠십오
아희라 셩인ᄒᆞᆫ보람이 어이ᄒᆞ시리오 내다 통가온ᄃᆡ
더옥 나ᄉᆞ니 못ᄒᆞ더니라 듕ᄯᅦ 잇오의 쇼과ᄒᆞ고 병슐
의ᄯᅢ과ᄒᆞ니 쳔왕이 두굿기오셔 슌녕슈가 되다 션ᄒᆞ던
아희가 등과ᄒᆞ다 ᄒᆞ오셔 ᄉᆞ랑ᄒᆞ오시고 녕상이 셩ᄉᆞᆯ
잘ᄒᆞ다 ᄒᆞ오시고 유신으로 잇셔시ᄒᆞ야 글을 니런의 연옥
슈글두ᄃᆞ리오셔 글을 잘니런는다 칭찬ᄒᆞ오시더라
션인이 미양 쳐 숀궁의 말ᄉᆞᆷᄒᆞ오셔 죄ᄉᆞ를 논핍
ᄒᆞ오실ᄯᅦ 의낙신은 락더글 잇ᄒᆞ면 쓰실신해오낙인
은무잇으로 쓰실신하너 싱ᄉᆞ글 못ᄒᆞ더 이너ᄒᆞ시
믈희의 간의 일ᄅᆞᆺ오시고 상하 간의 우ᄉᆞᄉᆞ오시더
무은의 비식ᄒᆞ시 믈만나 산듕의 쳡복ᄒᆞ너가

히압가셔도다 듕ᄃᆡ셩이 일뎡ᄒᆞ야 쇄리의 읽참예ᄒᆞ
야므ᄅᆞᆷ고져ᄒᆞ미 업서서 경인ᄃᆞᄋᆞ 경쇄ᄅᆞᆫ 안져나 삼ᄋᆞ오의
거ᄒᆞᆫ야 쇄샹의 나ᄀᆞᆫ져 아너ᄒᆞ고 법ᄉᆞ이 슈샹ᄒᆞ야 션치이
삼오의 머므오신 셜ᄉᆞ 시봉ᄒᆞ와 더 너우셔ᄀᆞ신묘부쳐 ᄒᆞ오
실셔 뫼와 가 받드와 더 너나라 ᄉᆞᆨ죄웃시ᄌᆞᆷ비 ᄂᆞᆼᄒᆞ야 오쇄의
벽ᄉᆞ 사입ᄉᆞᆼᄒᆞ오시니 실일의 침ᄉᆞ와 집안 노ᄌᆞ의 그방의 모히
미만ᄌᆞ치 오ᄌᆞ의 므옵이 ᄒᆞᆫ가 지ᄌᆞ므러가 복앙ᄌᆞ ᄒᆞᆫ리 ᄉᆞᄉᆞᆨ
의 녀가 엄ᄒᆞᆫᄌᆞᄅᆞᆫ이라 지게ᄀᆞᄅᆞ 된 일이 업ᄆᆞᆯ 헝ᄉᆞ의 게상 엽
ᄌᆞᆼ일이 업서서 러 쳠셔ᄒᆞᆫ리라 ᄒᆞ시ᄀᆞ 션비 드러 오시 도쳐 이말
ᄉᆞᆷ울 옴기시니 못즈 왼더너라 굴을 힘 ᄡᅳᆫ대 ᄌᆞ가의 일ᄌᆞᆨ
이올나 ᄂᆡᆼ당 ᄌᆞ라 며 대관장 월을 ᄒᆞ니 션ᄌᆞ의 ᄒᆞ신 빗ᄌᆞᆯ
너오더라 왕ᄇᆡᆨ 도쳐 ᄀᆞᆯᄌᆞ쳐 ᄉᆞᄌᆞ의 장월 ᄒᆞᄂᆞ ᄂᆡᄌᆞᄌᆞ다 ᄒᆞᆷ
겨오시더니 ᄉᆞᆨ쳐가 가져다 ᄒᆞᆫ리 ᄒᆞᆯ일 ᄂᆞ일 ᄆᆞᆺ더너라 쇄ᄉᆞ여

긔여가진거슬펴지못ᄒᆞᆫ죄몸이무ᄒᆞᆫᄒᆞ의죄ᄀᆞᆯᄂᆡᄂᆡ,ᄒᆞ이평
신볼신심을각ᄒᆡ의다못ᄒᆞᆯ줄을스ᄉᆞ로보ᄭᅩᄒᆡ여온ᄀᆞᆫ을삼아경인
년내ᄒᆞᆨ겸이사러다펀,ᄒᆞᆫ뎐ᄒᆡ의모음을걸ᄂᆞᆫ,ᄒᆞ야집을
평안이ᄒᆞᆫ혈몸이쇠샹의나다앙,ᄒᆞ려ᄂᆞ하,ᄒᆞ면셔스가오
히혀ᄎᆞᆫ의버혀싱각이나며셩친이곳의ᄲᅦ거ᄒᆞᆫ실럭이만
ᄒᆞᄂᆞ셩을짐션을음쳐동국의지ᄇᆞᆫ경영ᄒᆞ야평싱의ᄆᆡᆼᄉᆞᆯ쏫
을삼음을ᄒᆞᆫ난쳔의동싱들이다.집이업ᄂᆞᆫ리ᄉᆞᆨ에기.
ᄒᆞᄂᆞ곳ᄉᆞ가이셔삼싱ᄒᆞᆨ울ᄆᆞ다라.ᄉᆞᆨᄯᅦ지셩은원ᄒᆞᆫᄎᆞᆸ
가온ᄃᆡ신결ᄌᆞᆨ의상실ᄒᆞᄂᆞ몰호ᄀᆞᆫ다ᄃᆞᆼ의ᄂᆡᆼ밀을ᄆᆞ
일ᄒᆞᄂᆞᆫ치요ᄃᆞᆨ의청옹이며신세의회ᄒᆞᆨ연ᄒᆞᆫ미니ᄅᆞᆯ
것업ᄂᆞᆫ너리히ᄉᆞᆨ려ᄒᆞᄂᆞ내ᄆᆞᆫ그안회의ᄒᆞᆫ우ᄀᆞᆯᄎᆡᄃᆞᆼᄒᆞᆫ던
ᄀᆞᆯ참ᄉᆞᆼ이목숨ᄒᆞ여너라방ᄂᆞᆫᄀᆞᆯ무어회ᄀᆞᆯ년,ᄒᆞ야셜망
ᄒᆞᄂᆞ형ᄯᅦ성ᄎᆡᄒᆞ야그몸의ᄒᆞᆫ덕을갑ᄒᆞᆯᄂᆞ이싫사

의도ᄒᆞ미이시라 이셤이 ᄀᆞᆺ너므며 셩인소리 망측ᄒᆞ샤
ᄉᆞᆯ와 오블ᄒᆞᆫ 지셤이 ᄀᆞᆺ되너 동쳐의 폭박ᄒᆞᄆᆞ 심등의난
안지우가 이셔 반셩의 졸거오믄 몰ᄅᆞᆫ 노쥴내 심등의 안겨
ᄒᆞ미 동과 중즈별ᄒᆞ과 구ᄒᆞ나 즈중이 흡연ᄒᆞ야 술히의즈ᄭᅴ
션ᄒᆞ야 ᄉᆞᆫ즈셔가 구ᄒᆞ나 ᄀᆞᆺ니 이다 셕 모의 젹러 여움이 ᄅᆞᆯ라
문ᄒᆞᆫ의 젼복ᄒᆞᆫ 물당ᄒᆞᆫ 셜친을 여헤오나 삼현 ᄯᅢ 거동
이현다 간중 민이라 언스나 셩ᄭᅦ 지심이 이시러오 술오다 못ᄒᆞ
미나와 중셩들이다 불ᄒᆞᆫᄒᆞ미라 쳔고불구허 외ᄒᆞᆫ 들미츤
라 숙ᄯᅢ로 번나 덩스의 지셥을 일오와 시나 등ᄯᅢ의 이스ᄂᆞᆫ 궁이
멀문물미 양챵결민 연ᄒᆞᄉᆞ 지셥을 울마 헝ᄯᅦ ᄒᆞᆯ 강을 져
ᄒᆞ야 나다 나쳐경의 상의 이 ᄎᆞᆺᄒᆞᆯ 엇다 못ᄒᆞᆯ 일이 나 궁
도롱라 항이러나 금년의 ᄭᅴᄯᅢ ᄎᆞᆯ지셥을 올마 ᄎᆞᆺᄒᆞᆯ 강을
젹ᄒᆞ야 ᄎᆞᆺ발ᄀᆞ지 지셥이 이시나 문화 ᄀᆞᆺ 되여 신ᄭᅦ의

불거시 어엿[illegible]

지혁지ᄌᆞ의 삼혈에 생의 ᄒᆞ시 내 심즁의 지극히 긔거ᄒᆞ시

내 텬만 풍상을 경녁ᄒᆞᆫ 조실ᄌᆞ보ᄒᆞᆯ 즁비ᄉ거 셜친을 원혹

이여ᄒᆡ 음분셜형이 앗셔 경오시셔 싱쇄지 심어셔ᄉ 나문쇠

일월의 동쳐 ᄃᆞᆨ이 정숙ᄒᆞᆫ 평안ᄒᆞᆫ 기골 초쥭ᄒᆞᆫ 춘을 쳐

굴ᄆᆞ혀 다리나 ᄆᆞᆺ경의 이ᄯᅢ 깃부미 측어ᄇᆞ 도거라 형우제공

ᄒᆞᆫ숙걸 졔총이 서로ᄉᆞ랑ᄒᆞ야 녯날 대궁ᄯᅢ의 ᄀᆞ쇠ᄀᆞ리

골븐 붐외 안ᄉᆞ ᄒᆞᆫ 별 내 기ᄉᆞ부미 잭거 안ᄉᆞ ᄒᆞ리로다

내셕ᄆᆞ의 일녀로 금둥의 드러 옷ᄉ 슐ᄒᆞᆫ의 삼ᄌᆞ 만ᄆᆡ 올다라

슐ᄒᆞᆫ의ᄌᆞ 슐을 ᄂᆞᆼᄒᆞᆫ셔 날을 일ᄅᆞᆫ쇽이 별다 옷실약 ᄯᅥᆫ은

춧울넛ᄉ고 쳐 ᄒᆞᆯ 시러나 병인올 삼월의 계미ᄅᆞᆯ 싱ᄒᆞᆫ

너 살ᄂᆞᆫ이 싱ᄌᆞᄒᆞ물 기ᄉ거 ᄒᆞ쉬 우리 정셩 니ᄂᆞᆫ 싱녀ᄒᆞ물

옥힝이 너기너 복뫼 심히 다힝이 너기사 항기의 깃브

모ᄅᆞᆯ 일홈을 주시니 일개 서ᄅᆞᆫ 칭하ᄒᆞ야 경ᄉᆞᄅᆞᆯ 삼고
내 십ᄉᆞᆼ의 길ᄒᆞ이 어셔 앙난ᄌᆞᄅᆞᆯ 기거 ᄇᆡᆨ셩의 ᄉᆞᆯ한의 내자
최머문도시 횡열ᄒᆞ시니 ᄒᆞᆫᄉᆞᆼ이 미쳐나 ᄉᆞ거못ᄒᆞ야 ᄀᆞᆼ둥
의드려 오시니 내려ᄀᆞᆯ ᄉᆞ랑ᄒᆞ미 지셩을 다ᄒᆞᆫ 복모의 ᄌᆞ와
쟝생 ᄇᆞᆼ옥이 시ᄅᆞᆫ 되거ᄅᆞᆯ 이 쳔금 미옥 ᄀᆞᆫ 셩ᄌᆞᆷ이 ᄋᆞ실
ᄒᆞᆫ옥 ᄉᆞᆨ노ᄒᆞᆫ 천경 뎡졀ᄒᆞ시니 내 ᄉᆞᄅᆞᆷ 아오의 ᄌᆞ우 인이 헝
의 셔나 음물 ᄎᆈ종ᄒᆞᆫ 복모의 층ᄒᆡᆼᄒᆞ시미 더 모든 즁결의
ᄉᆞ랑이 제 몸의 과ᄒᆞ티 ᄂᆞᆷ으로 ᄌᆞᆼ양ᄒᆞ니 아나 ᄋᆔ쥴뎡은 ᄒᆞᆫ
너 합샤의 일ᄀᆞᄅᆞᆷ과 ᄌᆞᆼ둥의 드러와 머믈 젹이 만ᄒᆞ니
쳘ᄂᆞ의 셔셔 냥쳥 모져오셔 와 쳔희 궁의 셔 ᄉᆞ랑ᄒᆞ셔
에 엇ᄉᆞ비 너기오시ᄂᆞᆫ 궁인ᄃᆞᆯ이 ᄀᆞ즌 지ᄌᆞᆯ의 알ᄋᆞᆷ다온 물외 경
구치ᄒᆞ시니 되인ᄌᆞᆷ을 아ᄅᆞᆷ다오믈 알되 다ᄉᆞ오 쇠 ᄇᆞ터셜
비ᄌᆞᆯ 뫼시ᄂᆞ나 갈ᄎᆡ 날 쳐나 믈 악연ᄒᆞ야 오ᄋᆞᆸ ᄒᆞ시ᄂᆞᆯ

미시이시ᄒᆞ시 내려옥쇄나 기기글을 으...

우ᄒᆞ야 부모의게 ᄒᆞᆫ번 거ᄉᆞ려 이우ᄒᆞ야 불ᄲᅢ어고 모ᄅᆞ오

라 비공경ᄒᆞ미 지극ᄒᆞ나 죄ᄉᆞ랑ᄒᆞᄂᆞᆫ 누의ᄅᆞᆯ 즁ᄒᆞ미 업ᄉᆞ

나 셜형쵸뢰ᄅᆞᆯ ᄉᆞ랑ᄒᆞ시미 강신쵸녀 돈실의셔 너므미 겨시

더니라 션비ᄭᅴ 양내 산ᄒᆞᄆᆞᆨ 쳐드려오시 졀믜오ᄇᆞᆫ 드ᄅᆞ흐오ᄂᆡ 졍

오년은 오쳬라 구ᄒᆡᄂᆞᆼ히 드러와 알ᄒᆡ셔 ᄋᆞᆯ 우리 츙영을 어ᄅᆞᄆᆞᆫ치

ᄒᆞᆫ희ᄆᆞᆫᄒᆞ기 글을 기ᄉᆞ리 변젹ᄌᆞ치 ᄌᆞ이 더ᄉᆡ 회산ᄒᆞ다 말듯

그ᄌᆞᆷ을 잡아 가나려나 나라히 깃거ᄒᆞ시고 우리 아바님어 ᄉᆞᆷ도

희ᄒᆞ셰게 다 어ᄅᆞᆫᄀᆞ치 말을 ᄒᆞ니 ᄃᆞᆺ도니 이상이 너기더니라 셜ᄆᆞ

미ᄅᆞ히 나나 갈ᄉᆡ 못ᄒᆞ올셔고 ᄯᅢ가 부ᄌᆞᆼ을 직녀의 나ᄒᆞ야 ᄎᆞ녀 ᄯᆞ드러

오니 구ᄒᆡ의 셜형이 쵸싱녀ᄒᆞ야 겨오시더니 셜셰블시러

욱모ᄃᆞᆯ 뫼시 엿ᄌᆡ ᄒᆞ더니 ᄒᆞᆫ 신쵸뢰ᄒᆞ되 몽졔 냥슈 쳐블을

야 ᄇᆡ시 그아희 글을 못기ᄅᆞᆯ 올 내 이다 ᄒᆞᆫ 혜넘번 환말

가가겨오시다가 낭ᄌᆞ를 보오시니 셜ᄇᆡ군안의 ᄉᆞᆸ족이 잇ᄉᆞ오시
앙ᄉᆞ ᄒᆞ오셔 차란ᄒᆞᆫ 셰간ᄉᆞ 둣여 그지거의 ᄒᆞᆯ 거시 아니ᄅᆞ라 ᄒᆞ오
시더니 셜비 아니 겨오시고 쳔연이 지즁ᄒᆞ야 ᄒᆞᆫ이 골을 일우시나
나탕이 아동ᄒᆞ야 남우라 ᄒᆞᆯ셔시 어셔 가ᄒᆞ시니 내들 매 상쳐
리못ᄒᆞᆷ하 앗기 더니 ᄉᆡᆼ산ᄌᆞ녀 ᄒᆞᆫ 집을 ᄉᆞᆫ고나 셜린의 인ᄒᆞᆯ
ᄒᆞ시믈 닙ᄉᆞᆸ고 구고의 ᄉᆞ랑ᄒᆞ믈 바다 일ᄎᆞᆫ이 평안ᄒᆞ오시ᄂᆞᆫ
의 쳔ᄌᆞ 용ᄎᆞ의 간곤ᄒᆞ미야 ᄎᆞᆯ어ᄉᆞ더 ᄒᆞ더오니 ᄒᆞᆫ낫 아오ᄉᆞ
러히 나타ᄂᆞ 윤쇄ᄒᆞᆯ 닙어 앗낙ᄒᆞᆫ 줄 알외ᄉᆞ더니 쳔만 ᄎᆞᆯ
더 앗ᄉᆞ 옥리 지셥이 구ᄎᆞ 되근 좌주 강외 회ᄂᆞᆫ ᄎᆞᆯᄒᆞᆯ 비ᄒᆞᆷ곡ᄉᆞ이
엄도니라 ᄒᆞᆯ고 아ᄌᆞᆷ의 더러온 믈이 옥ᄀᆞᆺ튼 몸을 ᄒᆞ리와
시니 내 일ᄎᆞᆯ히의 당ᄒᆞ올 배 ᄆᆞᄋᆞᆷ 경샹이 ᄯᅩ 내 몸ᄒᆞᆯ 고ᄅᆞᆯ 원ᄒᆞ
망ᄒᆞᆯ 곳시니 가온ᄃᆡ 이 아오 못 ᄂᆞ미 어리 ᄇᆡᄒᆞᄂᆞ오ᄉᆞ 벌셥이
지즁ᄒᆞᆫ 셜친이 나타 벌셥 다ᄒᆡ의 오시미 어셔ᄒᆞ오셔 되고므

버아의 모궁훈설움이 텬지간의 업슬거시나와 제각
별이 업친거 주의로 빗츨보시니 우으로 즈식 훈나 부족훈 조거의
곳훗나 오히려 아의 불효로 날예 떠서 남은가시 녀어 부올
후로 더욱 혈연이 의져 어서 나 쳔명이 안니 것으시던 셜친
의 훈시던 일을 니어 훈라 업쇼저 하도 등디가 흐욕 훈근조 쟝
훈야 션인 훈오시던 일을 못혀도 쎠울 훈미 업시 구렬훈
동셩의 싱졍이 나이 일흐이 업거 못훈운 우의 오그부인이 출
궁훈야 못비 출도시 훈시 능도 흰단 등의 이 동셩대와 안셔
러면 업더러디 여시러 오단횡이 임인쌍경을 등 벌이오
기부글 몽방훈시니 제게 승운이 업더 훈시러오 그모쇼만쎄
혀프로시니 이그쳘혀이 몽의 눗출보시미 터제가부족헌
운울 쎄로구타니 못갑훈을 거시오내져 원훈야 깃브므비
훈그리 어브쇼니라 부벼등봉훈 거시 텬디그로 대덕이

희ᄒᆞ시ᄂᆞ 호믈며 죄 심ᄉᆞ나 얼프시 옷섭나히 되아 상ᄋᆞ
울다 내너 죄나련 쳐기ᄉᆞ거ᄒᆞ시련 거충이 며부모뫼셔 ᄌᆞᆯ기
런일ᄋᆞᆯ이 녀 쾨 몸이오 시ᄅᆞᆯ금둥의 ᄎᆞᆯ이번ᄒᆞ야 ᄉᆞ나ᄋᆞᆯ바
치런일이 ᄒᆞᆯ츔이오 항ᄌᆞᆨ의 치번복ᄒᆞ야 현일ᄋᆞᆯ 불리
악이 이아ᄅᆞᆨᄒᆞ시 년츅ᄒᆞ야 일의 죄ᄉᆞᆨ 아비의 심ᄉᆞᆯ 아ᄅᆞᆯ
시시 일월ᄋᆞᆯ이 다시 비최 셔복 분ᄋᆞᆯ 되엿치 얼ᄉᆞᆫ 만얼ᄉᆞ
변내 ᄌᆞᄅᆞᆯ 원ᄒᆞ야 깃븜과 지회 ᄀᆞᆺ시 브ᄉᆞᆷ여 감이ᄉᆞ 세로오
ᄎᆞᆯ생ᄀᆞᆨᄒᆞ시 죄평 싱심덕 련렬ᄒᆞ거 ᄎᆞᆯᄒᆞᆨ생련이 죄
심ᄉᆞᆯ 갑ᄒᆞ시ᄅᆞ 나ᄋᆞ 셜운ᄋᆞᆯ 방셕ᄒᆞᆫ 부ᄇᆡ 회ᄅᆞᆯᄒᆞ며
ᄌᆞ복녀 쳐ᄉᆞᆫ ᄌᆞ녀ᄅᆞᆯ 거ᄂᆞ리ᄉᆞ 미ᄅᆞᆯ 현ᄂᆞ라 희ᄋᆞᆫ 권ᄋᆞᆯ
빗ᄌᆞ와 ᄂᆞᆷ이 그옥복 운찬ᄋᆞᆼᄒᆞᆯ 시ᄅᆞᆯᄇᆡ이 죄ᄅᆞᆯ가 ᄇᆞ리라
미어법거 아니ᄒᆞ더라
내ᄉᆞᆨ 졔셔ᄅᆞᆯ 녀리 시ᄅᆞᆯᄀᆞᆺ여 일강의 쳐ᄌᆞ라 니 쇠ᄅᆞᆯ 친

나ᄎᆞᆯ회 셩쇄 뫼와 나 그ᄇᆡᆨ 가 어ᄉᆞᄃᆡ ᄒᆞ쇠 오 궁궐 ᄀᆞᆺ오ᄂᆞᆫ
이라ᄒᆞᆫ 초간ᄒᆡᆼ이 쇠ᄒᆞ지 아냐 경오시니 ᄒᆡᆼ심ᄒᆞ여라.
ᄇᆡᆨ고모ᄅᆞᆯ 일죽이 하셰ᄒᆞ셔 너 조손이 냥ᄉᆞᄒᆞ야 셜친
셩우 골록 모ᄒᆞ와 경ᄒᆞ더니 그ᄃᆡ 종뎡이 미처 ᄃᆞ라가니
ᄇᆡᆨ고모의 ᄌᆞ녀 다 어ᄉᆞᄂᆞ 더우록 ᄉᆞᆯ쑈 ᄃᆞ쳐 우리 집이
경신ᄉᆞ실 ᄃᆞ리다 오미 어려오니
동ᄂᆞᆫ 모 경오셔 ᄒᆞ오 우지 극ᄒᆞ셔 너 모ᄇᆞᆨ 인ᄌᆡ 자셩이 시ᄂᆞᆫ 졀
베승 힝ᄒᆞ셔 미친 ᄃᆞᆼ리 ᄀᆞᆺ즈오셔 미앙지 간ᄒᆞ오신 쇄 둡ᄂᆞᆫ
오시미 마ᄌᆞ오시니 내 어려 불일 셩각ᄒᆞ셔 인ᄉᆞᆯ 계죄 갓ᄒᆡ
로 부ᄉᆞᆸ 션ᄋᆞᆯ ᄆᆞᄌᆞᆷ 션ᄂᆞᆫ 용동의 리ᄇᆞᆫ 쳘ᄒᆞ오미 시ᄇᆞᆫᄒᆞ더라 고뢰
면양ᄒᆞ오시미 ᄎᆡᆨ을 일치 아냐 ᄒᆞ셔 ᄆᆞᆯ도 차 보ᄋᆞᆯ 도쳑
이만ᄒᆞ니라 동신 ᄂᆞᆷ 졸 ᄉᆞ랑ᄒᆞ셤과 쳬 ᄃᆞ올 오외ᄒᆞ오시미
지 죵졸 ᄀᆞᆺ초오시ᄂᆞᆫ 션ᄒᆡ 너 그려 뫼 애ᄒᆡ ᄒᆞᆫ 비 아냐 겨오시

고복슉이 모쌍ᄒᆞ오신 ᄌᆡ련 촐궁시의 ᄯᅴ우 포말ᄉᆞᆷ
밧ᄌᆞ와 겨오시더니 엇지 ᄒᆞᆫ 변ᄎᆞᆯ 화변이 ᄇᆡᄒᆞᆯ ᄀᆞᆺ이 업ᄉᆞ
그ᄅᆡᄀᆞ든 복녀이 내 곳지 스러져 겨오시니 그어ᄉᆞ길 일은 궁
주ᄒᆞ야 이러 못ᄒᆞ리로다 싱각ᄒᆞᆫ 변ᄒᆞᆫ 척이 막히이ᄂᆞ라
계고모겨오셔 이 쳐의 조시ᄅᆞᆯ 주모ᄒᆞ시니 우리 쳐ᄅᆞᆯ 미실시ᄒᆞ올
쳐의 만로 못ᄒᆞᆯ 거라 셜친이 ᄌᆞ 변ᄅᆞᆯ 이우의ᄒᆞ오셔 기강의화
리감ᄒᆞᆯ 일이 만흐리 거미 ᄅᆞᆫ 나라 내오미 알아 겨오신 ᄀᆞᆫ모
의ᄒᆞᆫ우 로지국ᄒᆞ신 더라 뵈ᄅᆞᆯ우 ᄋᆞᆼᄒᆞ오새 미국ᄒᆞ오셔 더니
근모리 쳐 당신 직신 일노 속리 회포겨시 더니 자ᄉᆞᆫ 년의 내ᄂᆞᆫ국
ᄎᆞᆯ 맛나 망나 모ᄅᆞᆯ ᄢᅥ 도궁의 일이 폭빅ᄒᆞ이 여왼 졀
ᄒᆞ시 ᄉᆞᆯᄒᆞᆷ이 된ᄀᆞᆯ고 뫼 셩울의 ᄂᆞᆼᄅᆞᆼᄒᆞ시ᄆᆞᆯ 쳐ᄋᆡ여 이녀 졀
ᄒᆞ시ᄉᆞᆫ 급 녈화 셩 모ᄉᆞ니의 ᄎᆞᆷ참예ᄒᆞ시니 녀거 팔 질의
ᄒᆞ나 히 못 미희 겨오시리 강건ᄒᆞ오셔 미 이 상ᄒᆞ오셔 너ᄀᆞᆫ희

ᄒᆞ나도라 셜친을 츅보ᄒᆞᆫ니 죵표죵자 신진 칠슌
울곳누리오셔ᄂᆞᆫ 보거셔 노ᄂᆞᆫ 벽어 소녀ᄅᆞᆯ ᄌᆞ오셔 ᄆᆞᄋᆞᆯ
불외ᄒᆞ고 눈물어 ᄒᆞᆯ며 빈궤 진퇴 지졀이 ᄌᆞᄃᆞᆯ
소녀의 가ᄆᆞ치 아니ᄒᆞ시니 이샹ᄒᆞᆫ 불흠북ᄒᆞᆫ 노화
셜ᄒᆡᆼ어 ᄉᆞᆷ나ᄆᆞ던 ᄀᆞᆯ 셩인ᄒᆞ야 개ᄀᆞ회 ᄅᆞ이 ᄒᆞᆫ니 복
벽어져 오셔 불일 ᄃᆞᆫ더니 불ᄒᆡᆼ이 ᄋᆞᆼ녀와 박실ᄒᆞᆯ 늘을
ᄀᆞᆯ시ᄂᆞᆫ 셜변상이 아니 그 보복인ᄉᆞ져의 디동이 업더ᄒᆞ셔ᄃᆡ
오셔 ᄒᆞ시ᄆᆡ 변거와 쥬어 심ᄒᆞ셔ᄃᆡ 함ᄇᆞᆫ의 우ᄐᆡ ᄒᆞᆯ니
ᄀᆞᆯ뢰 보슈 병의 ᄃᆞ뢰 ᄒᆞ되 신ᄒᆞ니 큰 집ᄇᆞᆯ어 민망ᄒᆞ며
라 남비 셔궁의 병ᄒᆞ야 편모ᄅᆞᆯ 반ᄌᆞ와 무변ᄒᆞᆫ ᄃᆡ양슉
ᄒᆞ여 ᄀᆞᆯ 보ᄎᆡ며 ᄌᆞ시ᄒᆞᆫ이 죄에 ᄒᆡ쳐 죄ᄃᆞ보 ᄒᆞᆫ더ᄅᆞ니 ᄒᆞᆫ
죵ᄒᆞᆯ 일을 미ᄋᆡᆼᄒᆞ야 이죄 ᄂᆞ흔 히 ᄒᆞᆯ 일이 ᄌᆞᄅᆞᄃᆡ
라 내 죡하의 왕니 ᄒᆞᆯ 죄 ᄭᆞ다라ᄂᆞᆫ 셩각ᄒᆞ니 심ᄒᆡ

후히 ᄒᆞ셔나니 엇던 ᄉᆞᄅᆞᆷ 병 당ᄒᆞ여 재ᄒᆞ샤
아라 ᄉᆞᆼ금 흉ᄇᆞᆯ 조차 이런 은수를 받ᄌᆞ와 시브더라
즁을 본지 ᄇᆡ년이 즈레 와 늙어 주록 풍셜을 ᄌᆞ니 여러
슈히 너 거ᄂᆞᆫ 계 희의 난ᄉᆞᆼ을 ᄌᆞ의 그즈러 와 회 가디라 ᄂᆞᆫ
거ᄉᆞᆯ 볼너 옥당다 조니ᄎᆞᆺ 재쾌라

친죡명원소　긔ᄉᆞ 졍월 십칠일

게어ᄉᆞ디 못ᄒᆞ올 ᄇᆞᄅᆞᆯ라 일에 반ᄃᆞ시 원ᄌᆞ의게 바ᄅᆞᆯ거시니
라께 ᄀᆞᆯ잡음ᄀᆞᄉᆞᄅᆞ니 내 어ᄉᆞ다 ᄒᆞᆫ 말을 ᄒᆞ뢰오ᄒᆞ오샤
옥음이 ᄉᆞᆺ복ᄒᆞ오샤 ᄌᆞ못 ᄌᆞ셔의 젹ᄀᆞᆯᄀᆞᆯ 치셔ᄒᆞᆫ
ᄌᆞ에 명ᄅᆞᆨ을 인ᄒᆞᄂᆞᆸᄀᆞᆺᄌᆞ오샤 경녕근ᄅᆞᆨᄒᆞ오샤 가히 권신
울울ᄒᆞ오실니라 셩상이 공ᄉᆞᆫ이 셩ᄉᆞᆯ 듯ᄌᆞ오시매
임의 낙고 ᄎᆞᆫᄌᆞ ᄉᆔ히 ᄒᆞ야 겨오시니 어버리여 싱각ᄒᆞ여 걸퇴
셩룡이 반ᄃᆞ시 ᄆᆞᆺ당이 거룩ᄒᆞᄋᆞᆸ시리 어려 신ᄃᆞᆯ이 ᄇᆞᆺᄌᆞᆸ
기ᄅᆞᆯ 금셕ᄀᆞ쇄 ᄒᆞ옵션 ᄆᆡᆺᄌᆞ오셔 기ᄅᆞᆯᄉᆞ시 ᄀᆞᆺ티 ᄒᆞ와 감히 ᄌᆞ
ᄅᆞᆨᄒᆞᆫ올 ᄭᅦ ᄀᆞ도ᄅᆞᆯ ᄒᆞ옵셔 거못ᄒᆞ올 셔ᄅᆞᆯ 오낙ᄌᆞ 회의 뎌 이 보ᄅᆞᆯ
거ᄉᆞᆯ 보ᄋᆞᆫ ᄎᆡ 회 ᄉᆞᆯ을 ᄇᆡ며 우ᄅᆞ의 퇴ᄀᆞ 이 허물을 ᄲᅬᄉᆞ 그러
러온 거ᄉᆞᆯ 셜라 시러금ᄉᆞ욕 잔ᄇᆡᆼ우ᄅᆞᆯ ᄲᅡ 다시 ᄌᆞᆫ싱 함욕
지궁예 ᄅᆞ쳘ᄒᆞ오시 물니셔 ᄉᆞᆸ기ᄀᆞᄃᆞᆯ 보나 옵셔 더니 신민이 블
극ᄒᆞ옵션 신개무복ᄒᆞ와 셜에 믈드 ᄉᆞᆼ승ᄒᆞ오시매

시시드되여 크게 변ᄒᆞ와 신ᄉᆡᆨ의 목욕이 절ᄒᆞ기 롱기 ᄒᆞ오와 엄
ᄂᆞᆫ거ᄉᆞᆯ 골뤄 이시나 니군며 거ᄌᆞᆺ거ᄉᆞᆯ ᄉᆞ여 춤을 아라더
욕나대 ᄒᆞᆫ 벌을 방ᄉᆞ ᄒᆞ오매 국칭의뢰 ᄒᆞ와 ᄒᆞᆫ언과 패설
이 망욕과 국ᄒᆞ와 ᄡᅳᆫ롭네 신형의 회도 참화가 이시기에나
로뢰ᄉᆞ오나 이 쇠신의 지법 합ᄒᆞᆫ 빛귀 희븐지리에ᄒᆞᆫ
가지올나 ᄒᆞ옵거ᄂᆞᆯ 블ᄒᆞ옵더니 다ᄒᆡᆼ이 우리 셩상이
비셕ᄒᆞᄋᆞᆸ셔 셔증 졔ᄒᆞ오시며 힘넙ᄉᆞᆸ와 누의여 현이시
러ᄀᆞᆷ우ᄋᆞᆸ날거ᄂᆞᆯ 블편ᄒᆞ야 ᄉᆞ오와 일즉 셩상이 더ᄒᆞ
오시ᄂᆞᆫ 일즉 셩상지은이시다면 간에 련복ᄒᆞ와 쳔ᄒᆞᆫ
ᄒᆞᆺ 셩ᄒᆞᆸ야 ᄎᆡ이 셩ᄋᆞᆫ에 셜앗ᄉᆞᆸ 이리면 새뢰야 ᄯᅥ우리
셩덕 셩은의 만일을 갑ᄉᆞᆸ기를 그ᄋᆞᆺ이 긔약ᄒᆞᆸ더니
졀감히 ᄇᆞᆯ즉 ᄌᆞ뫼ᄒᆞᆫ올 계고ᄅᆞᆯ 너ᄋᆞᆸ더 못ᄒᆞ여 ᄉᆞᆸ더니
졔신가 쭝ᄉᆞᆫ의승 후ᄉᆞ를 인ᄒᆞ야 심ᄉᆞ의 상회 나오매 지의

올거시라 만일 구틔여 취 아니 ᄒᆞ면 신개 리 닷 의게 지 손ᄒᆞ소
시ᄒᆞ와 운혜 이실지언뎡 ᄉᆞ월이 업ᄉᆞ오니 제 셕ᄉᆞᆷ 보옵으
로ᄲᅥ 부리 ᄃᆞᆷ 벌코져 ᄒᆞᆸ쥴이 에 니ᄅᆞ도록 ᄎᆞ ᄒᆞ오되 잇ᄉᆞᆸᄯᅢ
개죄책이 신가ᄅᆞᆯ 벌ᄒᆞ시ᄅᆞᆯ 조모ᄒᆞ오매 뎡칙ᄅᆞᆯ 취졀
ᄒᆞ오ᄇᆞ신 후 졉울 웃쇠 ᄒᆞ와 벽방울 모해 ᄒᆞ오ᄆᆞᆫ 모ᄉᆞᆸ
너ᄒᆞᆸᄉᆞ 출젼ᄉᆞ ᄅᆞᆯ 광조ᄒᆞ오 며 뢴 쇄ᄅᆞᆯ 긔당ᄒᆞᆸᄂᆞᆫ 디라
이에 ᄎᆞᆺ울 이일ᄅᆞᆫ ᄃᆞᆷ울 ᄂᆞᆫ 모리와 나아가시 에 조ᄀᆞᆸᄒᆞ은
일ᄎᆞᆼ울 도혹화ᄒᆞ ᄒᆞᆯᄂᆞᆫ 모리와 낙혹 부졍지 누와 향슈 모리
지ᄌᆞ도ᄌᆞᆯ이 심벽울 니ᄅᆞ오져 쇠ᄒᆞ은 원업울 허박ᄒᆞᄂᆞᆯ리
동ᄒᆞ며 그뢰에 셜란울 벽라고 술뢰 그ᄅᆞᆯ 만난 ᄃᆞ시 ᄎᆞ다 그광
양ᄒᆞᄋᆞᆸᄯᅢ 줄단 ᄒᆞ올배니 ᄆᆞ 형ᄆᆞ명 ᄒᆞ은 불ᄅᆞ근 ᄒᆞ온
말ᄉᆞᆷ이 오시 그귀ᄉᆞ울 ᄌᆞᆼ주 ᄒᆞᆯ뎐 그ᄎᆞᆺ이 다만 신의 ᄒᆞ올징
의 잇ᄉᆞᆸ거 아ᄉ ᄒᆞ온거라 실ᄂᆞᆫ 이ᄎᆞ울 ᄉᆞ지ᄒᆞᆫ은 더위

울도로혀몽농치아닌재엇스디괴이치아니ᄒᆞ리이ᄭᆞ오ᄅᆞ다
귀쳑ᄒᆞᆫ생ᄉᆞ의의논ᄒᆞᆯ바삼안이열ᄌᆞᆨ부뎐ᄉᆞ로이ᄌᆞᆨ병ᄒᆞᆯ
술인ᄉᆞᄅᆞᆷ오삼ᄌᆞᆨ여시ᄯᅢ시지결이라뎌이일안운이블인죄
강도ᄒᆞ올재나거회노배ᄌᆞᆨ모판이창셜ᄒᆞ오나신이언거
ᄎᆞ마복술칙시디인ᄂᆞᆫ녯신뫼ᄑᆞᆯ뵈올에신셜리칙ᄒᆞ와
별야ᄒᆞ올고향에병거ᄒᆞ올셔셜게왕어ᄎᆡ예ᄎᆞᆫ쳐의
겨오ᄉᆞᆫ야ᄌᆞᆨ뫼올이ᄉᆞ일에ᄉᆞᄌᆞᆨ필노ᄇᆡ에ᄎᆞᆯ을신부의게
노라오신재물의노ᄇᆡᆨ언이오시다상단일ᄌᆞᆨ이러ᄃᆞ시
굴오새ᄅᆡ와ᄌᆞᆨ의나라와ᄒᆞᆯ혈침이가히신명에질졍ᄒᆞᆯ
거시오녯사ᄅᆞᆷ의게브ᄌᆞ러오미업ᄉᆞᆯ재ᄒᆞ올가로ᄉᆞᆫ간ᄉᆞᆫ말ᄉᆞᆷ
아니라ᄉᆞ술일쳬에궁의와ᄇᆡᆨ의궁언이이실거시니쳔리
밧긔가졍가야ᄒᆞ미비ᄌᆞᆨ무ᄒᆞᆯᄒᆞ나그부시여울ᄀᆞᆷᄌᆞᆨᄒᆞᆯ
별궁이오ᄌᆞᆨ이라와ᄌᆞᆨ의당일로증셩에기디만셰에영ᄌᆞᆫ

ᄒᆞᆯ거시니 엇디 ᄎᆞᆷ셥ᄒᆞ셔 어ᄉᆞ니 병ᄌᆡ 이 너기리오 ᄀᆞᆫ나ᄌᆞ리와
협ᄒᆞ야 화거졀ᄌᆞᆨᄒᆞ시오ᄉᆞ 후 세ᄌᆞ 옥ᄎᆡᆨ 완결 이오 묵젼 안
원과 계 막 ᄎᆞᆨᄒᆞ야 시일을 기ᄃᆞ리기 어렵ᄉᆞᆸ거ᄉᆞ도 이ᄀᆞᆸ을
더라 져작에 ᄆᆞᄎᆞᆷ 셩ᄌᆞ ᄏᆞᆫ ᄆᆞᆯ 인ᄒᆞ야 ᄉᆞᆨ여ᄉᆞ 김한기 별문안으
로 ᄃᆞ려온 ᄆᆞᆯ ᄂᆞᆫ ᄉᆞᆨ작ᄒᆞ미 이시니 대저 이번 일이 우ᄒᆞ로
셩덕의 대ᄌᆞ와 대의리의 ᄌᆞ별ᄒᆞ미 되시니 실로 망극ᄒᆞ다
ᄒᆞ오시오 하ᄂᆞᆯ이 이ᄅᆞ러 아ᄅᆞᆸ ᄒᆞᄂᆞᆫ 곳이 불인ᄒᆡ 불감ᄒᆞᆯ
울니나 신히 감히 벗겨ᄃᆞ니 지 못ᄒᆞ오나 대개 근의ᄂᆞᆫ
셜왕져오샤 친히 보오신 게 ᄉᆞᆯ퇴 시작의 쳔ᄌᆞ를 ᄉᆡᆼᄀᆞᄒᆞ
오샤 그ᄯᆞ 언의 허 ᄒᆞᆼᄒᆞ오ᄆᆞᆫ 불ᄒᆡ 겨오시니 이 예찰을 보
장셩ᄒᆞᆸᄒᆞ와 이 되실 아ᄒᆞᆯ 주중 알퇴 ᄌᆞ 어잇ᄉᆞ오나
우리 셩ᄉᆡᆼ이 ᄎᆞᆯᄒᆞ여셔 리여 ᄉᆡᆼ각ᄉᆞᆸ건ᄃᆡ 반ᄃᆞ시 보오시
고 공경ᄒᆞ야 각ᄌᆞᆨᄒᆞ오시리이다 병신 ᄌᆞᆨ의 니ᄅᆞᆯ ᄒᆡ 덩니

환소비에 영모겨오사 악수 하고 ᄒᆞ오신거ᄉᆞᆯ ᄇᆞᆺ
히번셕ᄒᆞ야 겨오시니 이졀후 ᄒᆞᆫ슈와 비답을 ᄇᆡ와 보온즉
실셔ᄅᆞᆯ 못년에 각별ᄒᆞ시나 굴도재괴연무슈 일을 그른
치미시니 고진실노 신복ᄒᆞ야 곰못년의 각별ᄒᆞ온 ᄇᆡ잇ᄉᆞᆷ
온즉 신복의 쳑ᄒᆞ온 배 비ᄅᆞᆺ나ᄂᆞᆫ가ᄒᆞ오나 셜왕과 맛당에
퇴궁지 슈와 피ᄅᆞᆷ지 역이 되올거시오 주궁 겨오샤 비ᄅᆞᆺ
츙졀지 회겨오시나 관계ᄒᆞ미 지동ᄒᆞ온즉 운동은 진실
노겨오시더니와 의리ᄅᆞᆯ 헤아리오시매 감히 ᄉᆞ졍을 니ᄅᆞ거 못
ᄒᆞ오시되니 셜왕겨오셔 ᄉᆞᆯᄒᆞᆯ 업ᄉᆞ더 ᄎᆞᆷ아 여러 번 ᄉᆞ셕지
못ᄒᆞᆫ 번뇌ᄒᆞ셔 며조욕 ᄎᆡ지 운울 치ᄒᆞ오샤 종시에 쇠되
아니ᄒᆞ오시미 이러ᄒᆞ시 광쳘ᄒᆞᆫ ᄒᆞ오셔 되엿가 그ᄲᆞᆺ거 미ᄉᆞ얼다
ᄅᆞᆯ간 범ᄒᆞᆯ 일ᄅᆞᆯ이 잇ᄉᆞ온즉 유리나 회비의 반ᄃᆞ시 ᄒᆡᆼᄒᆞ셔오
고 말ᄒᆞᆫ 엇더ᄒᆞ니 알 ᄒᆞ올나 어부 ᄒᆞ오셔 그ᄃᆞᆼᄅᆞᆯ 일ᄅᆞᆯ이 업ᄉᆞ올 ᄂᆞᄅᆞᆯ 이

원본은오히려여ᄉᆞ오도로혀 영모셩덕의이로ᄒᆞᆫ
셜왕유칙을생각디아냐ᄒᆞ오시니이말ᄉᆞᆷ은ᄒᆞᆯ셔노재실
노이귀책의여엇이며엇디 삼톄역신이아니오리잇가뎌
이안은그ᄯᅢ악원도졔톄신김치인이국당ᄒᆞ던말은ᄃᆞ리
못ᄒᆞᄂᆞ나슴울슈용ᄒᆞ온ᄯᅳᆺ을ᄇᆞ라샹소ᄒᆞ야ᄉᆞᄅᆞᆯ베퍼ᄉᆞ오
귀책의샹소절노허망ᄒᆞ옵디도타가와족히갈홀벌백
호올거시업ᄉᆞᆸᄂᆞᆫ뎨삼안은이일이셜노원젼이잇ᄉᆞ오
비록국히의결ᄒᆞ옵ᄂᆞ가감히그ᄯᅢᄉᆞ뎍슈작을ᄇᆞ라평남
울양비치아냐치못ᄒᆞᆫ이나 긔록이원을에 츈궁겨
오샤신복울 존경쳐ᄉᆞ의셕ᄉᆞ뎍ᄒᆞ옵실셰모년ᄉᆞ연ᄂᆞᆫ
울인ᄒᆞ야신뵈족왈 패톄겨오샤모년ᄉᆞᆯ을ᄇᆞ라졀ᄒᆞ
하계ᄋᆡ블시과ᄎᆞᆺᄒᆞᆯ셔ᄂᆞᆫ춀죡승이블디미시아냐올셔
셜위춀ᄒᆞᆫ말히나블라ᄒᆞ야ᄉᆞ오니이ᄎᆞᆺ이피에오ᄇᆡᆨ할단

근슈ᄒᆞ옵셔 기ᄅᆞᆯ ᄲᅥ 이 일의 ᄉᆞ뎡 부그ᄅᆞᆯ 삼ᄉᆞ오시미 이 신의 소망
이ᄅᆞᆫ 슈이 거ᄃᆞᆫ 이제 쇠독와 인심이 졈ᄇᆞ 원험ᄒᆞ오니 현열에
만일 ᄒᆞᆨ이 일노 ᄲᅥ 거ᄉᆞ읏 얼리 부신여 당ᄀᆞᄅᆞᆯ 실지ᄒᆞ온
묵리 국가의 욕ᄉᆞᄒᆞᆫ 믈 다ᄒᆡᆼ이 녀여거 화 쳬로 빈화ᄒᆞᆫ
근요공ᄒᆞ옵ᄉᆞ온 ᄌᆡ물 삼공젹ᄒᆞ와 ᄲᅥ 쇠독ᄒᆞ올 괴탄ᄒᆞᄋᆞᆯ 지경
에 니ᄅᆞ온즉 엇지 더 크게 우려ᄒᆞ올 재 아니리잇고 신의 이 말
슴이 실노 옹졸ᄒᆞ온 ᄉᆡᆼ각을 낫ᄉᆞ오나 진실노 만ᄆᆞᆨ ᄒᆞ리
ᄒᆞ올 줄 아오나 신이 ᄉᆞ별을 경녁ᄒᆞ오미 미쇼ᄇᆞᆯ욕ᄒᆞ야
ᄉᆞ온 식 능히 셜ᄉᆞᄒᆞ야 너희 환ᄒᆞᆯ 법도 ᄎᆞᆺ이 엇지 아니ᄒᆞ올이라
ᄒᆞᄋᆞᆸ시니 ᄎᆞᆫ궁이 ᄆᆞᆷ왈 젼ᄒᆞ오니 지국이 실노 흠복ᄒᆞ이
로디라 오ᄅᆞᆯ날 인심 쇠도로 ᄲᅥ 과연이 념녀 업지 아니ᄒᆞ올
엇지 가히 관려리라 너ᄅᆞᆯ 뢰ᄒᆞ야 경오시나 이ᄉᆡᆼ하 슈작을
신의 지ᄇᆞ의 녹치ᄒᆞ올 거시라 신복의 평일의 놉이ᄒᆞᆫ

숭지셜을챵츌ᄒᆞ야 현언공챵ᄒᆞ다ᄒᆞ야ᄉᆞᄋᆞ셔 현언공
챵ᄒᆞᆫ울쳬의공리의이셔 ᄉᆞᆸᄂᆞ니잇가 ᄉᆞ실의이셔ᄉᆞᆸᄂᆞ니
잇가이임의박지무함ᄒᆞᆫ말ᄉᆞᆷ이옵고ᄉᆞ댝셜화로삐어
띡을변환ᄒᆞᆫ옵ᄂᆞᆫᄒᆞᆼ연을방ᄌᆞ히츅츌ᄒᆞᆫ와ᄋᆞ덕ᄉᆞᆺ재
로주날ᄒᆞᆫ몰이ᄀᆞᆺ치참득히ᄒᆞ오니그ᄒᆞᆼ(츌)이ᄒᆞᆫᄂᆞᆫ음럭ᄒᆞᆫ
요미여러ᄒᆞᆼ평에능히츅양ᄒᆞᆫ을배리의ᄂᆞᆫ때개이알와
운바에임의활단ᄂᆞᆫ유로배양별ᄒᆞᆫ은ᄯᅳᆺ히경ᄀᆞᆼᄒᆞᆫ온ᄂᆞᆫ
심을이리대못ᄒᆞᆫ와ᄯᅩ다시진팔ᄒᆞ야쳔리비ᄒᆞᆨ지논을
혈ᄉᆞ말ᄉᆞᆷ을ᄒᆞ야ᄉᆞᄋᆞᆸ네여실노남군을ᄉᆞ랑ᄒᆞᄂᆞᆫ나라
훌ᄂᆞᆫ심ᄒᆞᆼ와각ᄀᆞᆫ광너ᄒᆞᆫᄋᆞᆸᄂᆞᆫᄯᅳᆺ으로싸낫ᄉᆞᄋᆞ니어리일
죽일ᄒᆞ나츅츙지논을죽ᄒᆞ야원년을삐공동ᄒᆞ라말
ᄉᆞᆷ에방블의ᄉᆞᄒᆞ라ᄒᆞᄂᆞ리잇가이런고로뻥신ᄒᆞ니황소
비에염의 하교ᄒᆞ오시리구본심을원쳐ᄒᆞ면며환ᄂᆞ이

ᄒᆞ올나잇ᄉᆞ오되 이ᄉᆞ근이 굴을 가져의 논ᄒᆞᆫ 변소와 괴경ᄒᆞ
충ᄒᆞ야 외협궁갈ᄒᆞ샤 말ᄉᆞᆷ을 더브러 절연 샹반ᄒᆞ와
비ᄌᆞ ᄒᆞᆫ매 흑빅 ᄀᆞᆺᄉᆞ오나 비록 부옥ᄀᆞᆺᄒᆞ야 굼ᄃᆞᆺᄉᆞ온들노
어믹의 이러ᄒᆞᆫ 처러치 아녀 ᄒᆞᆯ졀을 어ᄉᆞ니 본변치 못ᄒᆞᆫ
리잇ᄀᆞ 더나 외 인의 실ᄉᆞᆯᄂᆞᆫ 체 히 몸을ᄂᆞᆫ 못 함ᄒᆞ와 날 말ᄉᆞᆷ
만뉘 몸ᄋᆞᆯ 보근의 의심을 일워고의 혹을 더ᄒᆞᆫ 쳐와 언을
너굴혀 ᄂᆞᆨ지 리ᄋᆞᆫ 진ᄉᆞ로 채 그 쇠다 ᄀᆞᆯ러ᄒᆞ온 ᄀᆞᆯ나 힐소
비답에 ᄎᆞᆯ 로ᄒᆞ야 굴오사 ᄃᆡ ᄃᆞᆺ노 재 셩 ᄃᆡᄒᆞ기로 맛당ᄒᆞᆫ
말ᄒᆞᆯ 재ᄌᆞ 병ᄒᆞ기도 맛당ᄒᆞ샤 ᄒᆞ야 겨오시니 셩의 에대개
실ᄂᆞᆫ 굴ᄅᆞᆫ 세히 아니 못ᄒᆞᆫ 근ᄒᆞᆯ 갈부함ᄒᆞᆯ 말만ᄃᆞᆯ 굴ᄌᆞᆨ 셜
죄ᄒᆞ기 맛당ᄒᆞ온 ᄌᆞ 긔 ᄉᆞ잭이 별지로 이러치 아녀ᄒᆞ온 죡말
ᄒᆞᆫ재ᄌᆞ 병ᄒᆞ미 ᄎᆞᆫᄒᆞᆯ 맛다ᄋᆞ ᄒᆞ오리 ᄒᆞ옵션 하ᄂᆞ오시니 궐적의
원허지 셜을 로 ᄌᆞ졸ᄒᆞ야 ᄌᆞ쳥을 리ᄅᆞᆨ ᄒᆞᆯ 죄이 ᄋᆡ니

더옥도망치못ᄒᆞ올너다 이런고로귀ᄒᆞ오나
셜왕견오사 ᄢᅢ찰오ᄂᆞᆫ신부의게ᄀᆞᆯᄋᆞ오사ᄃᆡ ᄒᆞᆼᄉᆞᆼ은면
ᄒᆞᆯ년ᄒᆞᆫ만ᄋᆞ음찬ᄒᆞ시고금천하에엇ᄃᆡ이러ᄒᆞᆫᄒᆞᆼ즉ᄯᅥ
쟁이이시리오별ᄂᆞᆷᄒᆞ시국ᄒᆞᆫ매ᄇᆞᆯᄒᆞᆼ관년ᄒᆞ문세ᄃᆞᆺ너ᄂᆞᆺ
ᄒᆞᄂᆞ라ᄒᆞ야견오시니 셜왕견오사귀ᄒᆞ의ᄒᆞᆼᄯᅥ쟁생을ᄎᆞᆨ
죄ᄒᆞᆯ사임의ᄒᆞᆼ소리음나오ᄃᆡ던세ᄀᆞᆫ브터업ᄉᆞᄒᆞᆼ뢰ᄒᆞ오
시믈이ᄀᆞ티ᄎᆞᆨ셩이ᄒᆞ오사 예신의절브ᄒᆞᆼ악ᄒᆞ야ᄒᆞᆯ
시미ᄉᆞ표의넘ᄶᅵ믈ᄎᆞᆨᄒᆞᆯ가히보올거시니엇디니미의형상
이ᄯᅢ양이ᄇᆞᆯ길은ᄯᅢ도망치못ᄒᆞᆸᄂᆞᆫ브ᄅᆞ복원의버히미상졀
의업ᄒᆞᆯ테더옥느ᄂᆞᆷ연ᄒᆞᆫ미아니리잇ᄀᆞᆫ대개너ᄀᆞᆯ바여시
여시지셜은진실노그귀ᄌᆡ의어리ᄎᆞᆨᄒᆞᆯ각지의에어
죄이시ᄆᆞᆫ알지못ᄒᆞᆯ시ᄀᆞᆼ중ᄃᆞᆼ의셜계ᄆᆞ함ᄒᆞ올게
그ᄇᆞᆷ은비록귀ᄒᆞᆸᄉᆞ나ᄇᆞᆯ길이ᄆᆞᆯᄒᆞᆫ현연이업ᄉᆞ믈고

말이ᄒᆞᆯ길히업ᄉᆞᆯᄉᆡ이에집ᄯᅳᆺ은미블ᄂᆞ지어와ᄆᆞᆯ놀
비창지쳘을지어그말을린ᄂᆞᆫᄒᆞᆫ그ᄎᆞ중을운명ᄒᆞ야ᄒᆞᆫ
젹업ᄂᆞ가옷쇄자최ᄀᆞᆯ가히ᄎᆞᆯ도시ᄒᆞᆯ보ᄂᆞᆫ잡을거시
업ᄂᆞᆫ이에ᄎᆞ못형상을가히잡을드시ᄒᆞ와다만엿시
라ᄒᆞ와일ᄭᅢ어칭ᄒᆞᄒᆞ야왈여시ᄂᆞᆫ흥경언이라ᄒᆞ야ᄂᆞᆫ을
금쳑이ᄂᆞᆫ닉섭을놉네ᄭᅬ로근ᄒᆞ야ᄒᆞ야곰의희이얄졍
당ᄒᆞ쇠혜아려게ᄒᆞ와그러패ᄒᆞᆫᄒᆞᆯ쇄ᄒᆞ미ᄂᆞᆫ못ᄒᆞ니로ᄂᆞᆫ
바ᄆᆞᆨᄉᆞ롱ᄀᆞ동ᄂᆞᆫ심ᄒᆞ옵ᄂᆞᆫ니라이에거쳐지인이능히여시가
이런여시온거더런여시옷치ᄉᆞᆯ더아ᄂᆞ못ᄒᆞᆫ이에ᄎᆞ중을
벽주혜집작ᄒᆞ여가ᄉᆞᆸ으로벽회되리아와ᄎᆞᆨ굴오디져시
여시란거ᄉᆞᆯ응당더러ᄒᆞᆯ말이라ᄒᆞ와너ᄅᆞᆯ노거시상낙이
잇ᄉᆞᆸᄂᆞᆫ말ᄒᆞᆫᄂᆞᆫ거시쳘심이잇ᄉᆞ와수흭ᄒᆞ야무로편능히
진뎌ᄒᆞᆫ거ᄉᆞᆯ둥거치못ᄒᆞᆫ범연이의논ᄒᆞ매몬무다ᄒᆞᆼ

의나ᄅᆞ러ᄉᆞᆯ다시ᄉᆞᄅᆞᆯᄒᆞ와챵화ᄅᆞᆷ은일월여ᄉᆞ오니만고현ᄒᆞ외
엇ᄉᆞ니이런텰텬ᄌᆞ거ᄒᆞ온홍원이이ᄉᆞ오리잇가대개신벽
만ᄅᆞᆫ사ᄅᆞᆷ과다ᄅᆞ온ᄀᆞᆯ묵녈을거리온ᄋᆞ로브터 ᄯᅦᄅᆞᆯ
ᄒᆞᆨ렴ᄒᆞ와낙간ᄒᆞᆫ옥을ᄒᆞ믈러ᄒᆞ야ᄀᆞ희힝ᄒᆞ올ᄯᅢ업게ᄒᆞ시
내신벽의터히혐의ᄂᆞ녀ᄂᆞᆯ비소가ᄅᆞᆷ이오다만단ᄀᆞ집
이슈쳐미쳔ᄒᆞᆫ울ᄯᅢ낫ᄉᆞ버거날귀쳑이이ᄅᆞᆯ갈희ᄅᆞ치리라
나ᄅᆞᆫ근이일노갈희모한ᄒᆞ뢰라나ᄅᆞ와안ᄒᆞᆫ울ᄯᅧᆼ쳐ᄀᆞᆯᄌᆞᆯᄊᆡᄉᆞᆫ밧
굴ᄒᆞ와겸을지ᄌᆞᄒᆞ야밀계ᄅᆞᆯ뫼참ᄌᆞᄒᆞ온의언을ᄅᆞ뫼ᄒᆞᆫ동
ᄒᆞ와ᄆᆞᄎᆞᆷ내받야의나ᄂᆞᆫᄒᆞ오샤췌삭ᄒᆞᆫ원ᄒᆞ기의나ᄅᆞ와
동심이쥐향ᄒᆞ오셔근희삭이블측ᄒᆞ오셔더니세ᄅᆞ샤간흉이
언묘쳐오샤영명ᄒᆞ오샤뒤음은 현령이혐ᄒᆞ고ᄒᆞ오시가
ᄆᆞᄎᆞᆷ내간상을뒤좌ᄒᆞ야겨오시나만일우니 션대왕샹
긔ᄌᆞ셜ᄒᆞ오ᄉᆞ며갈ᄂᆞᆨ희알ᄒᆞ오신덕이아ᄉᆞ오신ᄌᆞᆨ신갓외

절나이몸을ᄇᆞ려능히젹락ᄋᆡᆼ쳥지원을힘ᄡᅥ능히ᄒᆡᆼᄒᆞ오ᄃᆡ
못ᄒᆞ오나그의뢰ᄒᆞᆯ병집ᄒᆞ며스ᄉᆞ로보시ᄒᆞ신공졀을
숑조ᄒᆞ며당거올량ᄒᆞ와ᄡᅥ려진ᄂᆞᆫ이자슈ᄒᆞᆫ바자ᄅᆞᆯ즁
울ᄀᆞᆯ마두려ᄒᆞ와해ᄃᆡ못ᄒᆞᆯ가시오나다만병든후ᄒᆞ온지라
년에오ᄅᆞ러실졍을힘ᄡᅥ와손가온ᄃᆡ도ᄅᆞᆫᄒᆞ올지경을츅ᄒᆞᆯ
즁겨산ᄀᆞᆷ음은쳔ᄅᆞᆨ와ᄌᆡᆨ앙치아니ᄒᆞᆫᄒᆞᆫ굿치지공을나
와능히텬ᄉᆞᄅᆞᆯ부리와죵횡지나ᄀᆞᆯ일우며셜도렁항
지쉬ᄀᆞᆯ즁섭ᄉᆞ오뢰ᄒᆞᆯ노부박봉ᄉᆞ지비와허ᄉᆞ로면지뉵ᄅᆞᆯ
독ᄒᆞ야아니ᄒᆞ와적기전어ᄒᆞᆫ물더ᄒᆞ야ᄒᆡ미ᄒᆡᄒᆞᆫ물빈노리라
이에즁후즁쉬신복의즁빈의아ᄃᆞᆯ노ᄇᆡ우ᄀᆞᆷ으로남을
쳥긔ᄒᆞ와보로ᄆᆡ구월을일우나ᄅᆡ개신별즁ᄒᆞ시일년
로더부터일홈은비록즁남의오나졍은동조ᄀᆞᆺᄉᆞ와라
히봉ᄇᆞᆯ기ᄅᆞᆯ집안즈ᄃᆞᆫ굿치ᄒᆞ야셔로ᄀᆞᆯ치며칙망

잇고ᄆᆞᄋᆞᆷ이 블다 결ᄉᆞ 망의 ᄒᆞᆫ 부쳬ᄌᆞ관ᄒᆞ야 다미ᄅᆞᆯ경
울인연ᄒᆞ야 ᄆᆞᆫᄉᆞ 셩지ᄀᆞᆯᄒᆞᆨ 결의세동ᄒᆞᆫ 신쳑의
게의락ᄒᆞ야 ᄃᆞ록아 관셩울귀ᄌᆞᆨ의세ᄉᆞ온ᄒᆞᆯ재사힝
쳐ᄆᆞᄌᆞ에시생김치연이 ᄒᆞᆨ겸울ᄇᆞ리ᄉᆞ원보ᄉᆞ의의로
젼ᄒᆞᆨ와 신복의게ᄆᆞᆨᄉᆞ 신뷔ᄀᆞᆯ우리 제가 이붕의ᄒᆞᆯ은
어쳔아 희ᄉᆞ 언다가희 삼보동진치ᄅᆞᆫ병마지임울ᄇᆞ리ᄌᆞᆨ
리오ᄒᆞᆯ인ᄒᆞ야 녀ᄆᆞᆫᄒᆞᄉᆞ ᄒᆞᆨ겸이 크게 에ᄀᆞᆯᄒᆞ야 그어미의게
알ᄂᆞᆫᄒᆞ야 ᄃᆞ리여 괴로ᄌᆞᆨ ᄌᆞᆯᄂᆞᆫ 참관ᄃᆞᆨ연 ᄉᆞᆯ ᄉᆞᄅᆞᆯ주 셩ᄒᆞ야
ᄉᆞ옷ᄉᆞ 대개 령쳐 ᄡᅳᄅᆞ지 실울주 ᄎᆞᆯᄒᆞ야 ᄒᆞᆨ 겸으로 ᄒᆞ며
음련하 ᄒᆞᆯ인ᄒᆞ야 ᄎᆞᆯ ᄢᅵ 쳥의 뎐ᄅᆞᆫᄒᆞ야 ᄲᅬ 형ᄋᆞᆨ 지시ᄅᆞᆯ
ᄒᆞᆨᄉᆞ 이편돼 ᄒᆞᆨ 겸의 ᄉᆞᆨ원 복ᄉᆞᄅᆞᆯ 여의 히ᄃᆞ 쳠 취ᄆᆞᆺ
ᄒᆞᆯ연과ᄉᆞ 원ᄌᆞᆨ이 사금에 비로ᄌᆞᆨ 싱ᄒᆞᆯ새 ᄒᆞᄉᆞ ᄒᆞᆯ 외임의
ᄯᅳᆺ과 어괴ᄆᆞᆯ인ᄒᆞ야 이음으로ᄒᆞᆯ 쇠ᄅᆞᆯ ᄲᅴᄅᆞ올 ᄌᆞᆯ 업ᄉᆞ거ᄂᆞᆯ

이리삼긔ᄉᆞ이에ᄯᅥᄂᆞ이잇더아ᄂᆞᆫ거시업ᄉᆞ오ᄃᆞ화로ᄃᆞ려ᄡᅥᄃᆡ아
ᄇᆡᆫ거서업ᄉᆞ오니이ᄯᆡ개귀젹이본ᄃᆡ창거ᄒᆞᆫ매한녹이셔리
로둡고명쾌니응ᄒᆞ오매혹겸이난을브쾌ᄡᅥ옵고종
슈고독ᄒᆞ오매국영이ᄒᆞᆼᄒᆞ믈배프옵고일환이ᄒᆞ신ᄒᆞ매
환지견벼ᄒᆞ와총하싱공ᄒᆞᄋᆞᆸ고편승ᄒᆞ제ᄒᆞ와노
ᄯᅩ날ᄀᆞ더니ᄅᆞᆫ온재화믈의ᄌᆞ졔젹의음도득셜라ᄒᆞᆼ경패
졀이라굴어ᄒᆞᆫ변ᄂᆞᆨ와쳘쳐히향쳐ᄒᆞ와다입의ᄭᅳᆺ간
현츅ᄒᆞ와ᄒᆞᆫ계로방헌에변북ᄒᆞᆫ와ᄉᆞ온ᄌᆞ시신가의졔
뎍의졔무ᄒᆞᆫ빗ᄉᆞ온자ᄂᆞ오히죄최민지논을ᄂᆞᆺ더못ᄒᆞᄋᆞᆸ
ᄅᆞ모참비옥셕지탄을면치못ᄒᆞ온재엇디며옥원혹ᄒᆞᆫ
옵고동박지아니리잇가오직우히
션ᄃᆡ왕겨ᄋᆞ샤신부의존쥬비민ᄒᆞ온셩ᄃᆞᆼ을긔렴ᄒᆞ오셔
근신부의묘완잔굴ᄒᆞ온우모를표장ᄒᆞ오시ᄆᆞᆫ공ᄉᆞ온ᄂᆞᆫ일

원쳑을 발원ᄒᆞ오사 욕음이 잇다 ᄒᆞ야셔 ᄒᆞᄋᆞᆸ고 다시 엿ᄌᆞᆸ되
어셔온디라 초 어칠을 신령의게 구ᄒᆞ오사 ᄀᆞᆯ오사 저와
왕ᄌᆞᆯ의 ᄒᆞᆫ 혹셩지방이 이 ᄒᆞᆫ 거ᄅᆞ의 인ᄂᆞᆫ더니 버슷
로ᄒᆡ ᄒᆞ고 태ᄌᆞᆼ의게 이 셔ᄉᆞᆯ 때 감이 업ᄉᆞᆫ 나의게 이 셔ᄉᆞᆯ 말ᄉᆞᆷ이
잇고 궁의 셩도궁이 ᄎᆞᆯ ᄒᆞᆯ 시ᄒᆡ 곰이 ᄌᆞᆯ 쟈려 ᄒᆞ야 더옥 나
타나지라 ᄒᆞ야 져오시샤 쳥의 예긔간 ᄒᆞ오시과 쳥을의
ᄂᆞᆼ도궁 ᄒᆞᄋᆞᆸ셔 미ᄒᆞᆫ 노신들의 영감만 ᄒᆞᆫ 올 설 인ᄉᆞ라 신
벌 알ᄋᆞᆸ이 이ᄉᆞ오 결주 다 지하에 갑읍 ᄒᆞᆯ 미 ᄲᆞᆯ당이 낙
엿더 ᄒᆞ퇴 잇고 오리 쳥생 결오샤 뢰열 저 여에 안친ᄒᆞᆫ
오시고 뢰ᄂᆞᆫ 열지궁에 병궁 ᄒᆞᄋᆞᆸ설 쟈 ᄀᆞᆯ 신들이 ᄎᆞᆯ 일ᄎᆞᆨ
설왕하 ᄀᆞᆯ로 승문 ᄒᆞᄋᆞᆸ고 지 금방 ᄎᆞᆯ에 면누ᄒᆞ와 갑히 졀ᄂᆞᆫ
럿도 혹 나ᄉᆞ리 못 ᄒᆞᄋᆞᆸ노 재라 이 굴이 숙 저에 드미 못 ᄒᆞ와
설왕이 문득 궁검을 먹리오시고 오리 쳥생이

거시오지 어ᄭᅵ기ᄀᆞ치 ᄉᆞᆯ이 쟝채의 감히 ᄒᆞᆸ니 못ᄒᆞ오매
온족ᄒᆞ옹도의 죄 ᄉᆞᆯ노 쟝채의 다나오니 ᄒᆞᆫ이 ᄌᆡ로 살ᄅᆞᆷ의 신
셔리와 어ᄶᅵ를 쳥ᄒᆡ ᄒᆞ노 사ᄅᆞᆷ이 어시리 잇ᄉᆞ오리잇가 신
등이 셜왕지셕에 여ᄒᆞᆫ시물 ᄉᆞᆯ외ᄒᆞᆸᄂᆞᆫ 원셕을 ᄉᆞᆨ
화ᄒᆞ오미 ᄌᆞᆨ각의 이시무ᄂᆞᆫ ᄉᆞᆯ죄ᄒᆞ와 중산의 ᄌᆞᆯ족ᄒᆞᄂᆞᆫ 때
희황혐ᄋᆞᆸᄒᆞ와 ᄆᆡ양 쳠셔ᄒᆞᄂᆞᆫ의 ᄎᆞᆺ즐을 ᄡᅳ오매 ᄒᆞᆺ각셕
간에 무지게를 ᄇᆞᆺᄃᆞ와 쳑일에 젹씨 신너ᄒᆞᄂᆞᆫ 강변
셩도ᄒᆞᆯ셰 련일을 ᄌᆞᆨ련ᄒᆞ와 어서다 마오음ᄒᆞᄂᆞᆫ 리나ᄒᆞᆫ
울ᄲᅳᆷ이 리잇고 ᄉᆞᆯ심도 상ᄉᆞᆼ의 병진년 간셩ᄒᆞ여우
쳐셔ᄂᆞᆫ ᄉᆞᆯ을 ᄲᅡ 말ᄉᆞᆷᄒᆞ야ᄉᆞ오니 대개 이 셩뎡 일이 셔울셔 블
양진ᄒᆞ오ᄂᆞ시 이ᄉᆞ오니 병진지 월 각에 실덜ᄉᆞ 영의
쥭시의 망ᄒᆞ리 아닌 일은 텰리 진현ᄒᆞᆸ시ᄉᆞ 기시 뎐강한
용죄를 어ᄂᆞᆺᄒᆞ야 쳐셔의 찬빈ᄒᆞᄂᆞᆫ 여러 번이오

ᄒᆞ와 폐읍거ᄃᆞ지지로속이거

대개 엄명이 쳘강ᄒᆞᆯᄉᆡ 매 진금망조ᄒᆞ옵ᄂᆞᆫ 졍공셜

ᄒᆞ오매 구ᄉᆞ블ᄎᆞᆨᄒᆞ와 감히 옥등에 샹셕ᄒᆞ오믈 블ᄇᆞᆺᄉᆞ

와 미곤ᄒᆞᆫ 욕 옵ᄂᆞᆫ 술문ᄃᆞᆼ간을 모진ᄒᆞᆯᄉᆡ 쳑근ᄂᆞ 속ᄒᆞ와

걸복방헌ᄉᆞ

갑인을 셩ᄌᆞ주실이라 연ᄌᆞ와 뎐ᄌᆞ의 임의 거ᄎᆞ셕ᄒᆞ야 시

경의게 인의ᄒᆞᆯ ᄇᆡ 업ᄉᆞᆯ거나 업ᄃᆞ가 히이러ᄃᆞᆫ시 당황이

말을ᄒᆞᆫ 보승 후 호미지 동ᄒᆞ시 ᄌᆞᆨ시ᄃᆞᆯ회와 속명ᄒᆞᆯ